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20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청도 진라리 취락유적의 구조와 문화

- 일 시 :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10:00~18:00
- 장 소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경산조사사무소
- 주 최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嶺南文化財研究院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일 정

【개 회】 (10:00~10:20)

사회 : 장용석(영남문화재연구원)

【제1부】 발굴유적 조사보고

조사보고(10:30~11:00)

청도 진라리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허정화(영남문화재연구원)

【제2부】 주제발표

제1발표(11:10~12:00)

淸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 하진호(영남문화재연구원)

토론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중 식 (12:00~13:30)

제2발표(13:30~14:20)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 민선례(영남문화재연구원)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토론 김광명(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제3발표(14:20~15:10)

淸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 유병록(우리문화재연구원)

토론 김병섭(경남발전연구원)

휴 식 (15:10~15:30)

【제3부】 종합토론 (15:30~17:50)

사 회 : 안재호(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참석자 :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 조사· 보고서 참여자

【폐 회】 (17:50~18:00)

목 차

청도 진라리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허정화	7
清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	河眞鎬	23
清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에 대한 討論文	이수홍	51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	민선례	55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에 대한 토론	김광명	77
清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	유병록	79
「청도 진라리유적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에 대한 토론 요지	김병섭	107

청도 진라리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허정화(영남문화재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2. 지식묘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3. 고상식건물지
III. 調査內容	4. 수혈유구
1. 주거지	IV. 調査成果 및 意義

I. 머리말

청도 진라리유적은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간 중 제4공구(경산·청도구간)에 위치하는 곳으로 1993년 영남대학교박물관 주관으로 지표조사¹⁾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1년 9월 24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시굴조사를 하였으며 시굴조사 결과 유적은 3개소(경산 삼성리²⁾, 청도 내리³⁾·진라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시굴조사를 토대로 하여 조사대상면적 19,122㎡에 대한 발굴조사를 2002년 7월 29일부터 2003년 5월30일까지 하였다.

청도 진라리유적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답 918-1번지 일원으로 청도군의 남쪽에 위치하며 주변의 대구나 경산 밀양 경주에 비해 비교적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91년 운문댐 수몰지역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근래의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로 고고학적인 조사⁴⁾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 진라리유적은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고 그 주변으로 지식묘가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와 묘제가 공존하는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93동, 고상식건물지 4동, 지식묘 5기, 지식묘 상석 5기, 수혈유구 23기, 야외노지 5기, 구상유구 3기 등 모두 13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526점이 출토되었다. 이런 학술적인 중요성으로 유적의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유적 조사가 이루어졌던 조사지역의 남쪽부분의 면적 2,000여평을 확보하여 지식묘는 원상복원하고, 주거지 및 고상건물지는 이전복원하여 청동기시대 취락 및 유적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여 현재 조사대상지 남쪽부분에 고상식건물지와 원형주거지를 복원하고 지식묘 상석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 嶺南大學校博物館, 1993, 『釜山-大邱間 高速道路 大邱·慶北圈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2)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慶山 三省里遺蹟』.
3) 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大邱 旭水洞134番地遺蹟-附. 清道 內里遺蹟』.
4)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清道 元井里古墳群』.

Ⅱ . 遺蹟의 位置 및 環境

유적이 위치한 淸道郡은 慶尙北道 최남단에 해당하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좁은 형상이다. 淸道郡은 龍角山(해발 692.5m)과 龍塘山(해발 843.7m)에 의해 형성된 곱티재에 의해 동쪽의 山東地域과 서쪽의 山西地域으로 나뉘어진다. 산동지역은 1,000m가 넘는 운문산, 가지산 등의 험준한 지형을 이루는 산악지대이고, 산서지역은 대체로 1,000m 이하의 산지로 둘러싸인 평탄한 盆地로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河川은 산서지역을 흐르는 淸道川과 산동지역을 흐르는 東倉川으로 크게 이분된다. 淸道川은 비슬산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풍각천, 현리천, 오산천, 부곡천, 대곡천, 다로천 등의 지류를 이루고 있다. 이 하천의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낮은 구릉지대에는 청동기시대 지석묘나 삼국시대 분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선사시대 주거지의 입지는 신석기시대에는 주로 해안이나 강가에 거주하였고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농경의 보편화로 농경을 주로 하는 생산경제 단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주거지의 입지도 前代와는 달리 산지의 구릉과 강, 하천의 충적지, 또는 충적지와 하천이 보이는 저구릉 지대 또 의외로 높은 고지 등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입지는 크게 저지성 유형, 고지성 유형, 구릉성 유형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리고 우선 취락의 입지에 있어서 최적지는 수계주변으로 진라리유적은 낙동강 중류지역에 속하며 소하천들이 합류하는 협곡평야의 가운데에 조성된 대규모 마을유적이다.

즉, 조사지역이 위치한 곳은 산동과 산서지역을 가르는 북쪽의 용각산(해발 692.5m)에서 남쪽으로 淸道川을 향해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남서쪽에는 淸道川의 지류인 다로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용각산에서 흘러나오는 다로천의 지류들이 합류되는 협곡평야의 중앙부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구릉에서 흘러 내려온 퇴적물과 하천의 범람성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되었다.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과수원, 논, 밭 및 가축의 축사 등으로 이용되면서 부분적으로 교란이 된 상태였다.

주변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무등리지석묘군, 원정리지석묘군, 범곡리지석묘군과 취락유적인 송읍리유적⁵⁾이 위치하며, 동남쪽 구릉지대에는 송읍리·원정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Ⅲ . 調查內容

淸道 진라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93동, 고상식건물지 4동, 지석묘 5기, 지석묘 상석 5기, 수혈유구 23기, 야외노지 5기, 구상유구 3기 등 모두 13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526점이 출토되었다.

1. 주거지

5)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大邱-釜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第4·5工區)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동시대의 주거 생활방식과 거주인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진라리 유적에서는 장단축비에 따라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말각(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 구분하였고 세장방형이 8동, 장방형이 16동, 방형은 10동, 말각(장)방형은 36동으로 말각장방형이 17동이고 말각방형은 19동이다. 그리고 (타)원형은 1동, 원형은 22동이 확인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들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세장방형은 개별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유적 전체에 골고루 확인되었고 장방형은 세장방형에 비해 공간 점유율이 낮았고 점차 중복양상을 보였으며 방형은 다른 유구들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었고, 말각(장)방형은 수 기씩 군집을 이루었으나 하천이 있는 동쪽으로 가면서 흩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세)장방형에 비해 공간점유율은 낮고 중복양상은 심했다. 원형은 하천쪽으로 치우쳐서 1기 또는 2~3기씩 군집을 이룬 것이 하천으로 가면서 흩어진 말각(장)방형과 달랐다. 주거지의 면적은 가장 선형하는 평면형태인 세장방형이 평균면적 52.24㎡이고, 세장방형에 후행하는 장방형은 평균면적 15.87㎡, 방형 5.9㎡, 말각(장)방형은 8.42㎡이고, (타)원형은 44.8㎡, 원형은 16.89㎡이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가운데 수혈과 양주혈, 벽구, 주혈, 저장혈 등이 확인되었다. 먼저 노지는 구조에 따라 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노지로 구분되며 위석식(1기), 위석식+무시설식(1기), 무시설식(6기)이 있고 세장방형은 2개(4기) 또는 3개의 노지(4기)가 설치되었고 모두 중심에서 치우쳐 확인되었다. 장방형 역시 노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모두 1개의 무시설식노지이다. 방형은 1개의 무시설식의 노지구조로 노지는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1기만 동쪽벽면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벽구는 세장방형에서 거의 확인되었다. 주혈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지붕의 형태를 결정하고 주거의 평면형태와 공간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⁶⁾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중심 주혈이 있는 것은 노지를 축으로 중앙부 양 옆으로 중심주혈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6기가 조사되었고 이중 3기에서만 저장혈도 확인되었다. 장방형에서는 중심주혈을 갖춘 주거지 2기와 중심주혈과 4주식의 구조를 갖춘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저장혈은 1기에서만 확인되었다.

노지가 없는 말각(장)방형과 (타)원형, 원형은 가운데 수혈의 구조를 가지며 말각(장)방형주거지는 가운데 수혈의 평면형태가 원형·타원형·부정형으로 다양하고 (타)원형과 원형주거지는 모두 타원형이다. 진라리유적에서는 가운데 수혈과 양 주혈의 배치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발형과 호형의 무문토기로 문양구성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 단사선문+구순각목·공열문, 구순각목, 공열문이 시문되었고 단도마연토기도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석촉(무경·일단), 석부(합인·편인), 석검, 석도, 방추차, 지석 등이 출토되었으나 진라리유적이 하천변에 입지한 유적임에도 어망추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주거지는 청도 진라리유적의 출토유물과 평면형태, 내부시설 등을 고려하여 크게 3시기로 구분하였다.

I 단계는 수혈유구 21호의 즐문토기가 출토된 시기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전

6)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 출현배경-주거지를 중심으로」『한국상고사학보』 제54호.

환기로 보이며 Ⅱ 단계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위석식노지와 수혈식노지, 이중구연에 단사선, 구순각목문 등이 출토되는 청동기 전기의 이른 시기이고 Ⅲ 단계는 말각(장)방형과 원형의 주거지, 지석묘를 축조한 집단으로 단사선문, 단사선문+구순각목, 구순각목이 출토되는 청동기 중기로 볼 수 있다.

2. 지석묘

지석묘는 상석과 그 아래 매장 주체부인 하부구조로 이루어지며 하부구조는 지석, 적석, 개석,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⁷⁾ 진라리유적의 지석묘는 상석과 부석 그리고 매장주체부로 구성되어 축조되었다. 유적의 남쪽 부분에서 상석 2기와 그 아래 하부구조에서 혼축형의 석곽묘 3기가 확인되어 지석묘 1호, 2호, 3호로 하였다. 지석묘 4호는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여건상 하상침식이나 경작으로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주변에서 상석만 확인되었다. 상석4호는 지석묘 1~3호와 약 12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지석묘 5호는 지석묘 4호와 북쪽으로 약 8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주변으로 상석만 4기나 확인되어 이중 하나가 지석묘 5호의 상석으로 추정되어진다. 5호묘 주변으로 지석묘의 상석으로 보이는 거석 4기가 확인되었다. 상석1호는 지석묘 5호에서 북동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하도에 걸쳐져 확인되었고 상석3호와 4호는 지석묘 5호와 4m 떨어져 구덩이 안에서 확인하였다.

진라리유적의 지석묘 1호, 2호의 상석은 모두 부석시설 위에 놓여져 있었고 나머지 상석들은 하상침식과 후대 교란으로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부석은 매장주체부의 위와 주변으로 크고 작은 할석과 역석을 놓은 다음 가장자리는 비교적 큰 할석을 정연하게 놓아 매장주체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묘역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부구조는 모두 수혈식의 석곽형이고 규모는 신전장이 충분히 가능한 길이이며 개석은 2~3단 정도 덮여 있었다. 유물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지석묘 4호는 동쪽이고 1호와 3호 역시 동쪽이나 2호는 서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라리 유적의 지석묘는 지석이 없는 개석식 지석묘로 상석 주위로 판상석이나 할석을 놓아 묘역을 조성하고 매장주체부는 부석보다 지하에 축조하였다.

〈표 1〉 지석묘 일람표

호수	상석				하부구조							출토유물		
	형태	규모(cm)			무게(t)	개석	유형	주축방향	규모(cm)				벽면축조	바닥석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깊이			
1	입체석	180	140	118	8	2단	석곽형	N-71°-W	155	65	70	중·횡평적 혼용	할석,역석	석검1
2	편평석	230	127	50	3	3단	석곽형	N-54°-W	215	50	65	중·횡평적 혼용	판석,역석	홍도1,식옥1
3	·	·	·	·	·	·	석곽형	N-58°-W	215	70	40	종평적	판석,역석	홍도1,석검1 석촉10
4	·	·	·	·	·	2단	석곽형	N-76°-W	235	57	60	입수적,외수적	역석	석검1,석촉1 석착1
5	·	·	·	·	·	·	석곽형	N-80°-W	(87)	72	15	종평적	판석,역석	·

7) 李榮文,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표 2〉 상석 일람표

호수	형태	규모(cm)			석질	개석	유형	주축방향	규모(cm)			벽면축조	바닥석	출토유물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깊이			
1	편평석	215	145	65	안산암
2	입체석	177	146	90	안산암
3	입체석	150	90	140
4

3. 고상식건물지

고상식건물지는 모두 4동이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세장방형이고, 규모 및 장축방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즉 1호는 4×1칸으로 면적이 14.8㎡이고, 2호는 11×2칸이고, 면적은 28.8㎡, 3호는 9×1칸이고 면적은 25.9㎡, 4호는 (5×2)칸이고 면적은 (29.0)㎡로 확인되었다.

진라리유적에서 고상식건물지는 수혈식과 지상식으로 나뉘며 수혈식은 지면을 파고 설치되었고 고상식은 지면을 파지 않고 건물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거나 같게 형성한 것으로 상면을 지면에 마련한 지면식과 지상에 마련한 고상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주혈의 흔으로만 지상식과 고상식의 구분이 어려우나 기둥간격과 굽기 노의 흔적으로 추정가능하다고 하여⁸⁾ 기둥 직경이 넓고 주간거리가 일정하여 간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고상식으로 판단하였다.

진라리유적의 고상식건물지는 수혈주거지의 분포지역 내에 위치하며 1, 2호는 원형주거지 5호 부근에 3호는 방형 주거지 72호 부근에 4호는 방형 주거지 11, 12호 부근에 중복되어 있다. 즉 2~4호의 주변에는 세장방형 주거지가 1호의 주변에는 장방형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혈주거지와 중복양상을 통해 고상식건물지 2호는 주거지 5호에 의해 파괴되었고 고상식건물지 3호가 주거지 72호를 파괴하고 있지만 모든 방형 건물지가 선행하는 것은 아니고 방형 주거지 11호의 경우 배치양상이나 출토유물로 보아 세장방형 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상식건물지 4호는 주거지 11호와 12호와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고상식건물 2~4호는 세장방형의 주거지와 고상식건물 1호는 장방형 주거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모두 23기가 확인 조사되었으며 그 외 야외노지 5기,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유구는 유적 내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 성격을 보이고 또 다른 유구와 서로 중복도 보여

8) 武末純一, 1991, 「九州의 堀立柱建物 I」 『生時代の 堀立柱建物』.

이런 다양한 모습이 주거지의 부속시설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내부시설에 따라 5종류로 분류하였다. I式(6기)은 수혈 내부의 원형 또는 타원형 수혈에서 목탄, 석기, 석재들이 출토되어 작업공으로 보고 공방형주거지로 판단하였고 주거지와 관계에서는 말각(장)방형·타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인다. II式(7기)은 수혈 내부의 원형 또는 타원형 수혈에서 불과 관련된 행위가 확인됨에 주거지와 관계에서는 노지가 없는 주거지의 부속 시설로 여겨진다. III式(1기)은 확인된 시설로 보아 증기로 무언가를 익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IV式(1기)은 매장 유구로 보이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V式(2기)은 제의적 성격의 수혈이다.

IV. 調查成果 및 意義

1. 청도 진라리유적은 청도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선사시대 대규모의 마을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와 청동기시대 수혈 주거지 93동, 고상식건물지 4동, 지석묘 5기, 지석묘 상석4기, 수혈유구 22기 야외노지 5기, 구상유구 3기 총 137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토기류 281점, 석기류 232점, 기타 13점 등 총 526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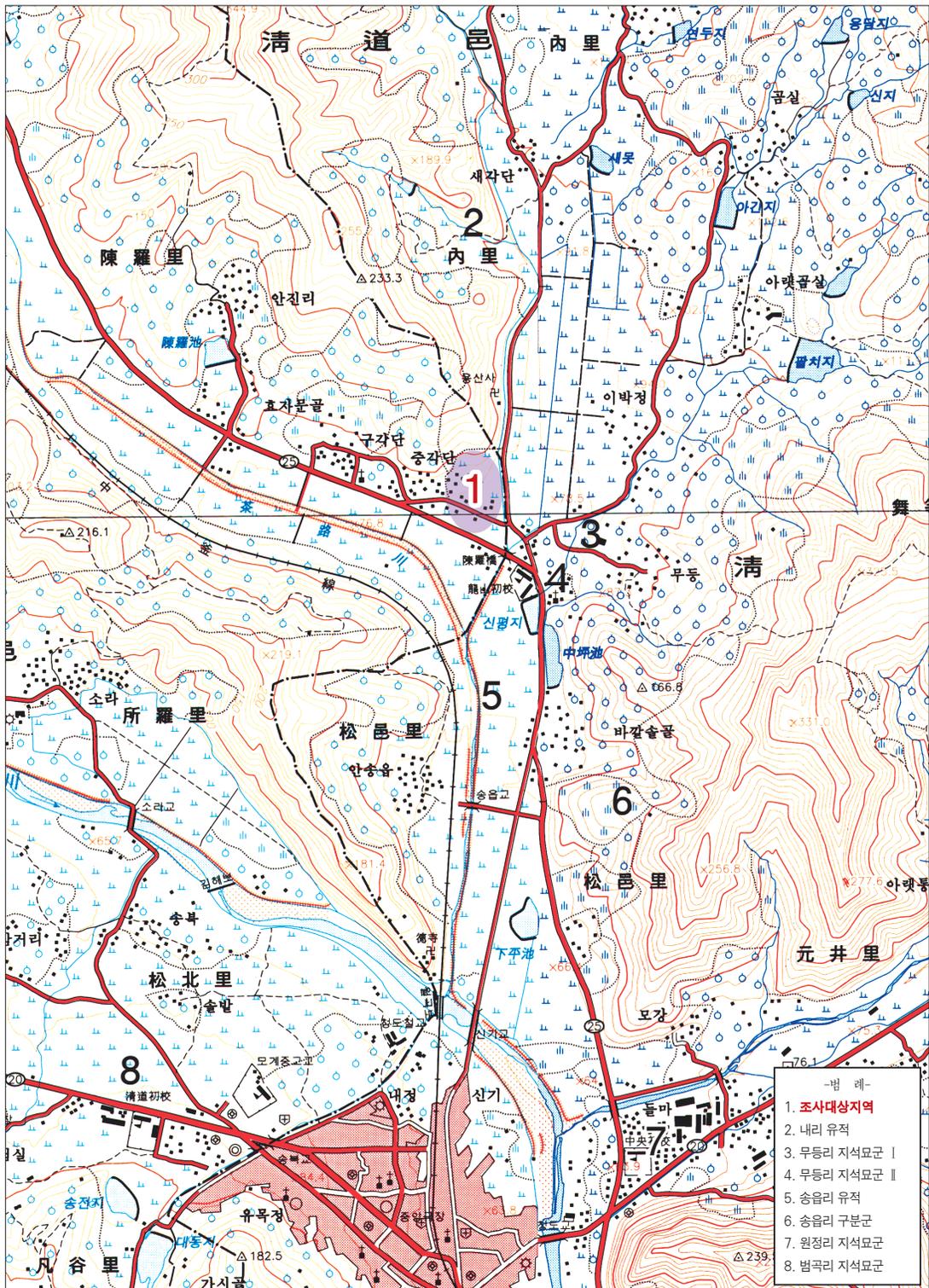
2.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유형을 크게 나누면 대개 구릉성유형과 저지성유형으로 나누며 구릉성유형은 산지성과 평지성으로 세분되는데 진라리유적은 구릉의 말단부에 입지하는 산지성 구릉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진라리유적의 주거지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말각(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는 청동기 중기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형 주거지이며, 장방형계의 주거지는 이보다 전단계의 주거지로 출토유물은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구순각목공열·이중구연단사선문 등의 무문토기와 삼각만입석축, 석부(합인·편인), 장방형석도, 발화추, 고석, 원판형석기, 방추차가 장방형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공열문 등의 무문토기와 단도마연토기, 석부(합인·주상편인), 장방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말각(장)방형과 원형주거지에서는 발형·호형 등의 무문토기와 석축, 석부, 석구, 부리형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거지의 규모, 평면형태, 유구의 중복과 유물에 따른 취락의 구조적 변화가 잘 보여 주변 다른 유적과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문화의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본다.

3. 경북 청도지역은 진라리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청도천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가 처음으로 발굴조사되었다. 진라리유적에서의 지석묘조사를 통해 상부구조인 상석과 부석의 묘역시설 그리고 매장주체부인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묘제로의 구조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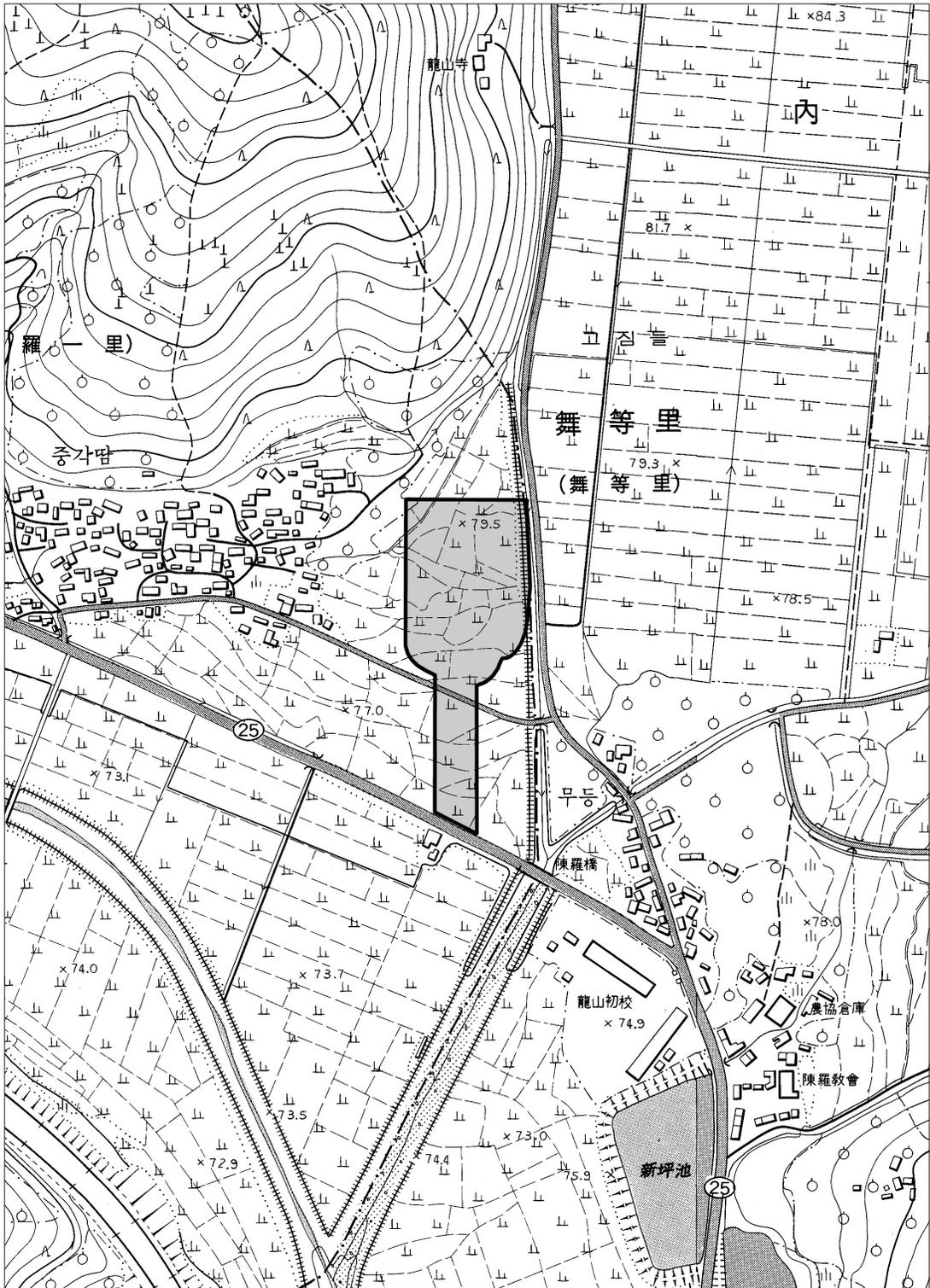
그리고, 진라리지석묘군은 주변으로 대규모 지석묘군인 범곡리지석묘를 비롯한 합천리, 원정리, 무등리지석묘군 등 많은 지석묘유적이 분포하며 인접한 범곡리지석묘군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대형의 마제석검을 비롯한 단도마연토기, 석축, 식옥 등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4. 조사결과 진라리유적은 주거지의 규모와 평면형태, 분포양상, 중복관계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지식묘는 구조와 출토유물, 주거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선 송국리형 단계의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을 전후한 묘제로 판단된다. 앞으로 유적 내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지식묘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공반관계 등을 고려한 상세한 편년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시기의 다양한 유구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5. 주변의 자연지형을 고려한 취락과 이에 공반되어 축조된 지식묘는 주거구역과 매장구역이 어느 정도 구분된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들어선 이 시기에 경작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나 제한된 범위에서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유적의 서쪽으로 지식묘를 포함한 유구들이 확인되어, 현재 확인된 유구들이 당시의 마을전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작지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보아 청도 진라리유적은 취락공동체의 성장과 변화과정을 보여 주는 유적으로 청도지역은 일찍이 청동기인들의 중요한 생활무대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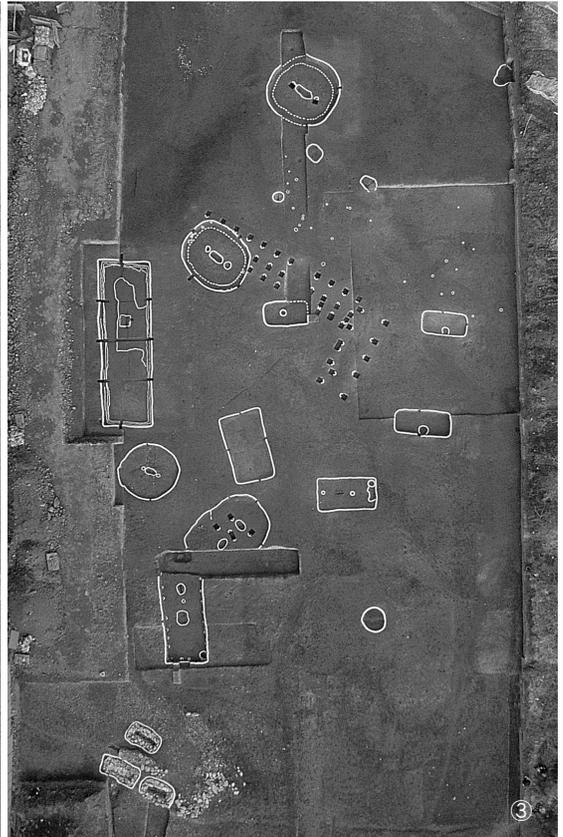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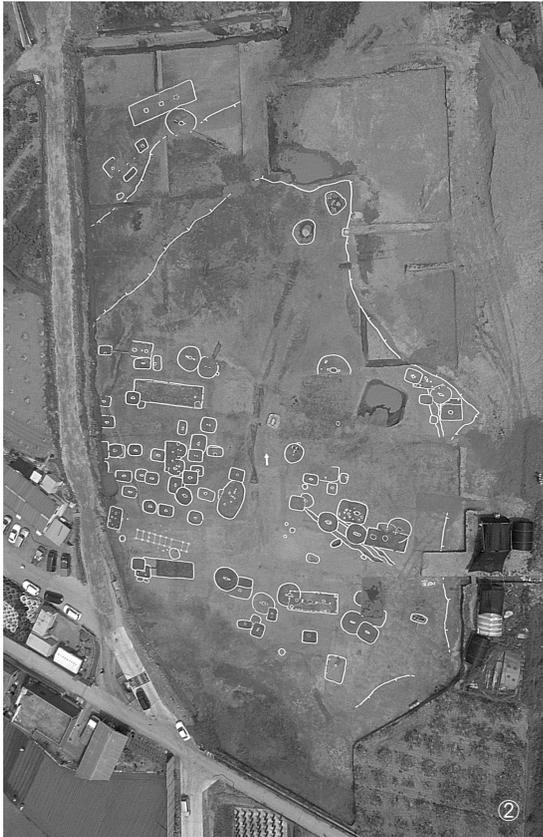
〈도면 1〉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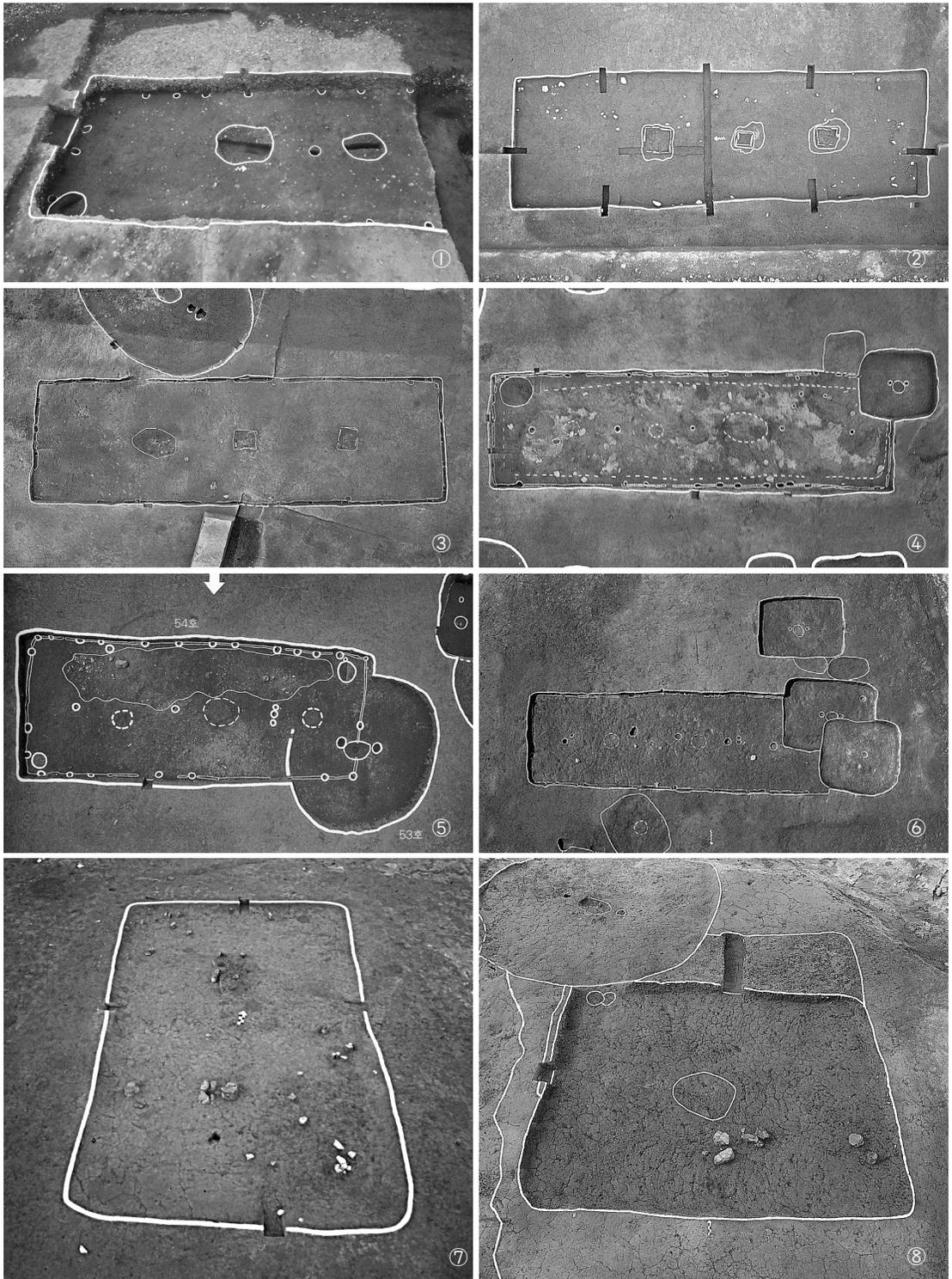
〈도면 2〉 유적의 지형도 및 발굴범위도(S=1: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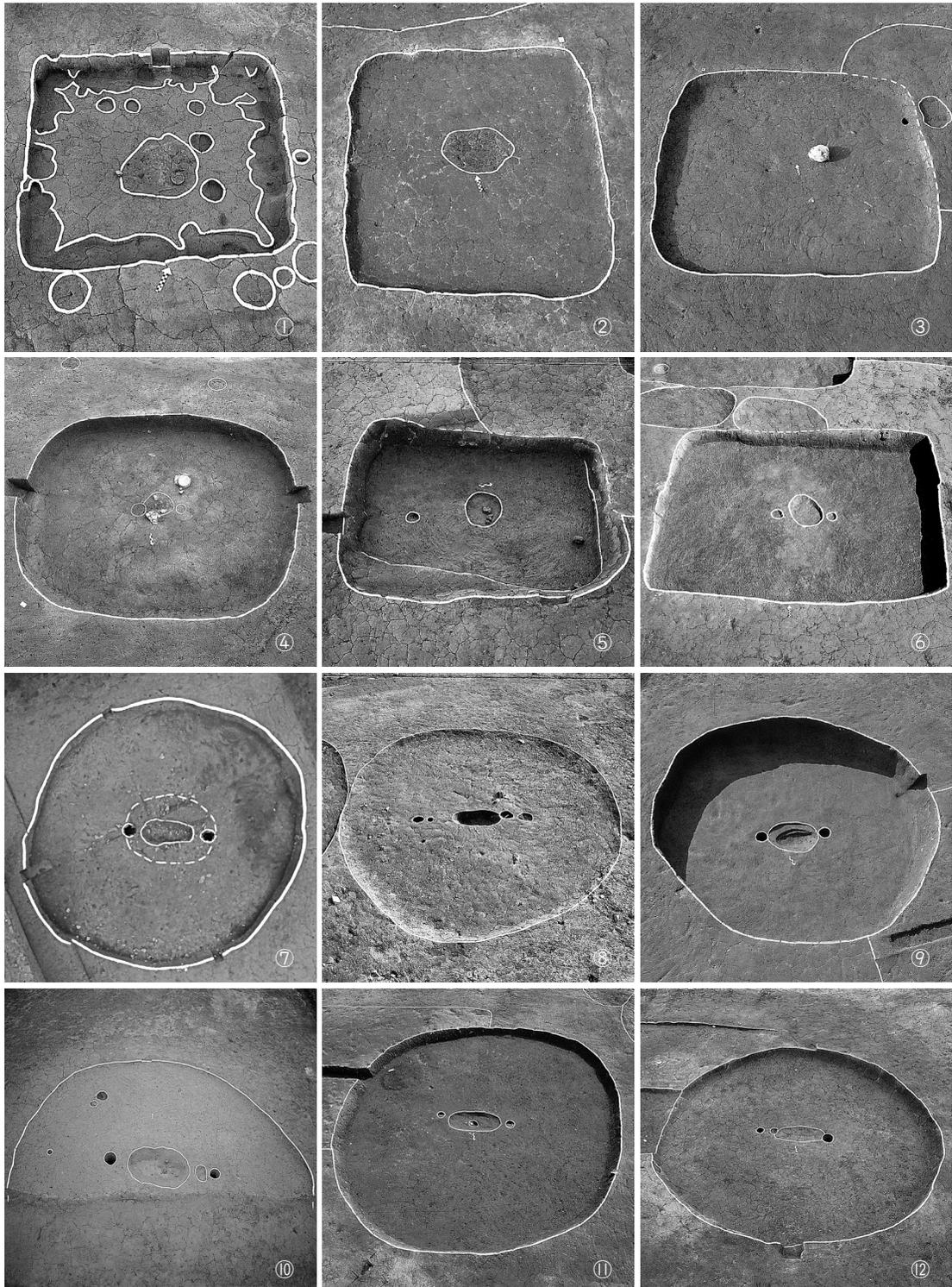
〈도면 3〉 유구배치도



〈사진 1〉 유적 전경(①유적 전경, ②B구역, ③A구역)



〈사진 2〉 주거지 전경(①3호, ②8호, ③10호, ④19호, ⑤54호, ⑥71호, ⑦4호, ⑧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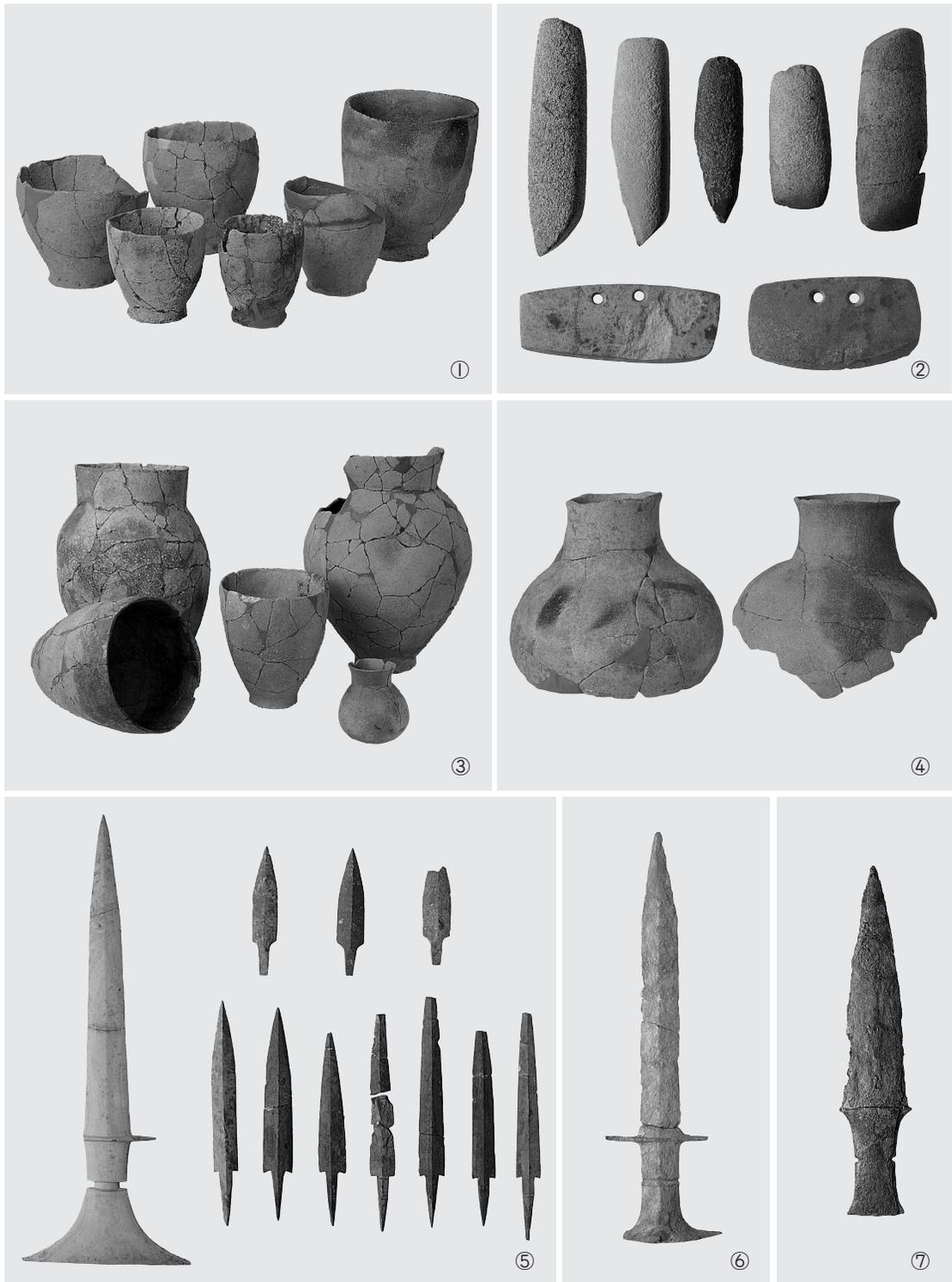


〈사진 3〉 주거지 전경

(①11호, ②45호, ③47호, ④18호, ⑤79호, ⑥93호, ⑦1호, ⑧14호, ⑨38호, ⑩40호, ⑪53호, ⑫76호)



〈사진 4〉 지석묘 상석 전경(①) 및 지석묘 상석 제거후 매장주체부(②)



〈사진 5〉 주거지 출토유물(①~③) 및 지석묘 출토유물(④~⑦)

清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

河眞鎬(영남문화재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1. 개별주거
II. 취락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2. 주거군
III. 분기설정	V. 취락의 구조 및 변천
IV. 개별주거와 주거군	VI.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생활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는 衣·食·住와 관계되는 일련의 행위·현상을 말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뿐 아니라 선사시대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주의 연구는 고대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경우 고고학자료 남아있는 것은 住와 관계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고 衣와 食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는 자료가 빈약하여 연구의 진척이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주거지의 연구 나아가 취락의 연구는 선사고고학의 핵심이라 하겠다.

聚落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세운 건조물이며, 인류의 공동생활 단위인 가족의 모임을 총칭하는데(고고학적으로 주거지라는 살림유구의 집합체) 여기에는 가옥뿐 아니라 이에 부속하는 토지, 수로, 공지, 기타의 주거에 수반되는 제 요소를 포함한다”¹⁾ 고고학적으로는 개별주거지 뿐 아니라 주변의 경작지, 도로망, 행위공간, 패총, 분묘, 요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락구성의 제 요소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유적은 확인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부분적이고 한정된 범위의 발굴조사를 통해 개별주거지 및 무덤 등의 조사에 국한되어 청동기시대의 연구도 유물 및 주거지 구조학²⁾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

1) 洪慶姬, 1983, 『都市地理學』, 法文社.

2)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靑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朴榮九, 2000, 『嶺東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載昊, 2000, 『蔚山型 住居址의 構造와 分布圈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趙賢庭, 2001, 『蔚山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朴姿延, 2002, 『靑銅器時代 住居址 內의 遺物分析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高旻廷, 2003, 『南江地域 無文土器文化的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賢植, 2006, 『蔚山式 住居址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근 대규모 국토개발에 힘입어 취락의 전부 또는 일단을 알 수 있는 유적이 점차 밝혀지게 됨으로서 이제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본격적인 취락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구 개별에 대한 구조론에서 취락단위의 구조론으로 연구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취락단위의 연구를 통해 취락간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것이 취락고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취락단위의 구조론³⁾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번의 발표 또한 이러한 취락구조론의 연구경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속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⁴⁾ 지속적으로 거주한 진라리유적의 시기별 취락의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취락구성의 최소단위인 개별주거지에 대한 분석과 몇 개의 주거지로 구성된 주거군, 주거군으로 구성된 단위취락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시기별로 개별주거, 주거군, 단위취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장래 지역단위로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진라리유적의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은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원보고자의 분석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자한다⁵⁾. 다만 분류나 해석에 있어 차이점을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대상지와 남쪽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한 청도 송읍리유적⁶⁾의 취락 또한 진라리유적과 관련이 높음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⁷⁾.

Ⅱ. 취락 구성 요소에 대한 검토

1. 주거지

주거지의 분류는 평면 형태에 따라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말각방형, 말각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주거지의 면적과 내부시설을 고려해 분류하면 세장방형주거지는 장단비 1:2.5이상으로 면적은 45m²-77m²의 대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장방형주거지는 장단비 1:2이하이며 면적은 15m²-32m²의 중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장단비만 본다면 中央土坑이 있는 일부 주거지도 장방형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 면적이 10m²이하이므로 이들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에서 제외한다. 방형주거지는 3.0m²-12.2m²이내에 포함되며 내부시설과(노지) 벽면처리 방식

3) 安在皓, 2001, 「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 構造의 轉移」, 『嶺南考古學』29, 嶺南考古學會.

宋滿榮, 2001, 「南漢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韓國農耕文化의 形成』韓國考古學會.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의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43, 韓國上古史學會.

宮里修, 2005, 「無文土器時代의 聚落構成-中西部地域의 驛三洞類型」, 『韓國考古學報』56, 韓國考古學會.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하여는 역시 점토대토기단계에 철기가 등장함으로 이 시기를 초기철기시대라 부르고한다. 기존의 무문토기시대 중기를 후기로 편년하는 안재호(2006)의 시대구분에 따르기로 한다.

5) 朴達錫, 2005, 「考察」『淸道 陳羅里 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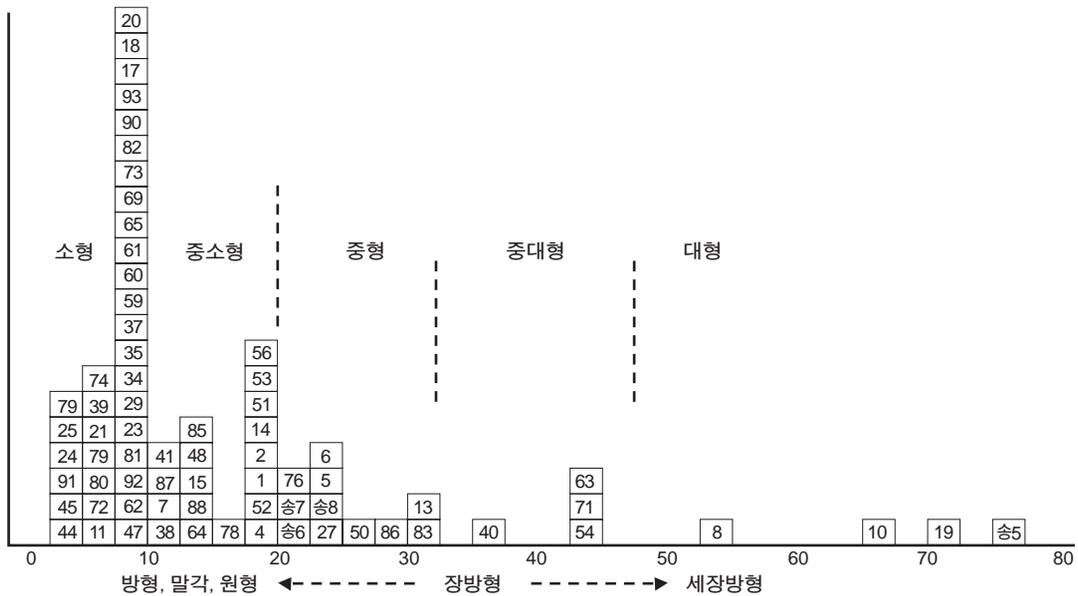
6)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대구-부산간고속도로건설구간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淸道松邑里遺蹟』.

7) 송읍리주거지는 이하 본문내용에서 송0호라 칭하며 도수분포상에서 진하게 된 것이 송읍리주거지이다.

에 따라 방형(3.0㎡-10㎡)과 말각(장)방형(5.0㎡-12㎡)으로 구분된다. 원형주거지는 면적이 10㎡-37㎡내에 포함되는 주거지이다.

개별주거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세장방형주거지는(송5호, 8호, 10호, 19호, 54호, 71호) 조사대상지역 전역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이 동-서인 것이 다수이며 남-북으로 배치된 것이 2동 있다. 주축방향이 다른 유구들 간의 공간분할이 엇보인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주구, 주혈, 저장혈이 있다. 노지는 圍石式爐址와 토광형의 竪穴式爐址⁸⁾가 있는데 2개 이상의 복수의 노지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노지의 구조에 있어서는 圍石式爐址만 갖춘 것, 竪穴式爐址만 갖춘 것, 圍石式과 竪穴式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것 등 다양한 노지구성을 하고 있다. 벽주구는 확인



〈도면 1〉 진라리유적 주거지 면적 도수 분포도

된 유구에서 살펴볼 때, 폭이 좁고 얇아 벽체시설과 관련된 상부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다⁹⁾. 주공의 배치방식은 양 가장자리를 따라 정연하게 배치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8호나 10호를 제외한 세장방형의 주거지에는 노지와 일직선상으로 중심주공이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저장공은 1개-2개가 주거지 단벽 측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다. 바닥은 불다짐한 것이 있다.

장방형주거지는 노지의 형태와 수에 따라 2종류로 구분된다. 圍石式爐址를 갖추거나 복수의

8) 수혈식노지를 무시설식 노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노지 자체가 시설을 갖춘 것이므로, 수혈식 또는 지상식 등으로 부르고자 한다.

9) 벽주구는 전기의 유적에서는 벽체시설을 위한 피흙의 기능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며 전기말 또는 후기에 이르면 울산·경주·포항지역에서는 전형적인 배수의 기능으로 발전한다고 판단된다.

노지를 가지고 있는 것(송6호, 송7호, 송8호, 86호)과 단수의 竪穴式爐址만 갖추거나 없는 것(4호, 7호, 27호, 50호, 52호, 64호, 83호, 88호, 89호)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의 경우 전자의 장방형주거지는 평면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세장방형과 동일하다. 후자의 경우 전자의 86호장방형주거지와 중복되어 있어 시기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지, 주혈, 저장혈, 바닥시설 등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圍石式爐址의 완전소멸, 편향된 단수의 노지, 저장혈은 일부 주거지에만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 주공은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잔존한다.

방형주거지(11호, 44호, 45호, 47호, 62호, 72호, 79호, 80호, 81호, 91호)는 10㎡이하의 소형주거지이며 내부에 노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없는 것이 있다. 그 외 별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방형주거지는 다수의 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고상식건물지, 말각방형주거지, 원형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다. 중복관계로 보면 원형주거지와 말각장방형주거지 보다 선축되어 있다.

말각방형주거지(17호, 18호, 20호, 21호, 23호, 24호, 25호, 29호, 34호, 35호, 37호, 39호, 59호, 60호, 61호, 65호, 73호, 74호, 79호, 82호, 90호, 93호)는 조사구역의 서편에 집중되어 있고, 동 형식의 주거지간에도 복잡한 중복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기의 주거지와 차이점은 소결되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노지가 보이지 않는 대신 방형주거지의 가운데에 土坑이 설치되어 있고 中央土坑 주위 2주공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中央土坑 좌우에 만들어진 주공의 배치방식에 따라 세분할 수 있겠지만 취락단위의 연구에 큰 의미가 없어 생략한다. 또한 평면형태에 따라 말각장방형과 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 형식이 비슷한 기수로 분포한다. 다만, 말각장방형주거지 내의 中央土坑이 대부분 원형이며 말각방형의 경우 타원형이 많다.

원형주거지는(1호, 2호, 5호, 6호, 13호, 14호, 15호, 38호, 40호, 41호, 48호, 51호, 53호, 56호, 76호, 85호, 87호) 조사구역의 동편을 中心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선축된 말각방형주거지와 일정한 공간분할을 이루고 배치되어 있다. 평면형태를 제외한다면 말각방형주거지의 내부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중앙토갱의 형태가 원형은 1기도 없고 모두 횡타원형으로 변해있다.

2. 고상건물지

총 4동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측면1칸의 세장형 형태이지만 고상건물지 2호는 측면2칸의 구조를 하고 있다. 조사구역내 3개지역내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고상식건물지간의 간격은 70m내외로 동일한 양상이 관측된다. 중복관계를 보면, 원형주거지에 의해 중복된 것(고상2호), 방형주거지를 중복시킨 것(고상3호)이 있어 원형주거지 단계 이전 시기 주거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고상건물지의 경우 창고, 작업소옥, 주거 또는 수장거택, 공동작업장, 제사공간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자는 중소형의 고상건물지 후자는 대형에 해당한다. 면적을 본다면¹¹⁾ 진라리유적의 고상건물지는 전자의 성격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10) 보고서에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면적이나 분포양상으로 보아 고상1호는 장방형주거지, 고상2-4호는 세장방형주거지와 관련된 공공의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11) 裴德煥, 「청동기시대 영남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3. 수혈유구

조사구역내에서 23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 장방형, 원형, 타원형, 방형의 세 형태로 조사되었다. 내부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수혈을 갖추기도 하고, 불에 의해 소결된 부분이 있는 것, 목탄이나 소토가 남아 있는 것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일부는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고, 규모나 내부출토유물 등을 볼 때(모루돌, 지석 등) 작업장의 성격, 목탄이 소결된 바닥 등은 요지일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수혈유구는 유적전체에 고른 분포양상을 보이며, 일부 중복된 양상도 확인된다. 보고서에는 진라리1기부터 4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야외노지

조사구역내에서 5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원형 또는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수혈내부에 목탄이나 소토가 채워져 있다. 방형주거지와 중복되어 있고 배치상을 통해 볼 때 원형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5. 지석묘

조사구역내 5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의 가장 남쪽에 3기가(지석묘1·2·3호)가 군으로 구성되어있고 북동쪽에 지석묘4호 및 지석묘5호가 단독으로 독립되어 분포하고 있다. 지석묘 5호의 경우 주변에 후대 매몰된 상석이 4기 확인됨으로 원래는 3-4기의 지석묘가 군집된 상태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묘는 모두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는 석곽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조사구역 서편 외곽에 위치하는 진라리지석묘Ⅲ에서도 2기의 지석묘가 확인됨으로 진라리유적과 관련 있는 지석묘는 그 분포와 배치상으로 볼 때 주거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외곽 또는 주거군사이의 공지에 단독 또는 3-4기씩 단위가 되어 분산 배치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출토유물이나 배치상을 통해 볼 때 조사구역내 송국리형주거지인 말각방형주거지 또는 원형주거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¹²⁾.

Ⅲ. 진라리 유적의 분기 설정

초기 연구에 의하면¹³⁾ 주거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형식, 탄소연대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진라리유적을 편년하였다. 본 글에서도 이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단계는 1기의 유구만 존재함

12)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지석묘와 관련된 집단을 말각방형주거지집단으로 파악하고, 피장자는 말각방형 주거지집단의 일반구성원이 아닌 이들의 규범을 통제하는 특정개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13) 朴達錫, 2005, 「考察」『清道 陳羅里 遺蹟』嶺南文化財研究院.

으로 분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단계와 3단계를 세분하여 각각의 단계로 설정한다. 이는 취락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분된 편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동시성의 최대한 확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다시 방형으로 변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분명한 사실로 인정 된다¹⁴⁾. 진라리유적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주거지간의 중복관계를 본다면 세장방형→장방형→말각(장)방형→(타)원형의 순서가 확인된다. 그러나 송읍리유적의 장방형주거지 출토유물¹⁵⁾은 세장방형 주거지 출토유물과 별반 차이가 없어 두 형식이 공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형의 주거지는 면적에 있어서는 말각방형주거지와 동일하여 말각방형주거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몇몇 유구에서는 세장방형주거지 시기의 유물이 확인됨으로, 시기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하자면 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를 A류, 장방형주거지는 중형이면서 복수의 노지(수혈식)를 갖추거나 위석식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B1류, 중소형이면서 단수의 노지(수혈식)를 갖추거나 노지가 없는 것 B2류, 방형(소형)의 주거지 C류, 말각방형의 주거지를 D류, 원형주거지를 E류 라 한다.

1기는 대형 또는 중대형주거지로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주거지내부시설은 복수의 노지를 갖추고 있고 중심주공과 복수의 저장공이 있다. 유물은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 등 복합문양이 시문된다. 2기는 중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내부시설은 단수의 노지와 저장공이 있으며 중심주공이 남아있다.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이중구연이 소멸된다. 3기는 중앙토갱의 2주공을 갖춘 말각방형주거지가 중심이 되고 주거지의 규모는 소형화가 된다. 4기는 중앙토갱의 2주공을 갖춘 원형의 주거지가 출현한다.

이 를 출토유물과 주거지구조의 변화를 통해 아래의 표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한다.

	1기	2기	3기	4기
주거형태	세장방형(A류)장방형(B1류)방형(C류)	장방형(B2류)	말각방형(D류), 방형(C류)	원형주거지(E류)
주거규모	대형주거지 중대형주거지	중소형주거지	중대형주거지(?) 소형주거지	중대형주거지 중소형주거지
내부시설	복수의 노지:위석식, 수혈식 단수의 노지:위석식	단수의 수혈식노지	수혈식노지 중앙토갱+외2주식 (원형, 타원형)	중앙토갱+외2주식 (횡타원형)
출토유물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단사선문+공열문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합인석부, 편인석부, 장방형석도, 무경식석축, 이단병식석검	이중구연 소멸 구순각목+공열문 편인석부	구순각목+단사선문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주상편인석부, 부리형석기 유경식석축	구순각목, 부리형석기, 파수부발

14) 金在弘, 1995, 『淸堂洞Ⅱ』, 國立中央博物館.

15) 장방형인 송6호, 7호, 8호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 등이 확인된다.

해당유구	송5호, 8호, 10호, 19호, 54호, 71호, 송6호, 송7호, 송8호, 86호	4호, 7호, 27호, 50호, 52호, 64호, 83호, 88호, 89호	17호, 18호, 20호, 21호, 23호, 24호, 25호, 29호, 34호, 35호, 37호, 39호, 59호, 60호, 61호, 65호, 73호, 74호, 79호, 82호, 90호, 93호	1호, 2호, 5호, 6호, 13호, 14호, 15호, 38호, 40호, 41호, 48호, 51호, 53호, 56호, 76호, 85호, 87호
비 고	전기후반	전기말	후기전반	후기후반
	혼암리단계		선송국리단계	송국리단계

〈표 1〉 진라리유적의 편년

Ⅳ. 개별주거지와 주거군

1. 개별주거지

분석대상으로 삼는 속성은 평면형태, 면적, 내부시설 중 노지, 기둥 배치, 기타 시설 등이 된다. 평면형태는 전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평면형태의 보편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1期の 세장방형·장방형, 2期の 장방형, 3期の 말각(장)방형, 4期の 원형으로 순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방형계열의 평면 형태는 3기까지 지속되나 4기에 이르면 원형으로 바뀌는 등 주거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주거지의 면적은 세장방형이 45㎡~75㎡로서 대형에 속하며, 장방형은 20㎡를 기점으로 중형과 중소형으로 나누어진다. 방형주거지는 10㎡이하로 소형이며, 원형주거지는 20㎡를 기점중소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시기가 내려갈수록 주거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期에는 다수의 대형주거지인 세장방형과 중형의 장방형이 공존하며 2期에 이르면 대형의 주거지는 보이지 않고 중형 또는 중소형의 주거지만 확인된다.

3期の 말각방형주거지는 도수분포 상에서 5-10㎡내에 결집되는 양상으로 (특히 7.5㎡가 중심) 주거지의 규격화, 규범화가 이루어진 듯하다. 4期の 원형주거지 단계에서는 주거지의 면적이 20㎡를 기점을 중형과 중소형으로 구분되며, 30㎡이상의 중대형 주거지도 2기가 존재하나 대다수의 주거지는 20㎡이하의 중소형 주거지이다.

주거지 내부시설중 노지의 경우 대형의 주거지내에는 3기의 노지가 설치되는 것이 많고 중형주거지에는 1개 또는 2개가 설치된다.

1期の 노지는 圍石式爐址와 竪穴式爐址가 공존한다. 노지 형태에 따른 시기 차는 진라리유적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¹⁶⁾ 이는 최근 대구지역의 조사 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¹⁷⁾ 노지의

16) 진라리유적의 분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송읍리유적의 경우 수혈식노지를 갖추고 있는 6호주거지가 위석식노지를 갖추고 있는 7호보다 선축되어있다.

배치는 주거지의 장축선을 따라 중앙에 일렬로 배치되고 있으며 노지를 축으로 중앙부 양 옆에 중심주공이 배치된다. 2기가 되면 복수의 노지가 단수의 竪穴式爐址로만 존재하며, 圍石式爐址는 완전 소멸한다. 중심주공은 아직까지 다수의 유구에 남아 있다.(7호, 27호, 64호, 83호, 89호)

3기가 되면 육안으로 인정될 만한 노지는 확인되지 않고, 대신 中央土坑과 좌우 2주식의 중심주혈이 만들어져 있다. 中央土坑의 형태는 원형이 압도적이며 부정형 타원형이 일부에만 존재한다. 중앙토갱의 평균면적은 1.19㎡, 깊이는 3.5cm내외로서 얇은 수혈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시기의 수혈식노지와 비슷하다. 中央土坑의 용도에 대하여는 석기제작과 관련이 있는 작업용 수혈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¹⁷⁾

기본적으로 炊事, 暖房, 照明 등과 관련하여 노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진라리유적의 말각방형의 주거지 중 中央土坑을 노지로 사용한 것(61호), 中央土坑 내부 및 주변에 목탄이 확인된 주거지가 10여동이 있다. 대구지역의 동천동유적과 서변동유적에서도 中央土坑 내부와 주변에 목탄이나 소토 흔이 확인되는 주거지의 수가 많다.¹⁹⁾ 따라서 규모가 작고 깊이가 얇은(5cm 이내) 원형 또는 부정형의 中央土坑은 노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노지의 형태는 전시기와 다른 灰穴爐(灰床爐)²⁰⁾ 또는 목탄을 이용한 火鉢²¹⁾ 등이 예상된다. 대구 동천동유적의 송국리형주거지인 45호와 48호주거지의 中央土坑내에는 원형인 소형의 무문토기발 1점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원보고자는²²⁾ 의도적인 토기의 폐기라 파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노지와 관련된 유물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토갱은 전시기의 (장)방형의 주거지의 노지를 계승하였지만 시기 또는 지역적인 환경요인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中央土坑 외 2주의 중심주혈은 전시기의 장방형 주거지에 남아있던 중심수혈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싶다.

말각방형의 中央土坑 외 2주식 구조의 주거지는 4기가 되면 원형의 中央土坑 외 2주식으로 변화한다.

17) 전반적인 흐름은 위석식노지→수혈식노지의 순으로 파악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대구지역의 조사 예에서 보면 두 형식의 노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대구 수성초등학교부지내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嶺南大學校博物館, 2006, 『大邱 月城洞 1257遺蹟』.

嶺南大學校博物館, 2007, 『大邱 月城洞 585遺蹟』.

18) 다수의 유적에서 中央土坑 주변과 내부에서 지석, 미완성석기, 박편, 옥 등이 출토되는 현상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中央土坑을 가지는 있는 말각 또는 원형의 주거지의 경우 면적으로 본다면 주거지내 작업공간은 中央土坑 주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中央土坑 주변에 다수의 석기가 출토된다고 하여 작업공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19) 양유적에서 확인된 中央土坑의 형식은 진라리의 것과 극히 유사하다.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 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20) 大貫靜夫, 2001, 『韓國の 竪穴住居とその集落』, 日本文化班資料集3.

柴尾俊介, 2006, 「松菊里住居をめぐって」『研究紀要』第20號, 財團法人 北九州市藝術文化振興財團 埋藏文化財調査室.

21)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2) 유병록, 2002, 「考察」『大邱 東川洞 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전 시기에 비해 큰 차이점은 中央土坑의 평면 형태가 圓形에서 橫 圓形 일색으로 변모한다. 면적에서도 방형단계의 中央土坑 보다 3배 정도 커지며 깊이 또한 4배 이상 깊어져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태를 갖춘다.

저장공은 전기의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에서 다수 확인되어 주거지내 공간 분할에 유효한 속성으로 삼고 있다.²³⁾ 1期の (세)장방형주거지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이 저장공이 단벽 양 모서리에 2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배치상의 특징은 노지와 비교해서 대부분 노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期の 장방형주거지단계가 되면 일부 주거지에 1개의 저장공이 확인되며 배치방식은 전시기와 동일하다. 3期 이후는 저장공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내부시설의 흔적에 의해 주거지내 공간분할이 가능하다. 세장방형인 54호, 10호, 송5호, 8호, 19호의 경우 장축선상에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것으로 “관산리식주거지”²⁴⁾의 형태이다. 노지와 중심수혈을 경계로 분실이 가능하다. 대부분 3실로 분실되어 있다. 비대칭으로 배치된 노지에 의해 구분된 공간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1실에 저장공이 배치되어 있다. (송5, 54, 3호)

분실된 개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주거지가 송5호 세장방형주거지이다. 이 주거지의 유물 출토정황을 보면 규모가 가장 큰 1실에는 대형토기류와 저장공이 있고 2실에는 출토유물이 거의 없다. 3실에는 연석, 지석, 박편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1실은 공동거주하는 세대 중 家長의 거처로서 생산물의 소비와 저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3실은 석기제작과 같은 생산 활동의 중심이 된 공간이며 중앙의 2실은 휴면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1기에 해당하는 장방형 주거지인 송6, 송8, 송7호 주거지의 경우 노지와 중앙수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2개의 공간으로 분실된다. 이 역시 저장혈은 1실(면적인 넓은 곳) 또는 노지가 없는 곳에 분포한다.²⁵⁾

2期の 장방형주거지에는 대부분 노지가 1개만 설치되어 있어 분실이 이루어 졌다고 추측하기 어렵지만 주거지 내부 공간에서 노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구분은 있었다고 보아진다.²⁶⁾

3期이후의 주거지는 주거지 규모의 소형화 및 규격화로 진행되었으므로 내부공간은 中央土坑을 中心으로 하는 작업공간과 주변의 수면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거군

23) 이형원, 2007, 「호서지역 가락동유형의 취락구조와 성격」『湖西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학술대회.

24) 安在晧,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碩學 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25) 이러한 주거지에서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축방향으로 증축하여 송 5호주거지와 같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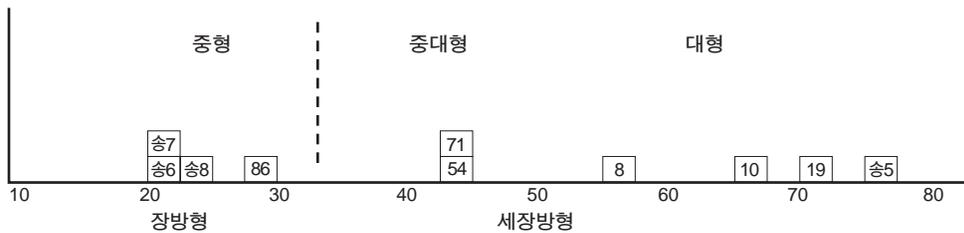
26) 주거지내 공간구조와 거주형태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분석이 김현식에 의해 이루어져 참고가 된다. 金賢植,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주거지를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 54. 韓國上古史學會.

주거군은 취락 내 개별주거지가 동시기에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군집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세대공동체의 의미를 내포한다. 개별단혼세대로만 이루어진 것을 핵가족체, 다수의(2-4단위)핵가족이 한 주거내 거주하는 것을 대가족체, 핵가족체간, 또는 핵가족체 및 2단위의 대가족체가 하나의 주거군으로 모여 있는 것을 세대공동체라 인식하고자 한다.²⁷⁾

진라리 청동기시대 마을은 소하천이 합류하는 협곡평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진다.

조사구역은 한정된 공간을 발굴하여 전체적인 취락의 분포범위 또는 주거군의 양상을 알 수 없다. 다만 조사된 범위 내에서 살펴보면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릉지에 근접한 북편지역을 가구역, 남쪽 도로를 경계로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는 공지를 中心으로 그 북편을 나구역 남편을 다구역이라 편의상 명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가구역에는 세장방향과 (타)원형, 방형주거지가 분포하며 나구역에는 세장방향, 장방향, 방형, 말각장방향, 원형 등 전기에서 후기에 걸치는 모든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다구역에는 말각방형의 주거지를 제외한 전형식이 확인되었다.



〈도면 2〉 진라리유적 1기의 주거지면적 도수분포도

진라리 1期の 취락은 3분실된 대형주거지 및 2분실 또는 3분실된 중형주거지가 2동 조합으로 배치된 양상을 보여 주는데 19호주거지(대형)와 16호주거지(중형), 86호주거지(중형)와 54호(중대형)는 병렬배치를 하고 있으며 3호주거지(중형)와 8호주거지는(대형)은 일렬 배치를 하고 있다.²⁸⁾ 그리고 동일권역의 송읍리 유적의 경우 송4호주거지(대형), 송6호·7호주거지(중형)는 병렬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단독으로 배치되어있는 것은 10호주거지와 71호주거지가 있다. 따라서 1期の 주거군은 단독주거지 또는 2동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군이 몇 개소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개별 주거지(3분실된 대가족체)간의 우열이나 주거군 간의 우열을 찾을 수 없다. 소형의 방형주거지(79호)는 1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사구역 외 진라리 1기의 취락은 2-3단위의 핵가족체로 구성된 대가족체, 세대공동체(대가족체, 핵가족체), 대형주거지(3분실된 대가족체)간의 우열이나 주거군 간의 우열을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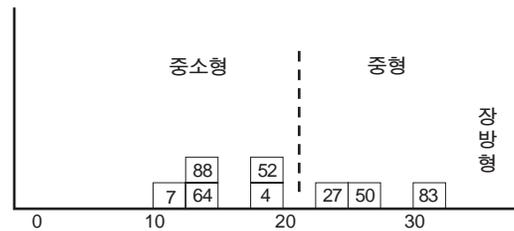
진라리 2期에는 중·소형의 장방향 주거지가 2-3동을 최소단위로 하는 주거군이 직교배열방식 또는 병렬배열 방식으로 배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나구역에 집중되고 다구역에는 2동이 한

27) 安在晔,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28) 이와 같은 배치는 구릉과 평지라는 입지의 차이는 있지만 전기의 가락동 유형에서 흔히 보이는 양상이다.

단위가 되어 분포한다. 조사구역내에서 확인된 개별주거중 대형은 존재하지 않고, 중형 또는 중소형의 주거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2기에 해당하는 중형주거지는 83호·50호·27호주거지가 해당하는데 이 들 주거지는 개별주거군내에 1기씩 포진되어 있다. 전 시기에 비해 주거지의 개체 수가 늘어나지만 압도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주거내에 1기의 노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전 시기에서 확인되는 중앙주혈과 저장공이 남아 있다. 개별주거지의 형태와 면적은 전시기의 3분실된 대형주거지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형주거지는 1실의 면적과 비슷하고, 중소형주거지는 2, 3실이 단독하고 설치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진라리 2기의 취락 내에서 특정주거군 또는 특정 주거지(대형주거지)는 보이지 않는다. 진라리 3기가 되면 7.5㎡내외의 규격화된 말각장방형 또는 말각방형의 주거지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분포상을 보면 조사구역내 나구역에만 확인되어 일정한 공간적 제약을 받는 듯하다. 나구역내 서편에 集住하며 동편으로 갈수록 분산 배치되어있다. 개별주거간 중복이 심하며 취락내 개별주거군을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



〈도면 3〉 진라리유적 2기의 주거지면적 도수분포도

주거군이 밀집되어 있는 서편지역의 소구역은 중복된 주거지까지 포함하면 29동이 축조되어 있다. 이 들 주거지가 동시에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일정한 시점에 모여 있는 취락의 양상을 주거지간의 거리와 중복을 감안해 추정해 본다면 20여동의 주거지 밀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集住하는 서편지역의 동편과 남편지역에는 2동이 세트가 되어 배치되는 양상이 보임으로 동편지역의 소구역내에도 2동의 주거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주거군이 일렬 또는 병렬로 군집 배치한다고 생각된다. 말각방형의 주거지가 축조되는 진라리 3기에는 개별주거지간의 우열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말각방형주거지가 集注하는 동편의 소구역과 서편의 분산 배치된 주거군 사이의 공지에 63호타원형주거지가 축조되어있는데 주목된다.

이 주거지는 면적이 44.8㎡로서 중대형에 속한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상면 중심축을 따라 수혈과 중심주혈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 구조상으로 말각장방형 또는 원형주거지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63호주거지를 말각방형주거지와 동시기로 추정한다면, 진라리 3기에는 중대형과 소형의 격차가 매우 심한 1동의 중대형주거지가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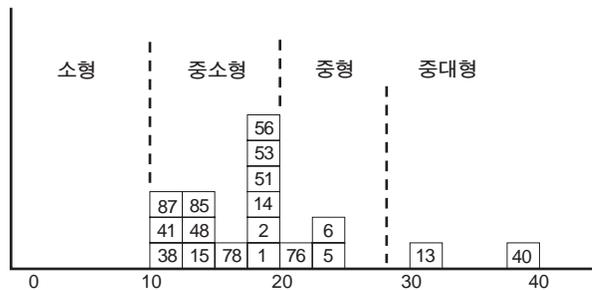
진라리 4기에는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등장한다.

조사구역 전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송읍리유적에서도 확인됨으로 가장 넓은 분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도수분포 상에서 보면 30㎡가 넘는 중대형의 13호주거지와 40호주거지 2동과 20㎡이상의 중형주거지, 10㎡이상의 중소형주거지로 구분되는데, 말각장방형주거지의 면적이 10㎡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원형주거지는 전시기에 비해 전체주거지의 면적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별주거지의 규모는 10-20㎡내외에 포함됨으로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의 규모는 규격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사구역내 몇 동의 주거지가 무리

를 이루며 분포하는 곳이 4개소 정도 확인된다. 각 주거군은 중형 또는 중소형의 주거지 4-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군 간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다. 나구역의 북편지역에는 중대형주거지인 13호주거지와 40호주거지 2동이 주거군내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반주거군과는 분리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 배치된 주거지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공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 가운데 지석묘가 배치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들 양 주거지가 원형주거지시기의 취락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라리 4期の 취락은 독립된 중대형주거지 1동과 중소형의 주거지 4-5동이 최소단위로 이루어진 주거군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된다. 진라리유적 4기의 주거지면적 도수분포도 단위취락이 모여서 형성된 광역취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면 4〉 진라리유적 3기의 주거지면적 도수분포도



〈도면 5〉 진라리유적 4기의 주거지면적 도수분포도

V. 취락 구조와 변천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는 중앙의 주거공간, 주변의 생산공간 및 분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²⁹⁾ 중심취락(거점취락)의 경우 직경300m 이내의 기본적인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논 등이 분포하고, 보다 외곽에 집단이 관여한 관념영역(환경체)이 있는데, 하나의 거점취락은 직경 5km정도의 범위 안에서 기능하였다고 한다.³⁰⁾ 남한지방 청동기시대에 있어서도 환호(구)를 동반한 중심취락이 확인되고 있어³¹⁾ 점차 취락간의 연구도 가능하게

29) 전기에는 주거공간만 확인된 예가 많고, 무덤과 결합하더라도 소수의 무덤과 결합이 된다. 후기가 되면 주거공간과 군집된 무덤공간이 결합하는 예가 많다.

30) 酒井龍一, 1982, 「畿内大社會の理論的様相」『龜井遺蹟』, (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

31) 청동기시대 전기이후의 중심취락은 대략 주거지의 개수가 30기이상인 되는 유적으로 울산검단리, 울산천상리, 부여송곡리, 보령관창리, 진주대평리, 대구동천동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되었다. 진라리유적에서는 3期 이후 주거역과 분묘구역이 일정한 공간을 구분하는 양상을 엿 볼 수 있다. 송읍리유적에서 확인된 경작지와 환호(구) 등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진라리 4期에는 주거영역-분묘영역-생산영역으로 구성된 중심취락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라리 1期는 장방형·세장방형의 주거지가 단독 또는 2동조합으로 분산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 복수의 노지에 의해 분실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거지가 저장공을 갖추고 있다. 대형주거지의 家長에 의해 주도되는 공동작업과 공동분배를 통한 단위가족체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락동 Ⅱ·Ⅲ유형의 취락구조³²⁾와 비슷하다 하겠다. 진라리 2期는 주거지의 규모가 작아지고 2-3동의 최소단위 주거군의 구분이 분명해 진다. 前시기의 대형인 개별 주거지(분실된 대가족체) 중심의 취락에서 중·소형의 개별주거지(핵가족체)가 몇 개씩 군집한 세대공동체를 중심으로 취락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1期에서 2期로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에³³⁾ 따른 점진적인 변화과정으로 파악된다. 주거지 구조의 변화는 한 주거지내에서 다수의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형식에서 단일세대로 분리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前시기의 (세)장방형계의 평면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지의 규모와 면적이 작아졌다. 대형세장방형의 1실(장방형의 평면에 노지가 편중된 것)이 단독으로 떨어져 나온 양상과 동일하다. 장축중심축에 만들어진 중앙주혈과 저장공은 일부 주거지에 남아있는 등 전시기의 전통적요소가 유지된다.

3·4期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되는 시기이다. 이시기 남한 청동기시대의 보편적 취락양상은 개별주거지의 면적이 축소되며 규격화가 심화되며 취락의 범위가 확정된다. 주거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특정주거와 일반가옥의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이는 신분질서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한다.³⁴⁾ 진라리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뚜렷이 확인된다.

3期에는 규격화된 면적을 지닌 말각장방형주거지가 前시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의 집중화가 이루어진다.

주거지면적을 통해 볼 때 1동의 주거지내에 2-4인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³⁵⁾ 부부 또는 미출가한 자녀가 기거하는 단독세대가 集住하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배치 상에서 관찰된 2동 세트로 이루어진 주거군은 혈연적인 관계로 파악된다. 그러나 취락 내 특정의 개별주거군이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간 중·소·대형의 구분이 없으며 서편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3기의 취락은 주거면적의 획일적 통제 및 취락 공간의 제한 등³⁶⁾이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32) 이형원, 2007, 「호서지역 가락동유형의 취락구조와 성격」『湖西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술대회.

宮里修, 2005, 「無文土器時代의 聚落構成」『韓國考古學報』56.

33) 사회전반에 노동력 수요의 증가 및 생산과 소비단위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34) 安在晔,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35) 주거지 1인당 점유면적은 5㎡ 또는 3㎡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소면적으로 생각되는 후자의 기준으로 거주인원을 추정하였다.

金正基, 1974, 「無文土器時代의 住居址」『考古學』3.

都出比呂志, 1975, 「家とムラ」『日本の生活的 母胎』, 日本生活文化史1.

36) 전체조사구역내 '나' 구역에서만 확인된다. 근접한 송읍리유적에서는 말각장방형주거지가 1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된다. 이는 조사구역내 63호 대형주거지의 거주자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시기에는 취락을 통제하는 강력한 유력개인이 등장했음을 추측 가능케 해준다.

송국리형주거지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세분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中央土坑을 가지는 것을 송국리형 주거지라 보면 될 것이다.³⁷⁾ 그렇다면 3期の 말각장방형주거지도 송국리형주거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된 말각장방형주거지는 세분하자면 중앙토갱 + 외 2주식의 구조로서 영남 지역의 동남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검단리식³⁸⁾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의 발생에 대하여 진라리유적을 통해 볼 때 자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전시기와 확연하게 차이나는 점은 노지가 사라지고 중앙토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앙토갱의 경우 그 용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노지의 기능을 제시한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³⁹⁾ 말각장방형주거지와 그 면적에 있어 대동소이한 방형주거지(C류)는 1기부터 3기까지 공존하였을 가능성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형주거지는 내부에 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 방형주거지의 노지가 말각방형의 중앙토갱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⁴⁰⁾ 중앙토갱 외 2주형은 구심구조의 건물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장방형주거지의 장축선 중심주형이 중심 2주공의 구심구조의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기남부-충청북부지역의 송국리주거지 형성과정에서 사회변화 및 주거지규모의 축소화와 함께 축조의 용이성이 가미되어 구심구조의 주거지가 축조하였다는 자체 발생설이 있어 참고 된다.⁴¹⁾

4期の 원형주거지는 前시기의 말각장방형의 주거지에 비해 개별면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거지가 20㎡이하의 중소형주거지로서 영남지역의 후기 주거지의 평균면적과 큰 차이는 없다. 3-4동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주거군은 조사구역내 4-5개의 군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소형주거지와 중형주거지가 결합되어 있으며, 중형주거지는 주거군내 1개씩 분포한다. 중대형주거지는 주거군내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 배치되는 것이 4期 취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조사지역내에서는 5기의 야외노지가 확인되었는데 분포상을 통해 보면 원형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야외노지는 개별주거군내에 1개씩 포진되어있거나 주거군 사이의 공지에 복

37) 李健茂, 1979, 「遺構 및 遺物에 대한 考察」『松菊里 I』, 國立中央博物館.

李健茂, 1992, 「松菊里型住居分類試論」『松菊里 I』, 國立中央博物館.

大貫靜夫, 2001, 「韓國의 竪穴住居とその集落」, 日本文化班資料集3.

38) 安在皓, 2001, 「無文土器時代の 對外交流」『港都釜山』, 제17호.

39) 柴尾俊介, 2006, 「松菊里住居をめぐる」『研究紀要』第20號, 財團法人 北九州市藝術文化振興財團 埋藏文化財調査室.

40) 안재호는 송국리주거지에서 보이는 중앙토갱은 전기의 방형주거지에서 노지가 탈락되고 그 대신 작업공인 중앙토갱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安在皓, 1992, 「松菊里型 住居의 檢討」『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41) 이형원은 반송리취락의 연구를 통해 장축선상에서 주공이 일렬로 배치된(고강동1호)에서 장단비가 작아지고 중심2주공의 구심구조를 이루는 형태(반송리11호)로 변화, 여기에 타원형 수형이 부가되면서(장축선비대칭) 반송리형주거지가 형성되며, 이어 타원형수형이 중심축에 배치되고 중심2주공의 간격이 좁아지는 방형의 검단리식 또는 휴암리식주거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李亨源, 2007,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한신대학교박물관.

수의 노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군내 또는 복수의 주거군이 공동사용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주거지단계는 주거지의 면적이 중대형, 중형, 중소형으로 구분되는 등 전시기에 비해 더욱 성층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판단된다. 주거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을 가지는 중대형주거지를 중심으로 취락의 영역을 확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집단은 지식묘의 축조, 경작지의 확대, 환호(구)의 설치 등 점차 이 일대의 중심취락으로 발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期에서 4期로의 변천은 원형주거지집단과 말각방형주거지집단의 관계규명에 있다고 하겠다.

주거지간의 중복관계를 본다면 말각방형-원형의 순으로 시간적 순서가 매겨진다. 원형주거지가 말각방형주거지를 파괴한 것을 있지만 말각방형주거지가 원형주거지를 파괴한 것은 1동도 없다. 따라서 이들 주거지간의 시간적 순서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말각방형의 주거지는 진라리취락(집단) 본래의 주거구조였다고 생각된다.⁴²⁾

말각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의 구조상 차이점은 평면형태라는 중요한 변화와 함께 내부 중앙토갱 규모의 확대 및 그 형태에 있어 횡타원형일색으로의 변화이다. 평면형태의 차이를 제외하면 두 형식의 주거지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말각방형주거지집단이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원형을 고안해 내었는지, 외부의 원형주거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변화하였는지, 새로운 집단이 들어온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양 형식의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는 배치상을 살펴보면, 말각방형주거지집단은 '나' 구역의 동편지역에 集住해 있고, 원형주거지집단은 말각방형주거지집단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서편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배치상의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 물론 양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도 일부 확인된다. 배치상을 통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형주거지군은 말각방형주거군을 피해 서편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군이 형성된 이후 다시 동편과 주변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파악된다. 이와 같은 분석이 유효하다면 진라리유적에서 말각방형주거지군이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상태에서 일정시간 이후 동편지역을 중심으로 원형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일부 공존기간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취락내 말각방형인지 원형인지 구분이 모호한 주거지들은 공존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후 취락은 원형주거지 일색으로 변모하며 취락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내 중심취락으로 발전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청도 진라리유적의 취락구조와 변천에 대해 개별주거지, 주거군, 취락단위로 검토한 후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한정된 범위의 발굴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분포상을 통해 취락단위의 분석이 행해졌으므로 그 해석과 결과에 있어 많은 오류가 내포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42) 말각방형의 주거지는 전시기의 장방형, 방형주거지에서 계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파악하였다.

나 발굴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마을단위 전체를 완굴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음으로 어떤 식이던 주거군이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는 취락구조의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성과가 결집되면 장래 동일지역 및 동일시기 취락간의 관계(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청도 진라리유적은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주거지가 연속적으로 조영되어 있어 동일 지역 내 통시적인 주거지의 변화과정과 취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 생각된다.

유적의 분석을 통해 보면, 전기(1,2기)에서 후기(3,4기)로의 이행과정은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의해 (세)장방형→방형→원형의 주거지평면형태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주거지 면적을 통해 보면 다수를 차지하는 개별주거지는 대형주거지→중형주거지→소형주거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주거지 수의 증가와 함께 연동한다. 이는 주거지에 나타난 사회의 규제에 파악하는 선학의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⁴³⁾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3기의 말 각방형주거지의 출현으로 생각된다. 주거규모의 소형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주거공간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엿 볼 수 있어 이전시기와는 다른 사회구조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후 시기는 원형주거지로의 변화와 함께 취락공간의 확대를 통한 취락의 대규모화 및 주변취락간의 관계를(통합, 위성취락, 중심취락, 거점취락) 통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변지역의 활발한 조사가 기대된다.⁴⁴⁾

금번의 원고는 발표자의 능력부족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제 요소 중 주거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외 분묘, 수혈유구, 굴립주건물, 야외노지, 광장, 경작유구, 구, 환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다. 차 후 이상의 내용을 보완한 원고를 논집에 게재하고자 한다.

43)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44) 지석묘분포권을 보면 진라리유적(지석묘7기), 무등리유적(지석묘9기), 원정리유적(지석묘10기), 범곡리유적(지석묘40기) 등의 취락을 상정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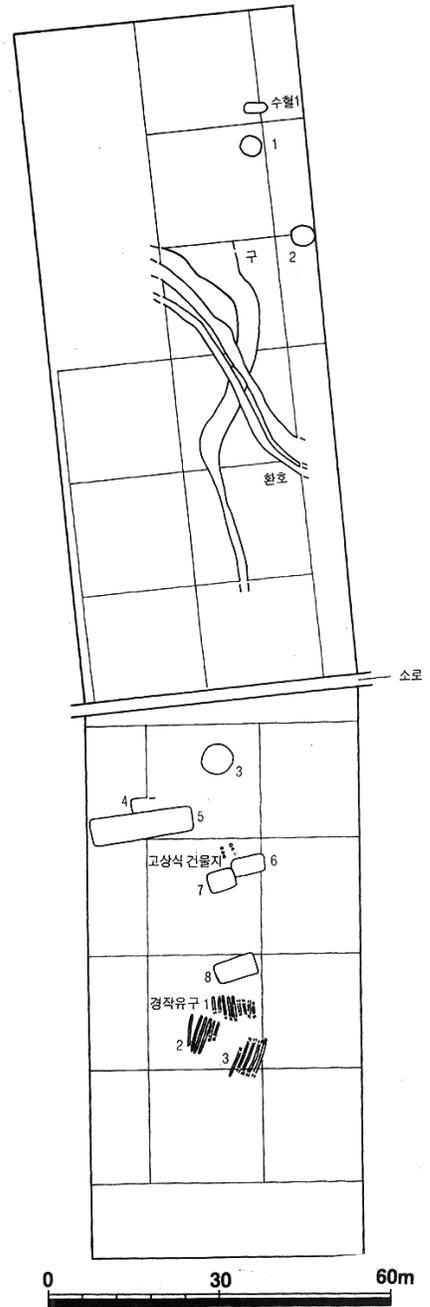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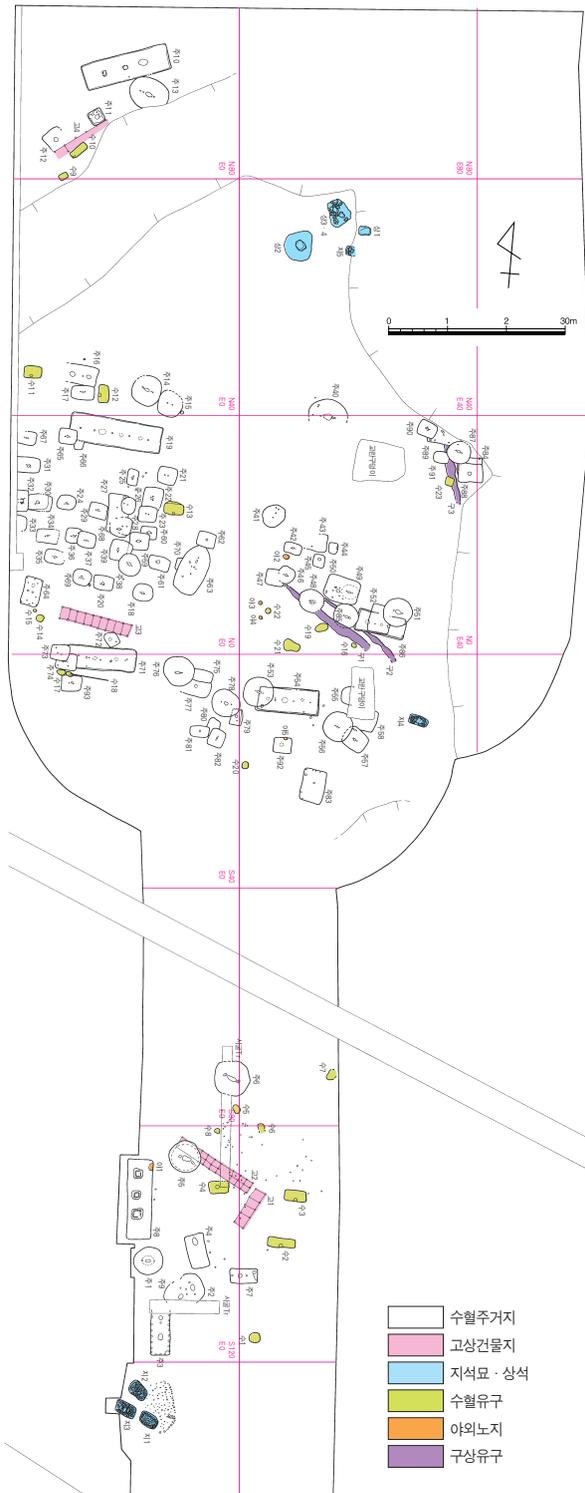
1. 논문

- 金正基, 1974, 「無文土器時代의 住居址」『考古學』3.
- 李健茂, 1979, 「遺構 및 遺物에 대한 考察」『松菊里 I』, 國立中央博物館.
- 洪慶姬, 1983, 『都市地理學』, 法文社.
- 安在皓, 1992, 「松菊里型 住居의 檢討」『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 _____,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碩晤 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_____,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碩晤 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_____, 2001, 「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港都釜山』, 제17호.
- _____, 2001, 「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 構造의 轉移」『嶺南考古學』29,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의 中期聚落의 一樣相」『韓國上古史學報』43,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健茂, 1992, 「松菊里型住居分類試論」『松菊里 I』, 國立中央博物館.
- 金在弘, 1995, 『清堂洞 II』, 國立中央博物館.
-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載昊, 2000, 『松菊里型 住居址의 構造와 分布圈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榮九, 2000, 『嶺東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趙賢庭, 2001, 『蔚山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宋滿榮, 2001, 「南漢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韓國農耕文化의 形成』, 韓國考古學會.
- 朴姿延, 2002, 『青銅器時代 住居址 內的 遺物分析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유병록, 2002, 「考察」『大邱 東川洞 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 高旻廷, 2003, 『南江地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達錫, 2005, 「考察」『清道 陳羅里 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
- 裴德煥, 2005, 「청동기시대 영남의 주거와 마을」『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영남 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宮里修, 2005, 「無文土器時代의 聚落構成-中西部地域의 驛三洞類型」『韓國考古學報』 56, 韓國考古學會.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賢植, 2006, 『蔚山式 住居址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주거지를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54. 韓國上古史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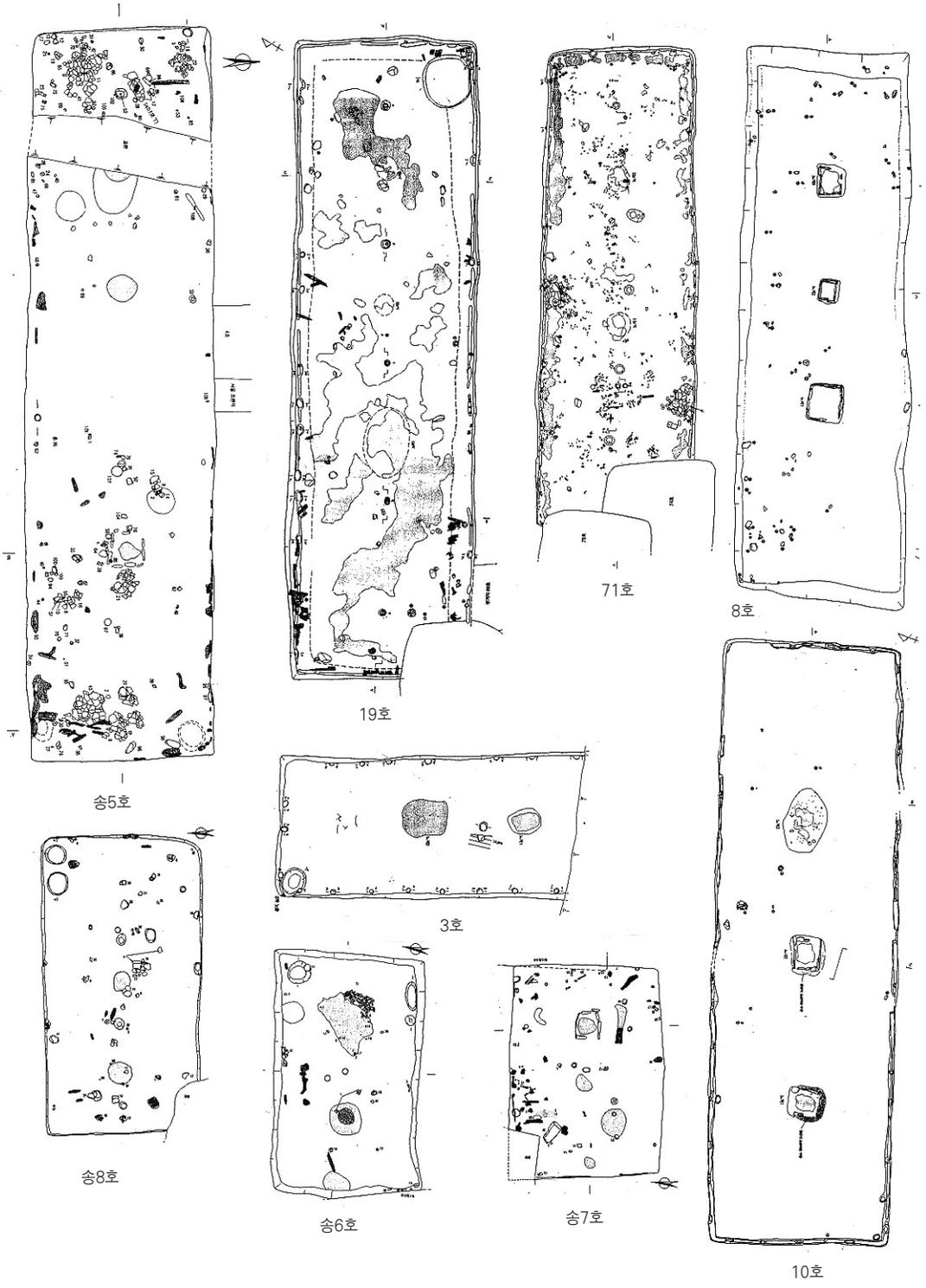
- 李亨源, 2007,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한신대학교박물관.
- _____, 2007, 「호서지역 가락동유형의 취락구조와 성격」『湖西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학술대회.
- 都出比呂志, 1975, 「家とムラ」『日本の生活의 母胎』, 日本生活文化史1.
- 酒井龍一, 1982, 「畿内大社會の理論的樣相」『龜井遺蹟』, (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
- 大貫靜夫, 2001, 「韓國の 竪穴住居とその集落」, 日本文化班資料集3.
- 柴尾俊介, 2006, 「松菊里住居をめぐって」『研究紀要』第20號, 財團法人 北九州市藝術文化振興財團 埋藏文化財調査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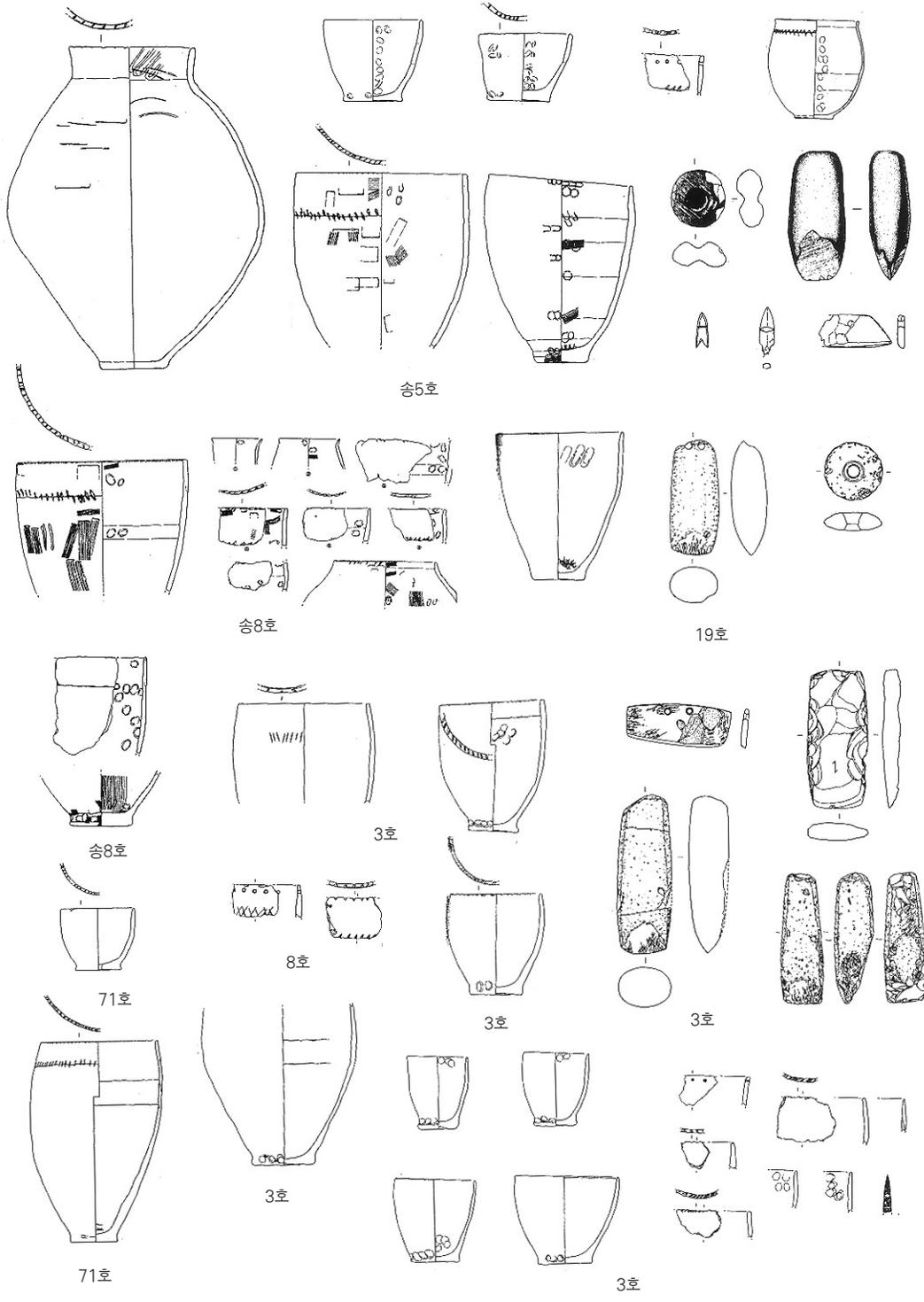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檢丹里마을遺蹟』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晋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時代 聚落』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 聚落遺蹟』.
- _____, 2002,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 _____, 2002, 『蔚山 川上里聚落遺蹟』.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대구 수성초등학교부지내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5, 『대구-부산간고속도로건설구간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清道松邑里遺蹟』.
- 嶺南大學校博物館, 2006, 『大邱 月城洞 1257遺蹟』.
- _____, 2007, 『大邱 月城洞 585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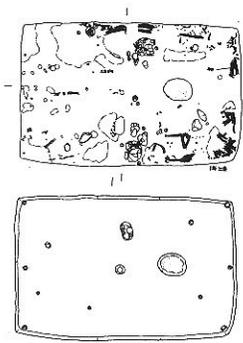
〈도면 6〉 진라리유적 유구배치도 및 송읍리유적 유구배치도(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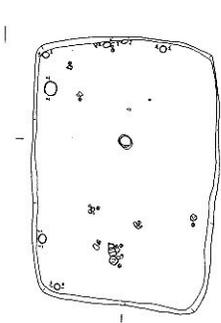
<도면 7> 진라리1기의 (세)장방형주거지(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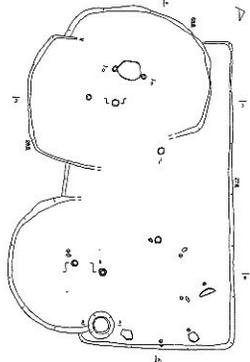
〈도면 8〉 진라리1기의 출토유물각종(토기1/12, 석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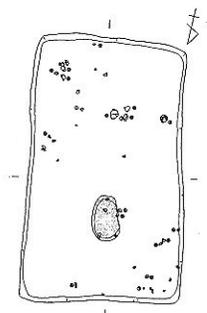
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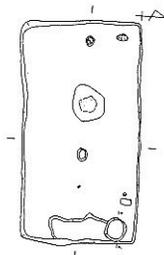
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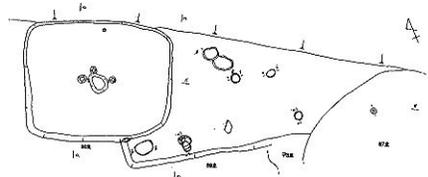
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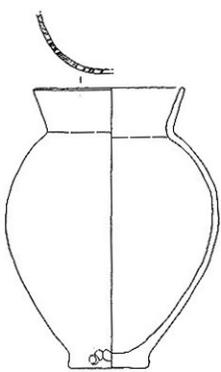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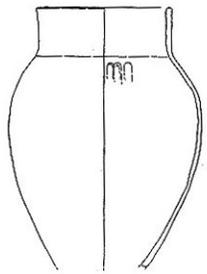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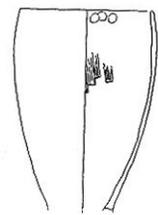
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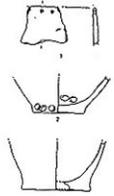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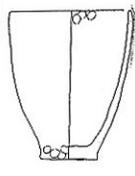
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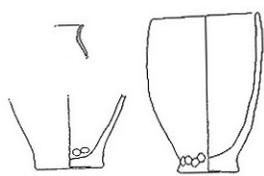
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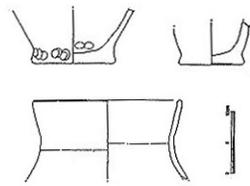
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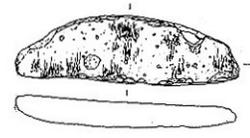
4호



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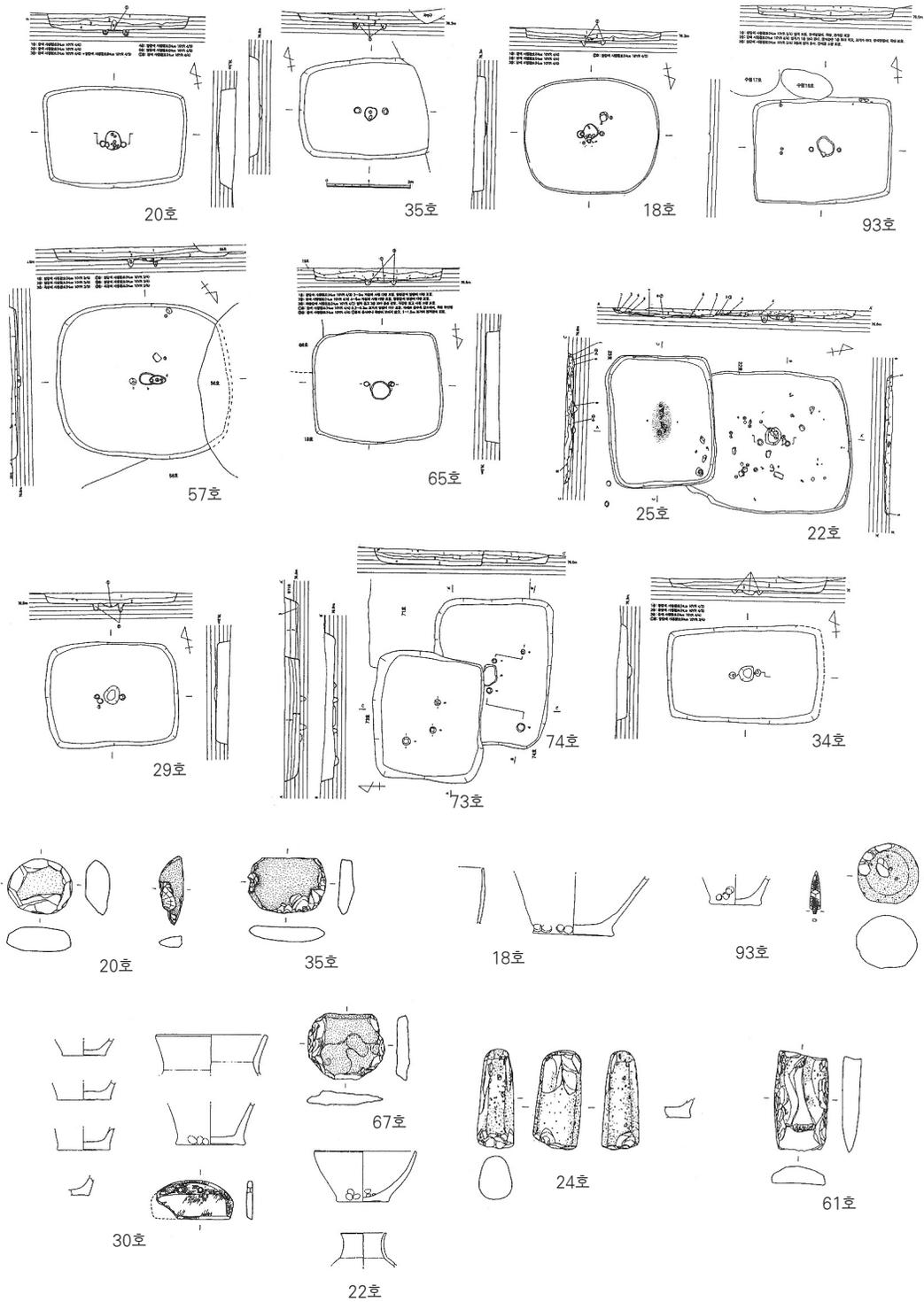


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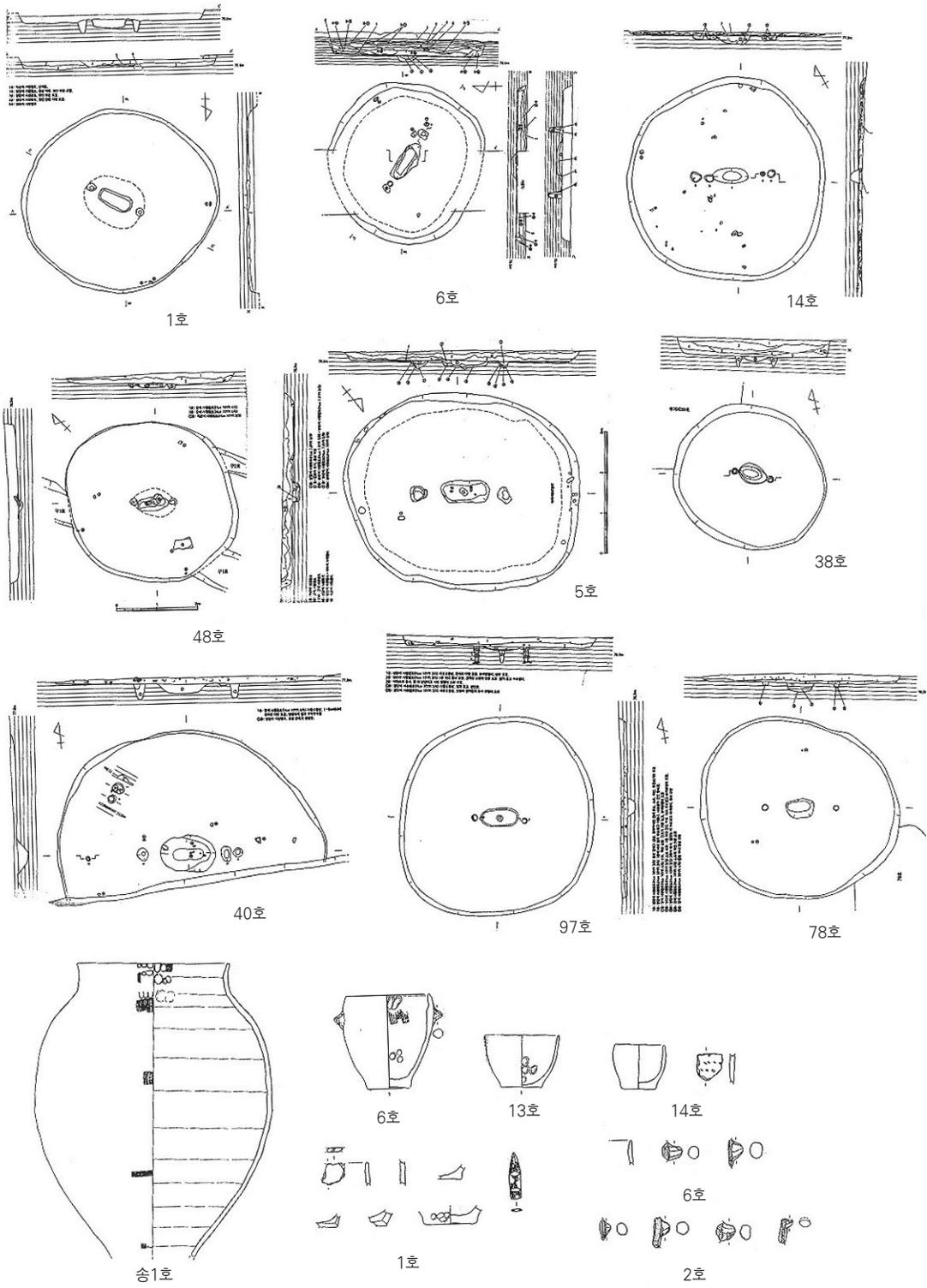


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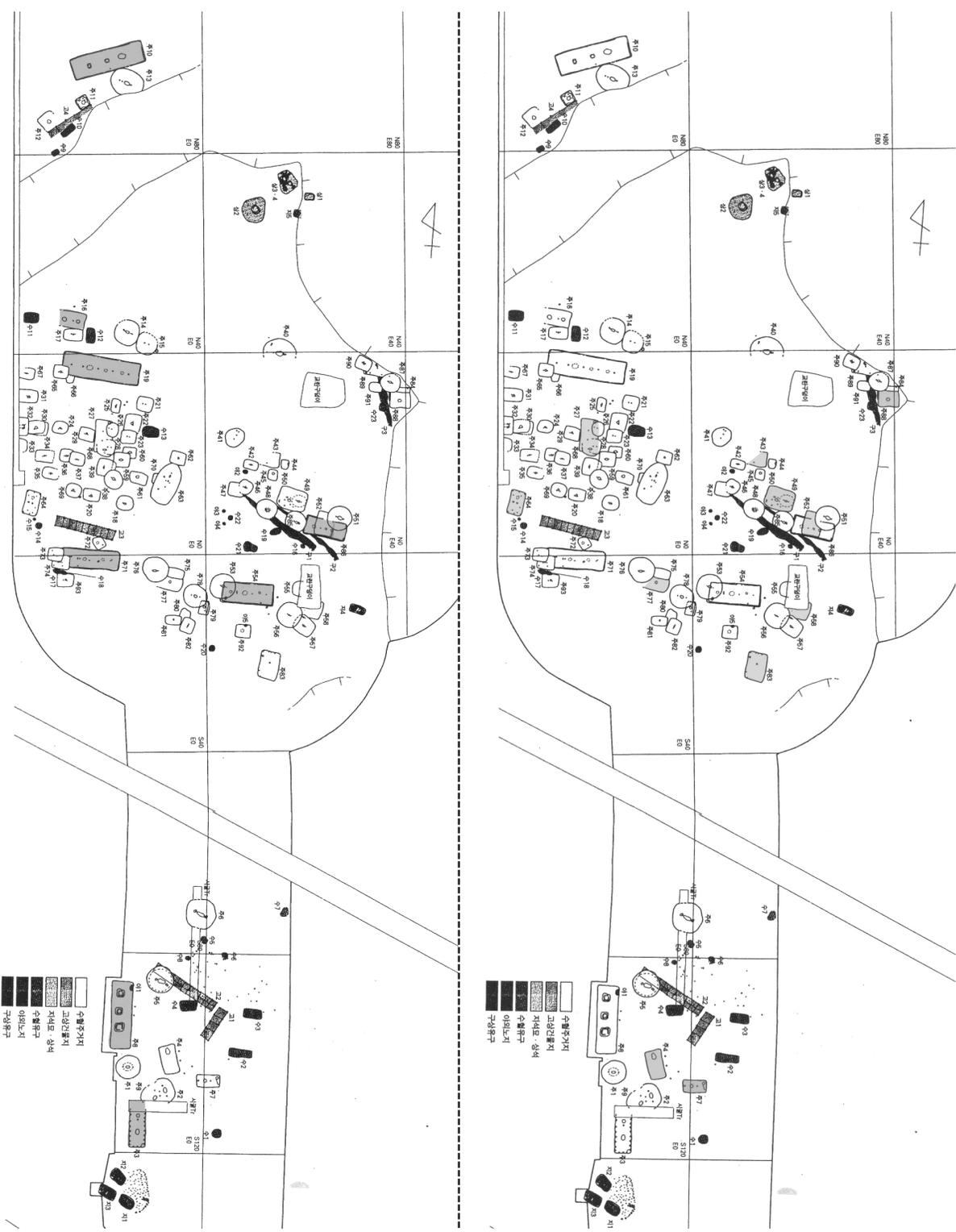
〈도면 9〉 진라리2기의 장방형주거지와 출토유물 (주거지: 1/160, 토기 1/12, 석기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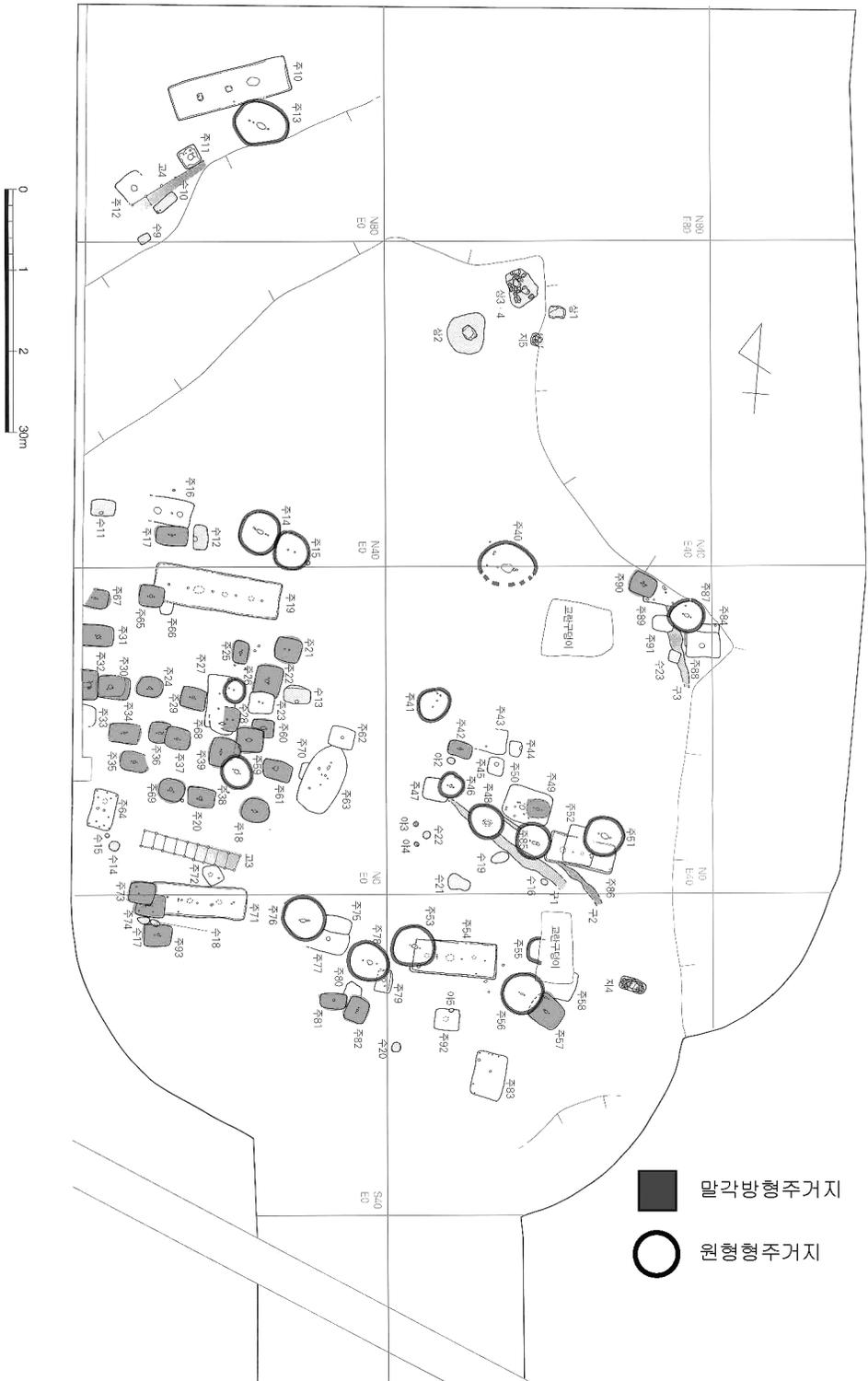
〈도면 10〉 진라리3기의 원형주거지와 출토유물(주거지: 1/160, 토기1/12, 석기1/8)



〈도면 11〉 진라리4기의 원형주거지와 출토유물(주거지:1/160,토기1/12,석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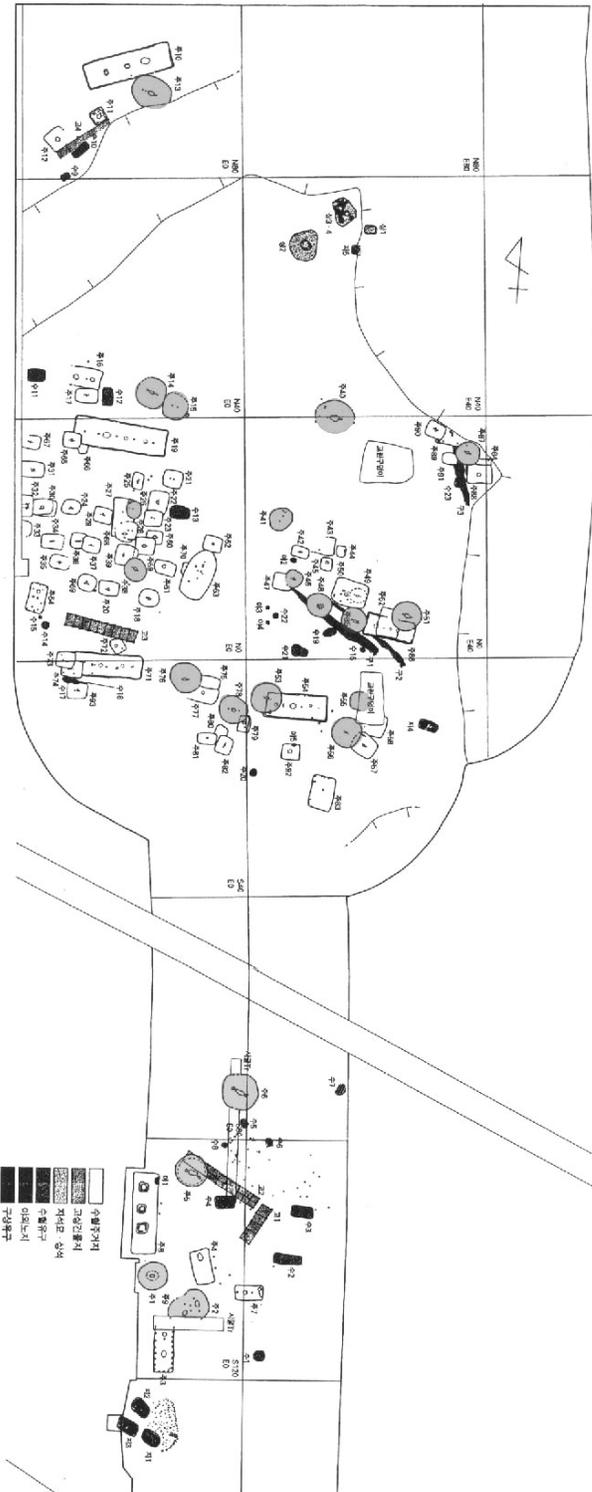


〈도면 12〉 진라리1기의 유구배치도(좌) 및 2기의 유구배치도(우)



<도면 13> 진라리3기의 유구배치도

도면 3 유구 배치도 (1/500)



<도면 14> 진라리4기의 유구배치도

清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에 대한 討論文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沖積層에 분포하는 유적은 대체로 여러 시기의 유구가 밀집분포하는데 중복관계를 통해 편년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층적지유적의 경우 발굴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유구의 보존상태가 양호해 당시 마을의 경관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유적 내에서 중복관계가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同時性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범람으로 인해 일시에 마을 전체가 퇴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주거지임에도 중복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도 진라리유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락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동시성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취락의 구조를 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진호 선생님과 보고서 집필자께서 세밀하게 분석하셨기 때문에 토론자는 대부분의 견해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직무가 있기에 의문점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단계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진라리유적의 분기를 1기에서 4기까지 나누고 1기를 전기후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¹⁾ 1기의 주거지는 대부분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며 위석식노지와 수혈식노지를 갖춘 주거지이며 토기의 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단사선문+공열문,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와 토기문양의 조합은 청동기시대 전기전반까지 올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은 진주 대평유적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평유적에 대한 편년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진라리유적의 1기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유물조합은 시기적으로 돌대문토기(조기) 다음에 위치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²⁾ 따라서 돌대문토기단계를 청동기시대 조기로 설정한다면 진라리유적의 1기는 조기 이후의 전기 전반에 위치하지 않을까요?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청도를 비롯한 대구지역의 전기전반의 양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청동기시대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있어 송국리형문화를 후기로 설정하는 안재호의 시대구분을 따르고 있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후기로 설정하는 안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다.

2)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董眞淑, 2003,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黃炫眞, 2004,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 진라리 유적의 경우 현재의 발굴조사면이 평지이기 때문에 지형의 고저에 따른 유구 배치를 간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가의 층적층 역시 미세하게 지형의 고저가 나타나는데 특히 청동기시대 중기의 경우 가장 높은 곳(자연제방)에 주거지가 분포하고 사면에 경작지, 매장유구가 열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³⁾ 진라리유적과 송읍리유적 역시 도로천을 따라 지식묘, 경작유구, 주거지가 반복해서 열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즉 현재의 조사구역으로만 볼 때는 지식묘가 취락을 둘러싸는 형태인데 사실은 각각의 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변 일대가 조사되지 않아 전모를 알 수 없고 토론자 역시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지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송읍리유적과 진라리유적의 중기의 전체적인 공간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高床建物址의 시기와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는 원형주거지 단계 이전으로 파악하였고, 보고서에서는 세장방형 주거지 1호와 관련되는 건물로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층적지에 형성된 유적은 같은 형태의 주거지일지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고상건물지 역시 원형, 방형주거지와 중복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중복된 주거지와 다른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고상건물지는 후기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⁴⁾ 토론자는 진라리유적의 고상건물지 역시 후기의 유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상건물지는 발표자께서 구획한 가구역 남쪽(4호), 나구역 남쪽(3호), 대구역 북쪽(1호, 2호)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는데 모두 住居群과 空地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취락내의 공지가 특별한 행위를 위한 장소라고 가정한다면 광장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진라리유적의 고상건물지는 특정 주거지와 일반 가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주거지면적에 따른 성층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진라리유적 4기에 이르면 주거지의 면적이 중대형, 중형, 중소형으로 3분되어 세단계로 성층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5를 살펴보면 중소형과 중형의 구분이 약간은 애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중형 주거지로 설정한 5호, 6호 주거지 주변에는 중형주거지와 동시에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주거지의 숫자가 너무 적고, 76호 주거지의 경우 근처의 53호, 78호 주거지와는 면적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단계 주거지의 특징이 규격화라고 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三分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토론자 역시 청동기시대 후기에 유력개인이 등장하고 성층화가 이루어 졌다는 견해⁵⁾에 공감하지만 13호와 40호가 유력개인의 주거라는데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라리유적 4

3) 이러한 배치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 진주 대평리 옥방 2지구이다.

慶尙大學校博物館, 1999, 『晉州 大坪里 玉房 2地區 先史遺蹟』.

4) 배덕환, 2005, 「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東亞文化』創刊號, 17-19쪽.

5)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的 變遷」『碩學 尹容鎮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기는 주거지의 면적을 통해서는 중대형의 13호, 40호 주거지와 일부 중소형주거지,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 소형주거지로 二分되고 유력 개인의 주거는 고상가옥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발표자의 1기 역시 송읍리유적과 같이 검토하면 대형, 중대형, 중형으로 3분되는데 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면적차이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기단계인 3기(말각방형주거지)에는 오히려 주거지면적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의 규격화를 나타내는데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주거지면적을 통한 성층화를 설명하는데는 오히려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중대형의 63호 주거지가 동편의 소구역과 서편의 분산 배치된 주거군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소형과 격차가 매우 큰 1동의 중대형주거지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63호 주거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동시성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기에는 마을내의 성층화가 유적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5. 발표자께서는 진라리 4기는 송읍리유적의 환호 등을 감안해 주거영역-분묘영역-생산영역으로 구분된 중심취락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심취락이라는 용어에는 취락간 계층화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중심취락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심취락이라는 것이 형성된 유적의 범위가 넓은 대형 취락(규모의 의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송읍리유적에서 조사된 환호⁶⁾를 바탕으로 이 일대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해 주변취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다 상위의 취락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적의 방대함으로 도시론⁷⁾까지 거론되는 대평유적에서 위세품인 동검이 한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동검이 출토되고 신전으로 추정되는 대형의 고상건물지가 확인된 이금동유적을 중심취락으로 보아야 하는지? 취락간의 계층화 문제는 아직 규명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6) 환호의 발생은 특정신분의 출현과 관련이 있고 환호취락의 발생은 지식묘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해 진정한 농경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다.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81-184쪽.

7) 이상길, 2002, 「우리는 왜 남강유적에 주목하는가?」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민선례(영남문화재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2. 분포
II. 청도지역의 지식묘 검토	3. 취락내 구성 관계
1. 자료소개	IV. 지식묘에서 보이는 상징성
2. 진라리유적의 지식묘 검토	1. 입지적 측면
III.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	2. 의례적 측면
1. 입지	V. 맺음말

I. 머리말

지식묘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지역 단위의 연구라고 생각한다. 지식묘 개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간의 비교를 통해 각 지역 지식묘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여러 지역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북지역은 전남 지역 다음으로 많은 지식묘가 확인¹⁾되지만, 지식묘에 대한 단위 지역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지식묘는 발굴조사된 예가 적고, 지역적으로 김천, 칠곡, 대구, 영천, 경주를 잇는 경북 남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지식묘에 대한 연구논문²⁾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구·경북지역 지식묘에 대한 지역 단위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청도 지역의 지식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도지역은 경북지역내에서 단위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지식묘가 확인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경산시, 영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으로는 경주시, 서쪽으로는 창녕군과 접하며, 남쪽은 밀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지역간 비교연구가 용이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도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³⁾ 1991년 운문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

1) 경북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지식묘군은 약 530여곳이며, 그곳에 모두 2,800~2,900여기의 지식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권구, 1999, 「경상북도」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Ⅱ)』,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김광명, 2003, 「경북지역의 지식묘」 『지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 河仁秀, 1992, 「嶺南地方 支石墓의 型式과 構造」 『伽倻考古學論叢』 1집.

金若秀, 1986, 「琴湖江流域의 支石墓研究」 『人類學研究』 第3輯,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硏究會.

김광명, 2001, 『大邱·慶山地域의 支石墓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3) 1978년 각남면 화리에서 석관묘 2기가 조사되었으며, 단도마연토기 1점,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11점

역에 대한 합동발굴조사가 실시되어⁴⁾, 청도지역의 지식묘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된 청도 진라리유적에서 청도천 주변에 분포하는 지식묘가 처음으로 조사되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부장유물이 풍부하여 당시 이 지역 지식묘 조성집단의 매장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는 먼저 지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청도지역 지식묘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그 입지와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식묘들은 대부분 지표조사에서 상석의 확인만으로 지식묘의 분포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지만, 청도지역의 전체적인 지식묘 분포의 유형과 입지 등을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청도지역 주변에서 확인되는 지식묘유적과 비교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식묘의 입지와 분포에서 나타나는 공간적인 특성과 취락내에서 주거지군과 지식묘와의 관계 등의 청도지역 지식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도지역의 지식묘 검토

1. 자료소개

1) 청도 대천리·순지리 지식묘군⁵⁾

운문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합동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도 대천리·순지리 지식묘군은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무분별한 댐공사진행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이 파괴·교란된 상태였다.

대천리 지식묘군의 남쪽에는 동창천과 합류하는 운문천이 위치하고, 북으로는 운문산에서 뺀 어내린 지맥의 하나가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대천리 지식묘군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운문천에서 介山의 뒤쪽으로 뺀어나온 소지류변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군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다. 대천리 지식묘군에서는 A지구 2기, B지구 3기, D지구 1기의 지식묘가 조사되었으며, C지구에서는 5기의 상석⁶⁾이 조사되었다. 상석은 대부분 무게가 30t을 넘는 것들이며, 형태는 부정형이다. 상석 아래에서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형의 상석을 몇몇의 지식묘로 받히고 지식묘의 사이를 작은 돌들로 막고 있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지식묘 주변에는 정형한 형태는 아니지만, 부석시설이 확인되는 지식묘도 조사되었다.

이 출토되었다(金英夏, 1980, 『淸道華洞의 先史遺蹟』 『歷史教育論集』 1). 1989년에는 청도읍 사촌리에서 기무문토기와 마제석기류가 널려있는 산포지를 경주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4) 신석기시대 암음유적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의 입석과 지식묘, 주거지, 삼국시대의 고분, 조선시대 옹기가마터가 발굴조사되었다.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오진리 암음 유적』,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1.

경북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대천리·순천리 유적』,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2.

대전보건전문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순지리C지구 고분군』,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3.

경남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5.

5) 경북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대천리·순천리 유적』,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2.

6) 보고자는 지식묘라고 하였지만, 상석아래에서 교란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동한 상석으로 보고자 한다.

순지리 지석묘군은 순지리 고분군의 C지구 하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순지리 유적의 앞을 흐르고 있는 운문천과 가깝다. 지석묘가 위치하는 산사면은 무문토기 산포지이며, 순지리 지석묘와 약 250m 떨어진 곳에서 무문토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한 기의 입석이 확인되었다. 순지리 지석묘군에서 확인된 6기의 지석묘 아래에서는 하부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 후대의 교란으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릉 아래의 평탄면에 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이 채집되는 점으로 보아 원래 지석묘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석묘의 축조연대는 순지리 고분군 A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형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었지만, 동시기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지석묘 주변에서 확인되는 무문토기가 대개 전기 중반정도로 편년되어지는 것으로 주거지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분묘공간이 생활주거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2) 청도 범곡리 지석묘군

청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수가 밀집 분포하는 범곡리 지석묘군은 청도천에 의해 형성된 평야 지대에 위치해 있다. 범곡리 지석묘군 ①은 현재 12기 정도가 확인되며, 청도천과는 직선거리로 약 800m거리에 위치해 있다. 청도천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2열로 배열되어 있으나, 정연하지는 않다. 범곡리 지석묘군①과 100m거리에 위치한 범곡리 지석묘군②(경상북도기념물 제99호)는 주변 경작지보다 약간 높은 구릉상에 위치해 있다. 지석묘는 남쪽 옆에 14기, 북쪽 옆에 7기 모두 22기가 7~9m 간격을 두고 2열로 줄지어 놓여져 있으며, 전체거리는 약 60m에 이른다. 지석묘간 거리는 대략 3~4m정도이고, 진행방향은 청도천과 같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범곡리 지석묘군③은 범곡리 지석묘군②에서 서쪽으로 약 15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청도천방향과 동일하게 10m정도의 간격을 두고 6기가 배치되어 있다. 범곡리지석묘군은 청도천변에 정착했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사람들이 조성한 묘로서 지석묘군 주변에 큰 취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청도 봉하리 지석묘군

청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군 중 범곡리 지석묘군 다음으로 단일밀집지역내 지석묘가 많이 확인되는 곳이 봉하리 지석묘군이다. 지석묘군의 남쪽에는 동창천의 지류인 마일천과 소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천변의 곡간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다. 지석묘의 장축방향은 마일천방향과 대체로 동일하다. 봉하리 지석묘군①은 마일천을 따라 약 600m범위내에 31기 정도가 분포한다. 봉하리 지석묘군②의 북쪽으로 약 500m거리에는 봉하리 지석묘군①이 위치하며, 마일천변에 10여기의 지석묘가 남에서 북으로 거의 일렬로 분포하고 있다.

4) 대구 상동유적⁷⁾

구 정화여중·정화여고가 있던 곳으로 유적의 남쪽으로는 수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서

7)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대구 수성구 상동 우방아파트 건립부지내 상동유적발굴조사보고서』.

쪽으로는 250m 거리에 신천이 흐르고 있다. 유적은 신천의 동쪽 자연제방에 해당하는 곳이며, 배후에는 현 황금네거리까지 넓은 범람원을 형성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Ⅱ차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 지석묘 하부구조인 석관과 석곽묘 6기, 조선시대 주거지 6기, 노지유구 2기, 우물 3기, 폐기장 2기, 적심시설, 부석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지석묘 하부구조 6기 모두 유적의 서쪽에 밀집되어 확인되며,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 매장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지형이 잦은 유로의 변화와 후대의 건축물들에 의해 파괴되어 무덤축조 집단과 주거집단의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거지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지석묘 조영집단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무덤이 조성된 시기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축조될 시점이나 그 이후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경산 삼성리유적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경산 삼성리유적은 산자락 말단부와 평지가 만나는 부분으로서,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대체로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유적의 서쪽에 인접해서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며, 동쪽으로 약 100m정도 떨어져 남에서 북으로 남천이 흐른다.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 석관(곽)묘 4기, 부석시설 2기, 삼국시대 도로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지석묘와 석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어 축조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 지석묘 3기는 부석시설은 남아있으나 하부매장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자는 이러한 형식을 공동체집단의 협동과 결속을 다지는 제단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밀양 신안 선사유적⁹⁾

신안유적은 서북쪽 옥교산(538.4m)에서 남쪽을 뺀 내린 구릉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개석한 雨谷의 영향으로 형성된 선상지의 선양과 선단에 위치한다. 선단부는 밀양강 중류 서안의 하안단구와 연결된다. 2차례에 걸쳐 3개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Ⅱ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 4기, 적석제단유구 1기, 집석유구 2기, 강변호안석축, 밭이 조사되었다. 1호, 4호 지석묘는 장방형의 적석묘역을 가지고 있으며, 2호 지석묘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는 부석묘역을 가지고 있다. 적석제단유구는 원형의 적석유구와 그 남북쪽에 잇대어 방형의 적석유구를 조성한 것인데, 내부에서 매장시설 등의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접하여 조성된 1호, 4호 지석묘의 적석묘역과 관련해서 제의 및 신앙과 관련된 유구로 생각된다. 1호 지석묘의 상석에서 음문과 인물상의 암각화, 4호 지석묘 묘역 서쪽 중앙부 面石에서 확인된 동심원암각화 역시 당시 주민의 제의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진라리유적의 지석묘 검토

청도 진라리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수혈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면서 집중분포하고, 그 주변으로 지석묘가 배치되어 있다. 진라리유적에서는 지석묘 5기, 지석묘 상석 4기

8)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慶山 三省里遺蹟』.

9)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密陽 新安 先史遺蹟』.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지석묘 매장주체부내에서 단도마연토기 2점, 석검 3점, 석촉 11점, 석창 1점, 관옥 1점과 지석묘 주변의 부석에서 각종 토기류 및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1) 입지와 분포

청도 진라리유적은 산동과 산서지역을 가르는 북쪽의 용각산(해발 692.5m)에서 청도천을 향해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남서쪽에는 청도천의 지류인 다로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용각산에서 흘러나오는 다로천의 지류가 남북방향으로 흘러 다로천과 합류된다. 이 일대는 유수와 산지의 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충적층이 하천을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들은 기존의 지표조사¹⁰⁾에서 진라리 지석묘군 I·II로 알려져 있던 곳이며, 유적의 북서쪽에는 진라리 지석묘군 III이 위치해 있다.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5기의 지석묘는 진라리 유적의 주거영역의 동쪽과 남쪽 외곽에서 다로천과 평행하는 동서방향으로 분포한다.

지석묘의 배치형태는 단독으로 확인되는 지석묘와 군집을 이루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적내에서 단독으로 확인되는 무덤으로 4호, 5호 지석묘가 있다. 4호, 5호 지석묘의 상석은 확인되지 않지만, 주변에서 확인되는 4기의 상석으로 보아 후대의 경지 정리 등으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석묘와 유적 바깥에서 확인되는 진라리 지석묘군 III은 진라리유적내 주거지군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양상으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석묘는 진라리 유적내 주거지 축조집단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지석묘의 기능 또한 묘지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경계석의 의미도 동시에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내 남쪽에서 2열의 배치양상으로 밀집분포하는 무덤으로 1·2·3호 지석묘가 있다. 지석묘 주변에서 정연한 형태는 아니지만, 부석도 확인된다. 1, 2, 3호 지석묘 주변은 진라리 지석묘군 II로 보고된 곳으로 유적의 서쪽경계 밖에서 지석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형의 석관묘가 확인되어 2열의 열상배치가 서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3기의 지석묘는 유적의 외곽에 다로천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지석묘 상석과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은 다로천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해 있다.

2) 형식과 구조

지석묘의 구조는 상석, 매장시설, 부석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석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상석은 대체로 매장시설을 보호하는 기능, 묘표로서의 기능, 제단·기념물로서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 매장주체부가 확인되는 1호, 2호 지석묘의 상석은 편평석과 입체석의 형태가 각각 확인되며, 상석의 기능 중 매장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추정된다. 인접한 3호 지석묘에서 상석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석의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모든 유구마다 반드시 1개씩의 상석을 놓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 5호 지석묘 주변에서 확인되는 4기의 상석은 4호, 5호 지석묘의 상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0) 영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1993,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대구·경북권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1) 이상길,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매장시설은 지석묘 5기 모두 지하식의 석곽형으로, 장축방향은 모두 북서-남동방향으로 서로 거의의 방향과 평행하다. 지석묘의 매장주체부 규모로 볼 때 길이가 150cm이상이므로 伸展葬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장주체부의 규모와 형태상의 차이가 없다. 개석이 확인되는 지석묘는 3기로 판석을 이용하여 2~3중으로 시설하였다. 개석이 확인되지 않는 3호, 5호 지석묘의 경우 잔존깊이가 깊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상부의 개석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시상석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시상석은 역석만을 사용한 것, 활석과 역석을 사용한 것, 판석을 사용한 것으로 시상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매장시설의 축조순서는 먼저 말각장방형으로 묘광을 파고 바닥에 시상석을 설치하였다. 이후 벽석을 축조하였는데, 벽석은 장벽과 단벽이 서로 맞물려서 축조되었다. 피장자의 두향은 출토된 유물 중에서 마제석검의 병부의 위치로 볼 때 4호묘는 동쪽, 1·3호묘는 서쪽이다. 또한 3호묘의 단도마연토기의 부장 위치가 2호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2호묘의 피장자 두향도 서쪽일 가능성이 높다.

부석과 같은 묘역시설¹²⁾은 매장주체부 또는 무덤의 범위를 구획하는 것으로 무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1~3호 지석묘 주변에서는 부석시설이 확인되나, 부석시설 또한 후대의 경작 등으로 파괴되어 평면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4호 지석묘도 개석상부에서 활석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부석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표 1〉 지석묘 유구·유물 현황표

호수	상석					매장시설							부석 시설	출토유물	비고		
	형태	석질	규모(cm)			무게 (t)	개석	축조 형태	장축방향	규모(cm)						위치	바닥석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깊이					
1	입체석	안산암	180	140	118	8	2중	석곽	N-71°-W	155	65	70	지하	○	부정형	석검1점	
2	편평석	안산암	230	127	50	3	3중	석곽	N-54°-W	215	50	65	지하	○	부정형	단도마연토기1점, 석옥1점	
3	석곽	N-58°-W	215	70	40	지하	○	부정형	단도마연토기1점, 석검1점, 석촉10점	
4	2중	석곽	N-76°-W	235	57	60	지하	○	○	석검1점, 석촉1점, 석착1점	
5	석곽	N-80°-W	(87)	72	15	지하	○	.	.	
상석1	편평석	혼펠스	215	134	65	이동
상석2	입체석	안산암	177	146	90	이동
상석3	입체석	안산암	150	90	140	이동
상석4	이동

12) 이상길은 지석묘 주변에 설치된 부석 또는 적석으로 구역을 표시한 묘역시설이 있는 묘를 '구획묘'라고 하고, 이 구획묘를 3가지로 유형화(I형-구획묘가 군집을 이루는 유형, II형-한묘역내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축조되어 있는 유형, III형-묘역이 극단적으로 거대화된 유형)시켜서 각 유형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각 유형의 차이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확대·발전인지 지역내 또는 지역간의 우열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세가지 유형의 발전순서는 '개인군집형→유력가족형(I)→유력가족형(II)'의 순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적인 특징은 支石이 없고, 상석 주위에 할석등을 깔아 묘역을 조성하고 매장시설은 부석 설치면보다 아래인 지하에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지석묘 5기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띠는 점으로 동일한 축조집단에 의해 지석묘가 조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축조연대

진라리 지석묘의 축조연대는 매장시설내 출토유물의 상호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도마연토기¹³⁾는 2호 지석묘에서 1점, 3호 지석묘에서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2점 모두 장경호로 구연단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구경부와 동체의 형태는 동일하다. 구경부는 내경하며,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하는 형태로 하인수 분류에 따르면 소형 전형단도마연토기 III a 또는 III b에 해당한다. 이는 하인수의 편년상 III 단계로 송국리형 문화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마제석검¹⁴⁾은 모두 이단병식석검으로 3점이 출토되었다. 1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유절식 석검으로 검신폭과 병부 상부의 폭이 거의 같으며, 심부와 병부의 하단부가 뚜렷하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병부의 중간에 두 줄의 절이 있는데 절은 전, 후, 측면 모두 융기되어 있다. 1호 지석묘 출토 마제석검은 하인수 분류 II d 단계에 해당되고, 안재호 분류 II b류, 심봉근 IV 단계에 해당한다. 3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유단식 석검으로 검신폭과 병부 상부의 폭이 거의 같으며, 심부와 병부의 하단부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3호 지석묘 출토 석검은 하인수 분류 I f에 해당되며, 안재호 분류 I a류, 심봉근 IV 단계에 해당한다. 4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유구식 석검으로 검신폭보다 병부 상부의 폭이 좁으며, 심부와 병부의 하단부의 돌출이 미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석검은 하인수 분류 III a, 안재호 분류 I c식에 해당한다.

마제석촉은 3호묘에서 10점, 4호묘에서 1점으로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3호묘에서 출토된 3점은 안재호의 분류에 따르면 III b류에 해당한다. 나머지 7점은 IV류로서 III b류와 공반예가 있다. 4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마제석촉은 안재호 분류 III a류에 해당한다.

매장시설 내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 마제석촉, 마제석검 등의 유물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단계¹⁵⁾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판단되며, 지석묘간 유물상의 시기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라리 지석묘의 출토유물을 통해 진라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13) 하인수는 영남지방 단도마연토기를 I ~ V 단계로 나누고, I · II 단계는 한반도의 남부지방 무문토기시대 전기(공열토기), III 단계는 중기(송국리형토기), IV · V 단계는 후기(원형점토대토기)의 3시기로 나누었다.(하인수, 1989, 「영남지방 단도마연토기에 대한 신고찰-형식분류와 편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4) 마제석검의 형식분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沈奉謹, 1989,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대한 研究-韓國磨製石劍과 關聯하여-」 『嶺南考古學』 6, 嶺南考古學會.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河仁秀, 1992, 「嶺南地域 支石墓의 型式과 構造」 『伽倻考古學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5) 최근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전·후기로 구분되고, 기존의 중기단계인 송국리유형이 후기에 포함되는 경향이 강하다.

있다. 1호, 9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축과 19호, 22호, 6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가 있다. 19호(세장방형주거지), 64호 주거지(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는 하인수 분류 전형단도마연토기 I류에 속하며, 22호 주거지(소형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구연부편은 2호, 3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와 유사한 형태로 전형단도마연토기 III류에 해당한다. 또한 1호(원형주거지)와 93호 주거지(소형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축은 안재호 분류 IIIa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4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축과 유사한 형태이다. 주거지 출토유물과 비교해 볼 때 진라리 지석묘가 축조된 시기는 세장방형주거지,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보다 늦은 시기에 출토되는 유형으로, 지석묘의 축조시기는 세장방형주거지, 장방형주거지 단계 이후의 말각(장)방형, 원형주거지와 같은 선상으로 판단된다.

진라리유적 보고서 고찰자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주거지간의 중복관계를 통해 세장방형(I 유형)→장방형(II 유형)→말각(장)방형(III 유형)→원형(IV 유형)의 순서로 선후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말각(장)방형(III 유형)과 원형(IV 유형)유형을 송국리단계로 설정하였다. 필자도 말각(장)방형과 원형주거지를 송국리단계로 설정하는 안에는 동의를 하나, 말각(장)방형과 원형주거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내부시설이 확인되는 점과 이들 주거지들의 중복관계로 보아 단순한 평면형태로 말각(장)방형에서 원형주거지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말각(장)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적어서 지석묘와 각 주거지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Ⅲ. 청도지역 지석묘의 공간적 특성

1. 입지

청도지역¹⁶⁾은 龍角山(해발 692.5m)과 龍塘山(해발 843.7m)에 의해 형성된 곰티재에 의해 1,000m가 넘는 운문산, 가지산 등의 험준한 지형을 이루는 산악지대의 山東地域과 평탄한 盆地를 이루고 있는 山西地域으로 나뉘어진다. 河川은 산서지역을 흐르는 淸道川과 산동지역을 흐르는 東倉川으로 크게 이분된다. 청도천은 비슬산에서 흘러내려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각남면, 화양읍, 청도읍을 돌아 흐르는 하천이며, 풍각천, 현리천, 오산천, 부곡천, 대곡천, 다로천 등의 지류를 이루고 있다. 동창천은 운문산과 구룡산에서 흘러내려 서남쪽으로 흘러 밀양시 유천에서 청도천과 서로 합류되어 밀양천을 이루고 낙동강에 합류된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청도지역은 대구·경산지역과 경남의 밀양, 김해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여겨진다.

청도지역의 지석묘¹⁷⁾는 모두 62개 군집에 300여기가 확인되며¹⁸⁾, 1기만 독립적으로 있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 수기에서 수십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범위에 무리 지어 있다. 청도군 소재의 지석묘군은 대부분 지표조사 등을 통해 보고된 것이므로 표로 대신하고자 한다.

16) 청도지역은 행정구역상의 청도군을 지칭한다.

17) 청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청도군-』.

18) 청도지역의 지석묘는 대부분 지표조사 등을 통해 보고된 것이다. 지석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석묘의 입지와 분포유형 등을 살펴보는 데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표 2〉 청도지역의 지석묘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확인 기수	입 지	특 징	비 고
1	무등리지석묘군	8	층적지(다로천)	칠성바위라고 불림	
2	무등리지석묘	1	층적지(다로천)		
3	원정리지석묘군①	5	층적지(다로천)	상석에서 성혈확인	
4	원정리지석묘군②	5	층적지(다로천)	북두칠성의 형태, 상석에서 성혈확인	
5	월곡리지석묘군①	2	층적지(청도천)		이동가능성있음
6	월곡리지석묘군②	3	층적지(청도천)		
7	유호리지석묘군	4	층적지(청도천)		
8	유호리지석묘①	1	구릉말단부(청도천)		
9	유호리지석묘②	1	층적지(청도천)		
10	합천리지석묘군①	12	층적지(청도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2열 진행	
11	합천리지석묘군②	6	층적지(청도천)		
12	합천리지석묘	1	층적지(청도천)		
13	범곡리지석묘군①	12	층적지(청도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2열 진행	
14	범곡리지석묘군②	22	층적지(청도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2열 진행	
15	범곡리지석묘군③	6	층적지(청도천)		
16	송북리지석묘군①	3	층적지(청도천)	유물산포지확인	
17	송북리지석묘군②	2	층적지(청도천)		
18	눌미리지석묘①	2	층적지(청도천)		
19	눌미리지석묘②	1	층적지(청도천)		
20	진라리지석묘군	10	층적지(다로천)	진라리유적(청동기시대취락유적)-지석묘 5기확인	
21	유등리지석묘군	8	구릉(다로천)	2열 진행	
22	유등리지석묘	1	구릉말단부(다로천)		
23	칠성리지석묘군①	6	층적지(청도천)		
24	칠성리지석묘군②	3	층적지(청도천)		
25	칠성리지석묘군③	2	구릉말단부(청도천)		
26	화리지석묘군	10	층적지(청도천)	화리석관묘유적	이동가능성있음
27	신당리지석묘군①	9	층적지(청도천)		
28	신당리지석묘군②	3	층적지(청도천)		
29	신당리지석묘군③	2	층적지(청도천)		
30	신당리지석묘군④	2	층적지(청도천)		
31	흑석리지석묘군①	2	층적지(풍각천)		
32	흑석리지석묘군②	9	층적지(풍각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3열 진행	
33	흑석리지석묘	1	층적지(풍각천)		
34	차산리지석묘	1	층적지(풍각천)		
35	삼평리지석묘	1	곡간평야(각북천)		이동가능성있음
36	가금리지석묘	1	층적지(청도천)		
37	신원리지석묘군	3	곡간평야지대(신원천)		
38	지촌리지석묘군	10	곡간평야지대(마일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1열 진행	
39	봉하리지석묘군①	31	곡간평야지대(마일천)		
40	봉하리지석묘군②	10	곡간평야지대(마일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3열 진행	
41	봉하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마일천)		
42	마일리지석묘군①	8	곡간평야지대(마일천)		
43	마일리지석묘군②	8	곡간평야지대(마일천)		
44	마일리지석묘군③	7	곡간평야지대(마일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1열 진행	
45	사전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동곡천)		
46	김전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동곡천)		
47	갈지리지석묘군	4	곡간평야지대(동곡천)		
48	소천리지석묘군	3	곡간평야지대(부일천)		
49	소천리지석묘①	1	곡간평야지대(부일천)		
50	소천리지석묘②	1	곡간평야지대(부일천)		

연번	유적명	확인 기수	입 지	특 징	비 고
51	임당리지석묘군	10	곡간평야지대(동창천)		이동가능성있음
52	임당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동창천)		
53	신지리지석묘군①	2	곡간평야지대(동창천)	하천방향과 동일방향으로 2열 진행	
54	신지리지석묘군②	13	곡간평야지대(동창천)	상석에서 성혈확인	
55	신지리지석묘군③	2	곡간평야지대(동창천)		
56	오봉리지석묘군	6	곡간평야지대(동창천)		
57	동산리지석묘군	2	구릉말단부(관하천)		
58	동산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관하천)		
59	북지리지석묘군	7	곡간평야지대(동창천)	상석에서 성혈확인	이동가능성있음
60	온막리지석묘군	2	곡간평야지대(동창천)		
61	온막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동창천)	상석에서 성혈확인	
62	내리지석묘	1	곡간평야지대(동창천)		

청동기시대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입지지형은 크게 평지, 구릉, 고갯마루, 산기슭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¹⁹⁾ 청도지역의 지석묘는 크게 평지와 산기슭(구릉말단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청도지역의 지석묘들은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동지역의 동창천, 산서지역의 청도천과 그 지류에 의해 형성된 충적평야지대 또는 곡간평야지대에 군집을 이루며 입지하고 있다. 하천주변에 형성된 평지에서 지석묘가 확인되는 것은 당시 사회가 농경지나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그들의 주거영역을 마련하고 그와 가까운 곳에 무덤을 조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천과 그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지석묘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진라리유적의 경우도 다로천과 그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청도천과 합류하는 곳에 신당리지석묘군이 위치한다. 풍각천과 청도천의 합류지점의 넓은 충적 평야지대에 위치한 흑석리지석묘군, 차산리지석묘군은 진라리유적과 유사한 지석묘의 입지양상이 확인된다. 이들 지석묘들은 하천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1~2열의 열상의 지석묘군이 확인되며, 열상의 지석묘군과 일정 거리를 두고 2기 이상 군집을 이루거나 1기 단독으로 지석묘가 확인되기도 한다.

산기슭에 입지하는 지석묘는 유등리지석묘군과 칠성리지석묘군③, 동산리지석묘군 등 3개소이다. 이들 지석묘는 주변 지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의 정상이라기 보다는 평지와 연결되는 나지막한 구릉의 평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평야지대에는 지석묘들이 입지하고 있다. 입지상 다른 지석묘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변의 지석묘에 비해 입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하천 또는 소하천들의 연안에 형성된 평야지대에 군집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는 것은 청도지역 지석묘의 입지와 분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며, 이와 같은 특징은 인접한 대구나 경산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구지역의 경우도 대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신천변 주변에서 지석묘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산지역도 지석묘들이 대부분 하천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19) 이영문, 1987, 「전남지역 지석묘의 성격-분포 및 구조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20.

2. 분포

청도지역의 지석묘는 1기 또는 수십기씩 일정한 범위에 무리지어 있고, 대체로 4km범위내에 15개의 군집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지석묘 군집은 분포 수에서 차이를 보며, 청도천과 동창천의 하천 하류로 갈수록 지석묘의 분포수가 많으며,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다. 다로천을 따라 분포하는 진라리 지석묘군, 무등리 지석묘군, 원정리지석묘군이 9~15기 정도가 확인되며, 청도지역의 산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청도천에 위치한 범곡리일대의 지석묘군은 1.2km범위내에 60기이상의 지석묘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지석묘 축조집단의 규모나 세력의 우열 또는 축조기간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하천에 인접해서 형성된 지석묘 축조집단보다 청도천이나 동창천과 같은 큰 하천 주변에 형성된 지석묘 축조집단이 더 우위의 거점집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청도지역 지석묘에서 확인되는 하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1~3열의 열상의 지석묘 배치는 무덤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벨트’ 처럼 늘어선 형태이다. 진라리유적에서 주거지군의 가장 외곽쪽에 다로천과 동일한 진행방향으로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청도지역의 다른 군집형태의 지석묘군들중 합천리지석묘군①, 범곡리지석묘군①, ②, 유등리지석묘군, 흑석리지석묘군②, 지촌리지석묘군, 봉하리지석묘군②, 마일리지석묘군③, 소천리지

〈표 3〉 청도지역 지석묘 소밀집군

연번	유적명	지석묘 분포범위	입지	비고
1	무등리지석묘군(8), 무등리지석묘(1)	0.7km	다로천	
2	원정리지석묘군①(5), 원정리지석묘군②(5), 월곡리지석묘군①(2), 월곡리지석묘군②(3)	1.6km		
3	진라리지석묘군(10)	0.5km		
4	유등리지석묘군(8), 유등리지석묘(1)	0.4km		
5	흑석리지석묘군①(2), 흑석리지석묘군②(9), 흑석리지석묘(1), 차산리지석묘(1)	0.4km	풍각천	
6	유호리지석묘군(4), 유호리지석묘①(1), 유호리지석묘②(1)	0.8km	청도천	
7	합천리지석묘군①(12), 합천리지석묘군②(6), 합천리지석묘(1), 범곡리지석묘군①(12), 범곡리지석묘군②(22), 범곡리지석묘군③(6), 송북리지석묘군①(3), 송북리지석묘군②(2), 놀미리지석묘①(2), 놀미리지석묘②(1)	1.2km		
8	철성리지석묘군①(6), 철성리지석묘군②(3), 철성리지석묘군③(2), 화리지석묘군(10)	0.8km		
9	신당리지석묘군①(9), 신당리지석묘군②(3), 신당리지석묘군③(2), 신당리지석묘군④(2)	0.9km		
10	지촌리지석묘군(10)	0.1km	마일천	
11	봉하리지석묘군①(31), 봉하리지석묘군②(10), 봉하리지석묘(1)	1.5km		
12	마일리지석묘군①(8), 마일리지석묘군②(8), 마일리지석묘군③(7)	1.2km		
13	사전리지석묘(1), 김전리지석묘(1), 갈리지석묘군(4)	3.5km	동곡천	
14	소천리지석묘군(3), 소천리지석묘①(1), 소천리지석묘②(1)	1.4km	부일천	
15	임당리지석묘군(10), 임당리지석묘(1), 신지리지석묘군①(2), 신지리지석묘군②(13), 신지리지석묘군③(2)	2.1km	동창천	

지석묘군② 등에서 10개 이내의 지석묘들이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단일지역에 많은 지석묘가 열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계획성을 가지고 지석묘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석묘의 열상배치의 기능은 첫째, 무덤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무덤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묘구확장 및 무덤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기념물로서의 기능이다. 무덤이 열상으로 늘어선 무덤들이 群狀으로 배치된 무덤군보다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는 무덤을 더욱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²⁰⁾

청도지역 지석묘의 분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상석의 위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석묘의 하부 매장시설이나 부석 등에 대한 상세한 특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석은 지석묘의 외형적인 구조상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분묘의 표식적인 효과를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석의 규모와 형태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두께 50~65cm 정도의 편평석과 다른 하나는 두께 90~140cm 정도의 입체석이다. 전자는 중량이 가볍고 운반이 용이한 점이 있는 반면 분묘의 표식효과는 적은 편이다. 후자는 전자와 반대로 운반상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분묘의 표식효과는 매우 크다.²¹⁾ 청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 방형의 입체석이나 편평석이 모두 확인되며, 한 지석묘 집단내에서 입체석 또는 편평석의 상석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지석묘의 상석에서 성혈이 1~2개 또는 수십개가 확인되기도 한다.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에서는 성혈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원정리지석묘군①·②, 신지리지석묘군③, 동산리지석묘군, 북지리지석묘군, 온막리지석묘군, 온막리지석묘의 상석에서 성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석묘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산리, 봉기리, 화산리의 청도천의 지류에서 확인되는 큰 바위에 성혈이 새겨진 바위그림도 확인된다. 지석묘 상석에서 성혈이 확인되는 것은 의례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며, 지석묘는 무덤의 기능 이외에 지석묘 축조집단의 신성한 모임의 장소나 제단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취락내 구성 관계

지석묘와 같은 무덤군이 입지하는 곳은 지석묘와 인접한 곳에 생활하는 공간과 생산하는 공간이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의 취락영역을 형성한다. 진라리유적에서 지석묘는 취락의 가장 남쪽과 동쪽 외곽에 배치되어, 주거지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석묘가 취락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취락의 외곽에 축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주거공간과 매장공간에 대한 철저한 분리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석묘의 배치양상도 벨트상으

20) 尹昊弼, 2000, 「銅劍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하인수는 지석묘의 구조적인 발달 과정상에서 본다면 중량이 가볍고 납작한 편평석에서 점차 육중하고 두꺼운 입체석으로 변해 갔을 것으로 상정하였다(河仁秀, 1992, 「嶺南地域 支石墓의 型式과 構造」 『伽倻考古學論叢』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그러나 인접한 1호, 2호 지석묘에서 확인되는 상석이 각각 입체석과 편평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단순하게 상석의 형태만으로는 시기를 상정할 수 없다.

로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열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에 있어 지식묘 조성에 계획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지식묘들은 몇기씩 군집을 이루어 열상으로 확인되는 것과 한기씩 단독으로 주거지군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향에서 원형주거지까지 중복되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진라리유적은 오랜기간 취락이 입지하고 있었다. 주거지집단과 지식묘축조집단과의 관계는 출토된 유물로 보아 말각(장)방향과 원형주거지가 축조되었던 송국리유형 단계로 판단되나, 지식묘간의 시기차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진라리유적내 지식묘의 위치로 보아 1기씩 단독으로 확인되는 지식묘는 유적의 북쪽에 밀집한 말각(장)방향주거지와 원형주거지 밀집군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또한 유적의 아래쪽에서 확인되는 지식묘는 열상으로 확인되며, 타원형수혈에 양주혈이 위치하는 원형주거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말각(장)방향주거지와 원형주거지내에서 확인되는 내부시설을 통해 볼 때 타원형수혈에 양주혈이 확인되는 주거지가 원형수혈에 양주혈이 확인되는 주거지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와 지식묘의 입지적인 양상만을 본다면 유적의 남쪽의 열상의 지식묘군이 단독으로 위치한 지식묘보다는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말각(장)방향주거지와 원형주거지의 어느 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묘들의 축조집단은 하나이나 한 곳에 累代로 거주하지 않고 이동함으로써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²⁾

최근 이같이 주거지와 지식묘가 한 취락내에서 동시에 발굴조사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식묘와 주거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종규²³⁾는 송국리형주거지와 묘지와와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청도 진라리유적을 주거중심형의 묘지·주거지동위형에 분류하였는데, 주거영역의 일정범위에 묘지가 위치해 있고, 그 주위에 생산지가 있는 형태이다. 진라리유적에서는 생산유적인 경작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적의 서쪽으로 지식묘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현재 확인되는 유구들이 당시 유적전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작지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같은 지식묘의 분포범위는 각 지식묘 축조집단들의 생활 활동영역의 범위를 시사해 주고 경계 표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묘군이 진라리유적과 유사한 입지와 배치양상이 확인된다면 이들 지식묘군 주변에는 주거지군과 논, 밭 등의 생산유구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하천과 인접하여 생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지식묘군과 주거지군이 함께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농경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도 진라리유적 취락구성에 있어서 지식묘가 주거영역의 외곽지역에 일정한 범위내에 분포하

22) 지식묘들이 비교적 근거리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소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현상은 첫째, 군집된 묘들의 축조집단이 달랐을 가능성, 둘째, 묘들의 축조집단은 하나이나 한 곳에 累代로 거주하지 않고 이동함으로써 발생되었을 가능성, 셋째, 이곳에 정착하던 집단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다른 집단이 들어와 살면서 묘를 축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성이 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金廣明, 2003, 『嶺南地方의 支石墓社會 豫察』 『영남고고학』 33)

23) 주거지군과 열상의 지식묘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L.H.모간의 이로퀴이族의 매장품습(북미인디언사회에서는 夫婦일지라도 출자를 달리할 경우 공동묘지의 다른 列에 소속되며, 각 열은 모계원리에 의해 구성된다)에 대한 기록에서 참고자하였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양산 소토리 송국리문화집락』 V. 고찰).

고 있는 점을 간안한다면, 청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군 주변에도 취락이 입지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변의 지석묘군 분포양상과 비교하면 진라리 지석묘를 조성한 집단은 청도천의 지류인 다로천유역 일대를 생활영역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지석묘에서 보이는 상징성

1. 입지적 측면

청도지역의 지석묘의 입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하천과 하천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충적지의 넓은 평야지대나 하천을 낀 산악지대의 협곡평야지대에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다. 전망상으로 보면 뒤에는 산을 등지고 있으며, 지석묘의 앞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지석묘의 분포에 있어서 하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1~3열의 열상의 지석묘 배치가 확인된다. 이러한 지석묘의 축조입지와 분포양상은 지석묘가 무덤으로서의 공간적 조건은 물론 지석묘 축조집단의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범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진라리유적과 같이 다로천 등의 소하천에 인접해서 형성된 지석묘에 비해 청도천이나 동창천과 같은 큰 하천 주변에 형성된 지석묘는 수적으로 더 많은 지석묘가 확인되며, 분포양상에서도 밀집된 양상이며, 열상의 정형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큰 하천 주변에 형성된 지석묘 집단이 하천 지류에 형성된 지석묘 집단보다 더 우위의 거점집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열상의 지석묘의 배치양상은 청도지역 인근의 다른 지역의 지석묘에서도 확인된다. 청도천과 동창천이 합류하여 흐르는 밀양강유역의 밀양 가인리유적²⁴⁾에서도 확인되며, 대구 상동 지석묘유적²⁵⁾, 이천동 지석묘군²⁶⁾은 신천을 따라 하천과 동일한 방향으로 지석묘가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구 시지동 지석묘 I 도 금호강의 지류인 매호천과 인접해서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지석묘가 하천과 인접해서 위치한다는 점은 水系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천과 인접하여 생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입지지형으로 볼때 지석묘 축조인들은 그들의 생활 활동 지역과 밀접한 곳을 선택하여 생활근거지 가까운 곳에 지석묘를 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지석묘와 같은 묘역공간과 인접하여 주거공간, 생산유적(논, 밭)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석묘군이 하천 주변에 입지하고, 주변에 생산유적이 있을 가능성을 통해볼 때 지석묘는 농경사회의 기념물²⁷⁾로서 한 공간을 오랜 시간 점유하면서 의례의 수행이 반복되어 그 역할과 의미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혈연, 경작지와 활동영역, 공동의 의례수행 등을 통해 집단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온 농경사회의 주민들에게 지석묘군은 다른 어떤 시설물 보다도 중요한 사회적·이념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24) 밀양대학교박물관·(사)경남고고학연구소·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2004, 『佳仁里遺蹟-밀양 산내 우회도로 축조공사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25) 대구박물관, 2000, 『대구 상동지석묘』.

26) 영남대학교박물관, 2002, 『대구 이천동 지석묘』.

27) 이성주, 1999, 「마. 지석묘: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Ⅰ)』,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2. 의례적 측면

지석묘는 무덤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작지나 영역을 나타내는 경계표시로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과 권위가 강화되는 제의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 청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상석에는 1개~2개 또는 수십개의 성혈이 새겨진 것이 확인된다. 지석묘 상석에 나타나는 성혈 등은 지석묘 유구 외부에 나타난 의례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석묘 상석에 성혈이 새겨진 것에 대한 해석²⁸⁾은 난생신화나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었다. 최근에는 별자리를 표시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석묘 축조집단이 별자리 같은 자연현상의 관측을 통하여 농경활동과 관련된 의례행위의 시기, 혹은 작물의 파종기나 수확기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의도로 별자리를 새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군 중에서 일정범위내에 서로 인접해서 지석묘가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 예도 확인된다. 무등리 지석묘군, 원정리지석묘군^②는 지석묘가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 예로 확인되며, 마을의 지명이 칠성마을로 불리는 것도 지석묘의 배치형태가 북두칠성의 모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도 인근의 대구 진천동 입석유적과 밀양지역의 살내유적(1호 제단지석묘)과 밀양 산동유적(1호 지석묘, 4호 지석묘)의 지석묘에서 암각화가 확인된다. 암각화가 확인되는 유적은 하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서 주거지군이 확인되는 점 등이 청도지역의 지석묘에서 성혈이 확인되는 지석묘와 비슷한 입지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도지역의 지석묘 중 성혈 이외에 암각화가 새겨진 지석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석묘에 대한 발굴예가 적으므로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성혈과 같은 암각화는 당시 주민의 제의와 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성혈을 비롯한 암각화는 단시간에 걸쳐 행해진 의례유적이라기 보다는 농경과 관련한 마을 전체의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집단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V. 맺음말

청도지역의 지석묘는 청도천, 동창천과 같은 하천과 그 지류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의 평야지대나 곡간 평야지대, 구릉말단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적지의 평야지대나 곡간 평야지대에서 지석묘가 확인되는 것은 水系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지형으로 볼 때 생산유적, 주거공간이 묘역공간과 인접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천의 하류로 갈수록 지석묘의 분포수가 많으며, 정연한 군집형태를 이루고 좁은 소하천에 인접해서 형성된 청동기시대 지석묘 집단보다 청도천이나 동창천과 같은 큰 하천 주변에 형성된 지석묘 집단이 더 우위의 거점집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청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는 청도 주변의 대구, 밀양의 지석묘에서도 유사한 지석묘의 입

28) 유태용,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지와 분포양상이 확인되며, 성혈 이외에 암각화가 새겨진 지석묘가 확인되는 점은 수계와 관련한 주변지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좋은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권구, 1999, 「다. 경상북도」『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Ⅱ)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 김광명, 2001, 『大邱·慶山地域 支石墓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嶺南地方의 支石墓社會 豫察 -大邱·慶山을 中心으로-」『영남고고학』33집.
- _____, 2003, 「경북지역의 지식묘」『지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 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무덤과 祭祀」『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승욱, 2006,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金 賢, 2005, 『嶺南地域 無文土器時代 무덤에 대한 研究 -前·後期를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6, 「慶南地域 青銅器時代 무덤의 展開樣相에 대한 考察」『嶺南考古學』39, 영남고고학회.
- 손준호, 2007, 「마제석축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嶺南考古學』62, 영남고고학회.
- 朴達錫, 2003, 「淸道 陳羅里遺蹟의 支石墓에 대하여」『嶺南文化財研究』16.
- 沈奉謹, 1989,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대한 研究 -韓國 磨製石劍과 關聯하여-」『嶺南考古學』6, 영남고고학회.
- 안재호,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俞泰勇, 2003, 『韓國 支石墓 研究』, 주류성.
- 尹昊弼, 2000, 『銅劍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에 關한 研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相吉, 1994, 「支石墓의 葬送儀禮」『고문화』 제45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_____,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 _____,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關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경남의 지식묘」『지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이영문, 1999,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墓制 研究의 諸問題」『湖南地域의 青銅器文化』 제7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 全榮來, 1982, 「韓國磨製石劍·石鏃에 關한 研究」『馬韓·百濟文化』제4·5집,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趙鎭先, 1997, 「지식묘의 입지와 장축방향 선정에 대한 고찰」『호남고고학보』6, 호남고고학회.
- 崔夢龍·金仙宇, 2000, 『韓國 支石墓 研究 理論과 方法 -階級社會의 發生-』, 주류성
- 河仁秀, 1992,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의 編年」『영남고고학보』 10집.
- _____, 1992, 「嶺南地方 支石墓의 型式과 構造」『伽倻考古學論集』,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_____, 2002, 「南江流域 無文土器時代の 墓制」『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후루카도 마사타카, 2002, 「古代日本(九州)의 支石墓」『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보고서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泗川 梨琴洞遺蹟』.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양산소토리송국리문화집락』.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密陽 新安 先史遺蹟』.

경북대학교, 『淸道 大川里 · 蓴池里 支石墓』.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4·5공구)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 -청도 송읍리 · 유희리 · 내호리유적-』.

계명대학교박물관, 2006, 『金泉 松竹里遺蹟 I』.

국립대구박물관, 2000, 『대구 상동지석묘』.

밀양대학교박물관 · (사)경남고고학연구소 ·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2004, 『佳仁里遺蹟-밀양 산내 우회도로 축조공사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영남대학교박물관, 2002, 『대구 이천동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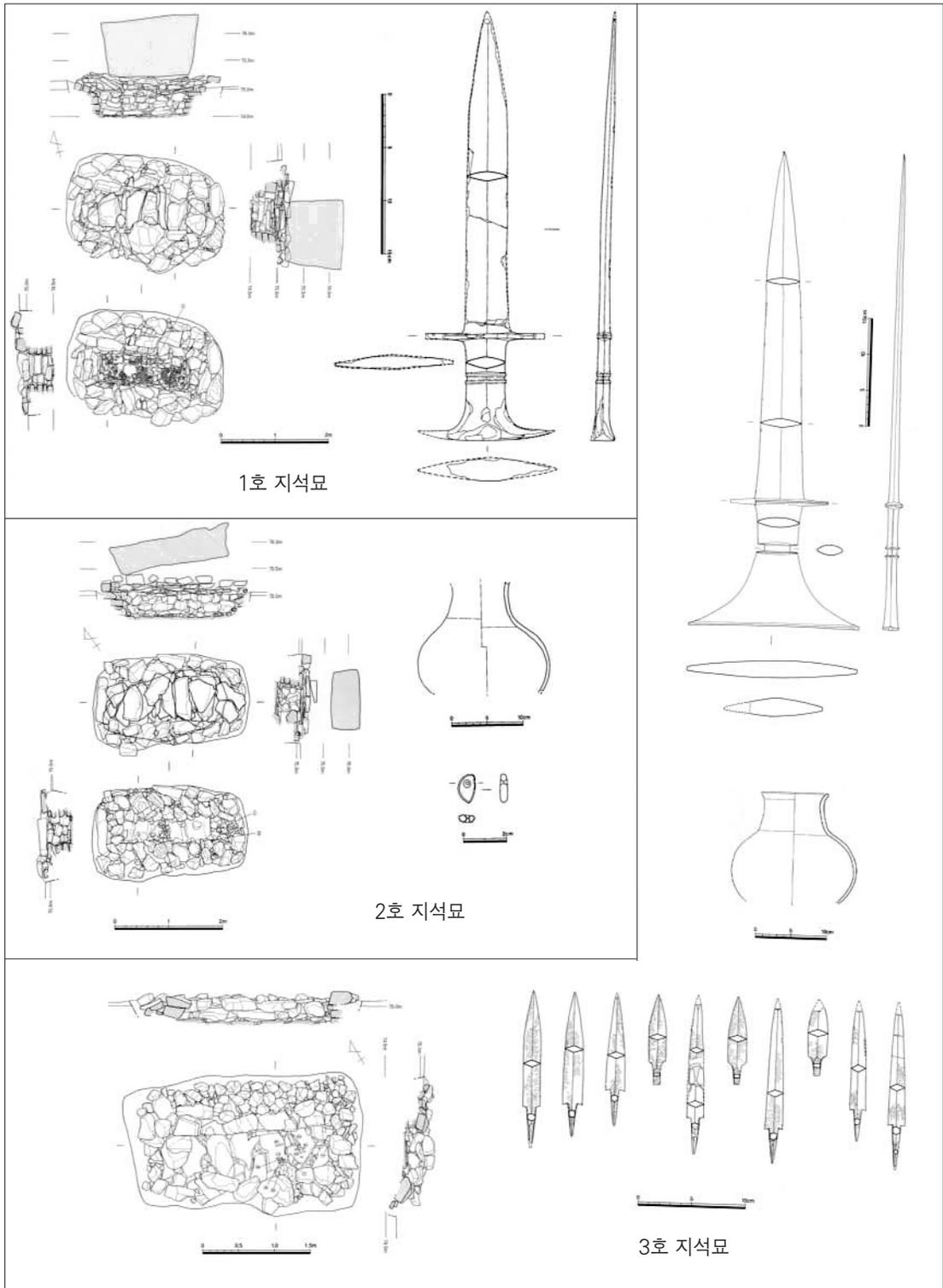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淸道 陳羅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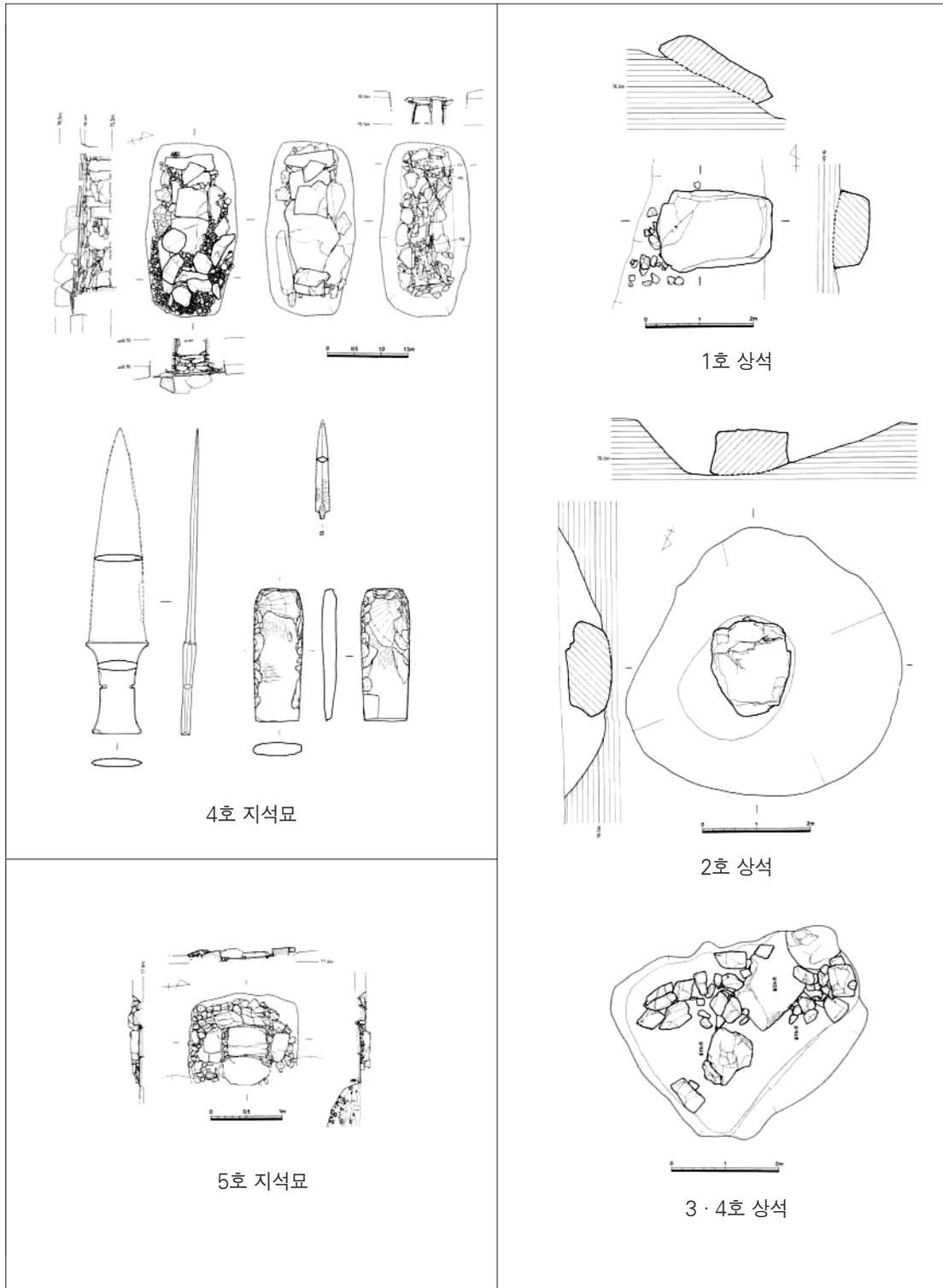
〈도면 1〉 청도지역 지석묘 분포지도



〈도면 2〉 청도 진라리유적 및 주변유적분포도(S=1:50,000)



〈도면 3〉 청도 진라리유적 1·2·3호 지석묘



〈도면 4〉 청도 진라리유적 4·5호 지석묘, 1·2·3·4호 상석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에 대한 토론

김광명(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지역은 지형을 고려하면, 북쪽은 팔조령과 남성현재 등 험준한 산지를 통해 각각 대구·경산과 연결되고, 남쪽은 청도천변을 따라 밀양지역과 연결되고 있다. 즉 북쪽은 험준한 산지로 인해 막혀있고, 남쪽은 청도천변의 곡간을 통해 남부지역과 통교했다고 볼 수 있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청도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던 차에 발표자의 글을 읽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코자 한다.

1. 제Ⅱ장 청도지역의 지식묘 검토에서 청도지역의 지식묘를 소개하면서 대구 상동지석묘, 경산 삼성리지석묘, 밀양 신안유적도 함께 검토하였다. 청도지역을 제외한 이들 유적이 청도의 지식묘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2. 진라리 지식묘의 축조연대에 관한 문제이다. 발표자는 진라리유적의 주거지와 지식묘의 관계를 상호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1호, 19호, 22호, 64호, 93호 주거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19호와 64호주거지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를 하인수 분류 전형단도마연토기 I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무문토기시대 전기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반면 진라리지석묘의 축조시기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형주거지가 축조될 시점이나 그 이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19호, 64호주거지와 지식묘는 어떤 관계인가.

3. 진라리지석묘를 축조한 집단은 청도천의 일지류인 다로천유역 일대를 장악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진라리유적 일대를 생활영역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다로천유역권을 관장하던 지식묘 집단은 어디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진라리지석묘집단의 생활영역은 어디까지로 추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큰 하천 주변에 형성된 지식묘집단이 지류역에 형성된 지식묘집단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거점집단이었다고 하는데, 단지 지식묘의 수량만 가지고 비교우위를 논하는 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닌지. 한편으로 거점집단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거점집단과 이보다 하위집단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4. 다음 지식묘 입지의 문제이다. 발표자는 청도지역 지식묘의 입지를 크게 평지와 구릉으로 구분하였다. 구릉상 입지를 유등리지석묘를 비롯하여 3개소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구릉상 입지

라기 보다는 나즈막한 구릉의 말단부이니까 오히려 선상지의 선양부나 선단부가 아닐런지. 또 평지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이를 세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

5. 발표자는 지식묘의 입지와 분포양상은 지식묘 축조집단의 생활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는데, 선사시대나 지금이나 과연 무덤영역이 생활영역과 일치할 수 있는가.

이상 발표자의 논고를 읽고 토론자가 평소에 생각하던 몇 가지를 적어 보았다.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영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淸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

유병록(우리문화재연구원)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유적 편년과 그 위치 |
| II. 유구 선후관계에 의한 각 유물의 분석 | 1. 진라리유적의 편년과 유물간의 상대적 편년 |
| 1. 유구의 중복관계 확인 및 유물출토 경향 | 2. 영남지역에 있어서의 진라리유적의 위치 |
| 2. 土器 | IV. 맺음말 |
| 3. 石器 | |

I. 머리말

199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유적조사 결과 90년대 후반기부터 뚜렷해진 청동기시대의 연구 경향 중 하나는 단순한 유물, 유구 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의 연구사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중서부지방(유병린 2001; 이형원 2002; 황은순 2003; 이진민 2004; 김장석 2006), 강원도 지방(최종모 1998; 박영구 2000; 김권중 2005), 호남지방(김규정 2000), 영남지방(동진숙 2003; 김권구 2005) 등 지역권으로 나누어지던 연구대상이 이제는 울산지역(배진성 2005; 현창호 2005)과 같은 좀 더 세분된 지역권이나 북한강(김권중 2005), 금강(호남고고학회 2006), 남강(고민정 2003) 같은 자연지리적 분류에 의한 권역으로까지 옮겨지게 되었다. 나아가 다시 지역권내에서의 특정한 유구나 유물의 분석연구(김광명 2001; 조현정 2001; 공민규 2005; 이수홍 2005; 김현식 2006; 공봉석 2006)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의 이면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성행한 국토개발로 인해 발굴조사가 늘어남과 동시에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등의 자료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발표회 역시 그러한 과정 중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청도 진라리유적은 수 많은 영남지방의 유적권을 크게 대구·북부권, 남강·남해안권,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¹⁾, 특히 대구권과 남강·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라리유적이다. 진라리유적의 북쪽으로는 경산을 통해 대구 혹은 영천, 경주로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송읍리유적과 함께 밀양을 거쳐 서쪽으로는 남강권으로, 동남쪽으로는 김해나 양산

1) 배덕환은 영남지방유적을 크게 남강유역과 태화강유역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배덕환 2005). 그러나 그도 인정하듯이 금호강 하류이자 낙동강 중류역에 해당하는 대구권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이어서 영남지방을 모두 아울렀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으로 연결된다.²⁾ 더군다나 진라리유적에서는 (類似)이중구연토기(김병섭 2003)가 출토되는 위석식의 세장방형주거지에서부터 송국리형주거지까지 모두 93의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어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영남지방에서 볼 수 있는 주거형태나 유물들을 거의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근래 들어 안재호의 송국리문화 청동기시대 후기론(안재호, 2006)의 영향으로 갑자기 이 시대의 주된 논쟁거리였던 시기구분문제가 일단락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의 학회(호서고고학회 2007)에서 송국리문화 후기론이 대세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³⁾ 따라서 이번 발표 역시 이러한 현재의 연구성과를 재분석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물의 편년이라는 것은 결국 형식분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시간적 선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유구간 중복관계일 것이다. 이는 유물과 유구를 서로 떼어놓고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이번 발표 역시 일차적으로 유구의 중복관계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후 상대편년적으로 분류된 유물은 주거형태 및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점과 나아가 청도 진라리 유적이 청동기시대 한반도 남부지방과 영남지방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Ⅱ. 유구 선후관계에 의한 각 유물의 분석

1. 유구의 중복관계 확인 및 유물출토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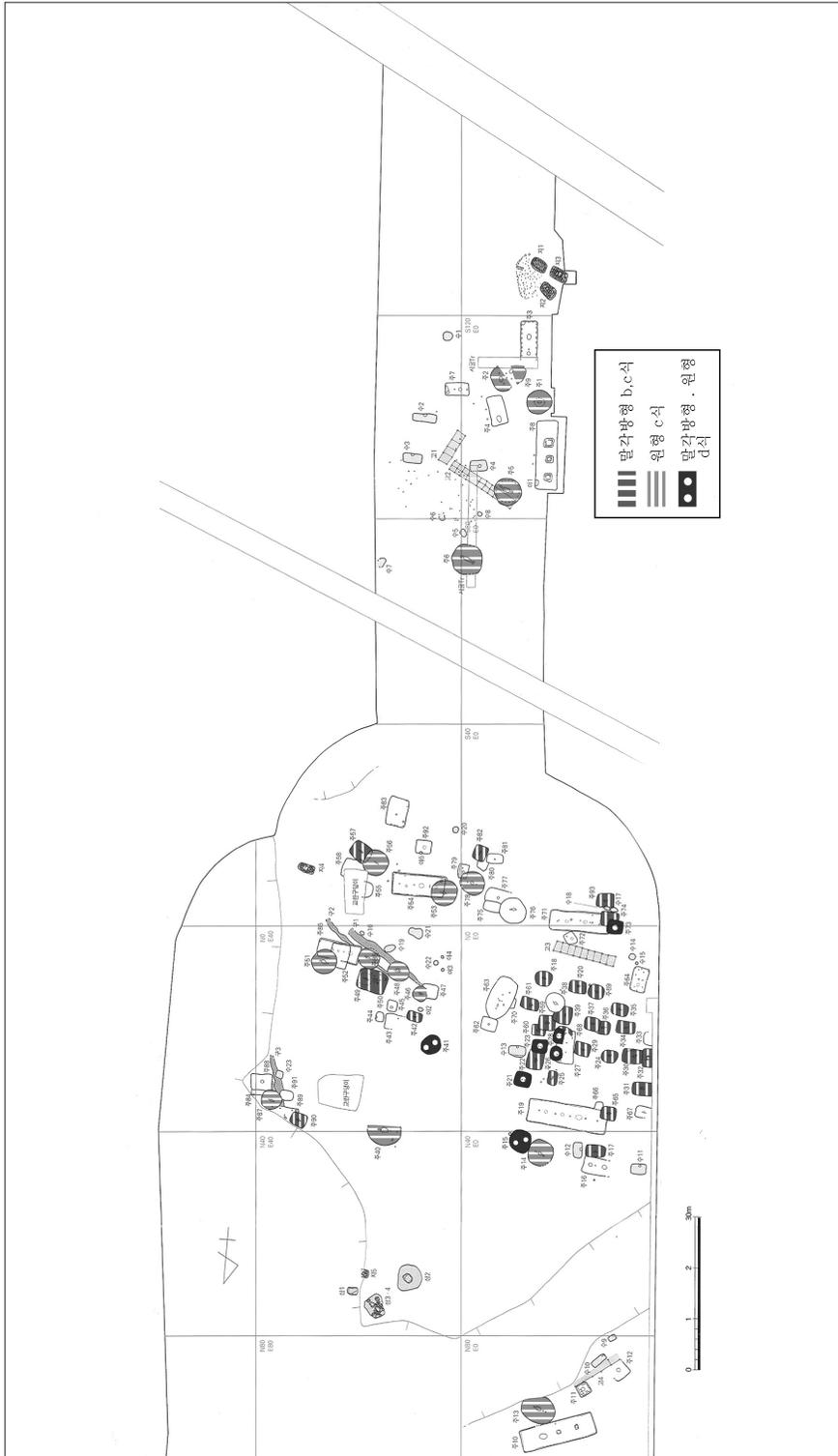
(1) 유구간 중복관계 확인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된 여러 유구 중 중복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은 수혈주거지들이다. 모두 93기가 조사되었는데,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원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중 세장방형은 8동, 장방형은 16동(노지 7동), 방형 10동(노지 7동), 송국리형으로 분류되는 말각방형과 원형은 각각 36동과 22동이다.

2) 경남과 경북지역을 이어주는 곳은 이곳 말고도 낙동강과 남강과 만나는 창녕지역에서 낙동강을 통해 연결되었겠지만 창녕이나 현풍지역으로는 아직 청동기시대 유적 조사가 최근의 사창리 지석묘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07)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성을 단정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3) 사실 송국리문화를 후기로 보는 견해는 이전에 이홍중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이홍중 1996). 직립구연의 공렬토기가 출토되는 시기를 전기로, 송국리식토기문화가 남부로 확산되는 때를 기점으로 후기로 보았는데 두 시기간의 획기는 도작농경집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조직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안재호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를 주체로 하는 시기를 早期로 따로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초기나 전기는 신석기시대 사회단계인 부족사회로, 후기는 계층(계급?)이 본격적으로 분화되는 군장사회(chiefdoms)로 2분하고 있다.

필자 역시 대구지역의 경우 송국리형단계를 중기로 설정한 적(유병록 2002)이 있으나, 대구경북권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집성(유병록 2005)하면서 동천동이나 동호동, 서변동 등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토되는 유적은 후기단계로 재설정 한 바 있다.



〈그림 1〉 송국리형주거지 단계의 평면형태별 배치도

이들 수혈주거지의 중복된 몇 가지 예를 들어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세장방형(86호)→장방형(52, 노지 없음)→원형(51호), 세장방형(19호)→방형(66호, 노지 유무 명확치 않음)⁴⁾→말각방형(65호), 방형(47호, 노지 없음)→원형(46호), 말각방형(57호)→원형(56호)과 같이 평면형이 다른 유구간 중복과 장방형(77호, 노지)→장방형(75호, 노지 없음), 말각방형(22호, c형:가운데수혈에 양 주혈)→말각방형(23호, d형:주혈만 2개)⁵⁾처럼 같은 평면형끼리의 중복관계도 확인된다.

이 같은 다수의 중복관계와는 별개로 세장방형은 서로 간 중복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방형과 방형간의 중복관계도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중복관계를 통해 보면 결론적으로 세장방형→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의 순서로 평면형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상은 이미 보고서 고찰자에 의해 <표 1>과 같이 선후관계가 제시(박달석 2005)된 바 있다.

<표 1> 진라리유적 수혈주거지 평면형의 변화상 (박달석 2005)

세장방형(Ⅰ 유형) → 장방형(Ⅱ 유형) → 말각(장)방형(Ⅲ 유형) → 원형(4Ⅶ 유형)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장방형과 방형과의 관계인데, 둘 사이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선후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고찰자가 제시한 바대로 세장방형과 시기를 같이 한 工房形주거지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방형이나 방형내에서도 노지의 유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장방형끼리의 중복 경우 노지가 없는 것이 더 후대인 경우가 있다.⁶⁾ 방형의 경우에는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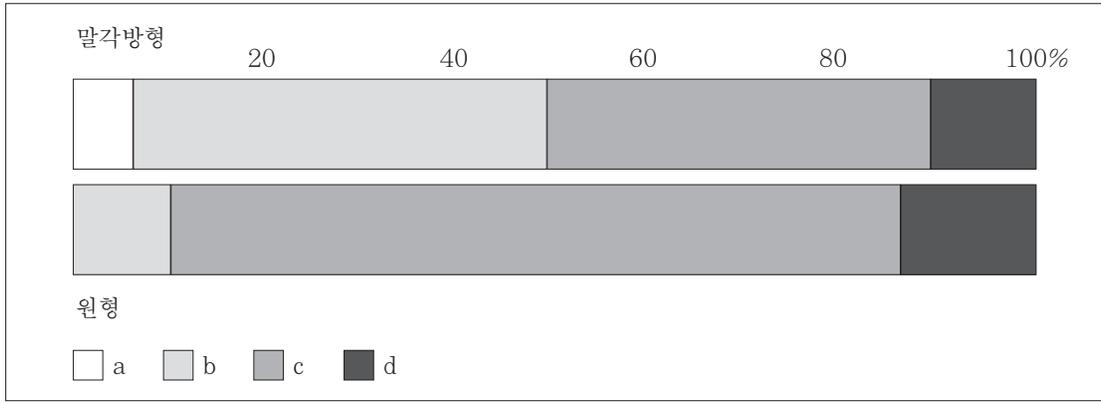
세 번째로는 송국리단계인 말각방형과 원형과의 관계이다. 이들은 내부 가운데수혈과 주혈과의 관계에서 a식(가운데수혈만 있는 경우)⁷⁾, b식(가운데수혈에 바로 연접하여 주혈 위치), c식(가운데수혈과 거리를 두고 주혈이 있는 경우), d식(가운데수혈 없이 주혈만 2개)順으로 변화되는 중복관계가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변화상을 말각방형과 원형단계를 반복해서 겪었을 것이냐는 것이다.

<표 2>와 <그림 2>에서도 보이듯이 말각방형은 b식과 c식이, 원형은 a식이 없는 반면 c식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의 주거지 배치에서도 보이듯이 말각방형은 b식과 c식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 반면, 원형의 c식은 이들의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4) 조사된 도면상으로 보면 66호가 절반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호보다 후대이고 내부 깊이도 5cm 정도 되기 때문에 내부가 온전히 다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인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말각방형끼리의 중복은 5예가 있다. 반면 원형의 경우 확실한 중복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2예 뿐이다(2-9호, 14-15호).
 6) 77호와 75호의 예 이외에도 84호와 88호(노지)의 예가 있으나 이 경우 84호에 노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7) 79호와 81호는 평면형태상 명확한 장방형계통이지만, 노지가 있었을 가운데에 원형 수혈이 있어 송국리 단계 주거지의 先驅形으로 보고 있다.

〈표 2〉 진라리유적 수혈주거지 평면형의 변화상(박달석 2005)

형식	말각방형(총 35동)		원형(총 21동)	
	동수	백분율(%)	동수	백분율(%)
a식	2	5.7	0	0
b식	15	42.8	2	9.5
c식	14	40.0	16	76.2
d식	4	11.4	3	14.3



〈그림 2〉 평면형태와 내부시설의 형식에 따른 점유율

이러한 배치는 서로를 의식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되며, 결국 말각방형 b식이 성행할 때, 원형 b식이 생겨나 특히 c식 단계는 말각방형이나 원형 모두의 주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다만 d식의 말각방형이나 원형 모두 수적으로 비슷하고 말각방형의 b식, c식과 중복한다는 것은 이들과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면형이 세장방형→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으로의 발생순서는 인정되지만 時期 역시 순서대로 똑같이 흘러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이다. 〈표 3〉과 같이 후기의 말각방형과 원형과의 동시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3〉 평면형태에 따른 시기구분(필자안)

시기	전기		후기			
	전반	후반	말·방 a식	말·방 b식	말·방 c식	말·방 d식
평면형태	세장방형	장방형·방형		원형 b식	원형 c식	원형 d식

8) 실제 주거기간 중복관계에서 27호(세장방형)-68호(말각방형)-28호(방형)/26호(원형)의 경우 68호는 평면형으로 보면 말각방형 보다는 원형에 가깝다. 이와 후대에 중복된 28호는 방형이면서 내부시설이 d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필자가 언급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유구간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고찰자가 분석한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자의 증거로서 본 유적의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이 그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 유구와 유물간 출토경향

일반적으로 송국리형단계에 오면 유물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진라리유적 역시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보고서 고찰에서도 언급된 대로 세장방형 8동에서 유물은 片을 포함하여 모두 146점, 장방형 16동에 55점, 송국리형단계인 말각방형 36동에서 70점, 원형 22동에서 88점이다. 상대적으로 보아 세장방형이 가장 유물 출토양이 많고 다음이 장방형, 원형, 말각방형 순이다. 이들 중 원형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점은 매몰토상에서 출토된 것이다.

세장방형 이 단계에서는 출토유물의 수량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가 양호한 토기의 빈도도 가장 높다(1개 주거지당 18점). 거기에다 토기의 경우 복합문, 단독문 등 문양이 다양하며 석기는 석부류가 많이 출토되었다. 복합문은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 새겨진 것, 여기에 구순각목이 더해진 것과 공열문에 X선이 새겨진 것 등이 있으며 단독문으로는 구순각목과 공열문이 있다. 석부류는 양인석부, 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등 종류별로 골고루 출토되었다.

장방형 이 단계에서는 세장방형 보다는 수량이 적어지나(1개 주거지당 3.4점) 다른 평면형 주거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 출토유물은 많은 편이다. 그러나 토기 문양은 공열토기 구연부편 한 점(4호) 밖에는 다른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머지 유물들은 대부분 무문양의 발형토기와 저부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79호⁹⁾처럼 내부에 노지 없이 중간에 원형수혈이 하나 있는 장방형주거지로서 여타 노지가 있거나 없는 주거지들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79호에서는 구순각목문에 유사이중구연 단사선문이 새겨진 것과 구순각목문이 수 점 출토되었다. 유물로 보아서는 세장방형 단계의 유물과 대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매몰토내 출토품으로서 이번 유물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형태를 전기단계의 장방형에 속해야 할지, 아니면 후기 단계에 송국리단계의 초기형으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방형 이 단계에 오면 유물은 더욱 귀해진다. 이 단계의 10동의 주거지에서 유물 중 토기류는 단 5점, 석기 4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량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주거지 숫자를 감안하면 너무 하다 싶을 정도이다. 보고서 고찰자가 '工房型주거지' 라고 명명하였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서는 어떤 의미의 '공방' 인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말각방형·원형 송국리형단계로서 유물들은 확인유구수에 비해 유물의 숫자가 상당히 저조하다. 말각방형의 경우 모두 36동에서 토기 44점, 석기 25, 기타 1점 등 모두 70점이고, 원형의 경우 22동에서 토기 58점, 석기 27점, 기타 3점 포함해 88점이었다. 둘을 합쳐 진라리유적의 반이 넘는 48동에서 토기 102점, 석기 52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류의 경우 完形의 유물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저부이며 석기류는 대개 미완성품이나 박편

9) 보고서 고찰자는 이 유구를 송국리형단계인 말각방형계통의 내부시설 a식(양 주혈 없이 가운데수혈만 있는)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같은 형식으로 설정된 81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다. 토기 중 문양이 있는 것은 원형단계의 1호(구순각목문)와 14호(이중점열문)의 두 점뿐인데 모두 매몰토출토품이고 淺鉢이 온전하게 두 점이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의 특징은 토기의 경우 원형주거지단계에서 파수가 달린 발형토기, 석기에서는 부리형석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파수가 달린 토기는 대개 영남지방의 경우 송국리형단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 부리형석기는 송국리형단계에 출현하는 대표적인 석기로서 석기에 대한 용도에 있어 여러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유병록 2006).

2. 土器¹⁰⁾

(1) 文樣

청동기시대 토기는 문양의 종류와 존재 유무에 따라 복합문, 단독문, 무문양으로 대별하고 이들은 상대적인 비중에 따라 복합문→단독문→무문양으로의 변화가 알려져 있다(배진성 2005; 이수홍 2005). 진라리유적의 경우에도 세장방형주거지 단계에서의 이중구연에 단사선문, 구순각목에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이 결합된 경우, 공열에 X선이 결합되는 등 3가지 정도의 복합문에 구순각목, 공열문 등의 단독문양이 보인다.¹¹⁾ 장방형단계에서는 단지 4호 출토의 공열토기편만이 인정된다.

방형주거지 단계에는 문양이 있는 토기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송국리단계인 말각방형과 원형에서도 (매몰토출토품을 제외하고)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라리유적에 있어서는 복합문→단독문→무문양으로의 변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¹²⁾

진라리유적 토기 중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경우 세장방형인 71호나 장방형 79호의 발형토기에서 보이는 이중구연은 退化이중구연 혹은 類似이중구연(김병섭 2003)으로서 단사선문이 있는 부분으로 약간의 덧붙인 부분이 있고 단이 지고 있다.¹³⁾ 이에 비해 세장방형인 3호의 구순각목 단사선문 토기의 경우 구순각목의 깊이도 알아지고 그 간격도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지면서 외면에 이중구연토기의 모양을 내던 횡상의 덧붙임이나 線이 없이 단지 단사선문만

10) 진라리보고서에는 다행히 출토유물의 경우 주거지 床面(바닥)출토품과 매몰토출토품을 구분하고 있다. 매몰토내출토품은 이전 시기 혹은 이후 시기의 유물들이 포함되어 편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유병록 2004). 더구나, 시기가 후대인 유구일수록 상대적으로 그 혼란은 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매몰토출토품은 유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진라리유적 유물의 특징으로 문양이 있는 토기는 모두 鉢形토기에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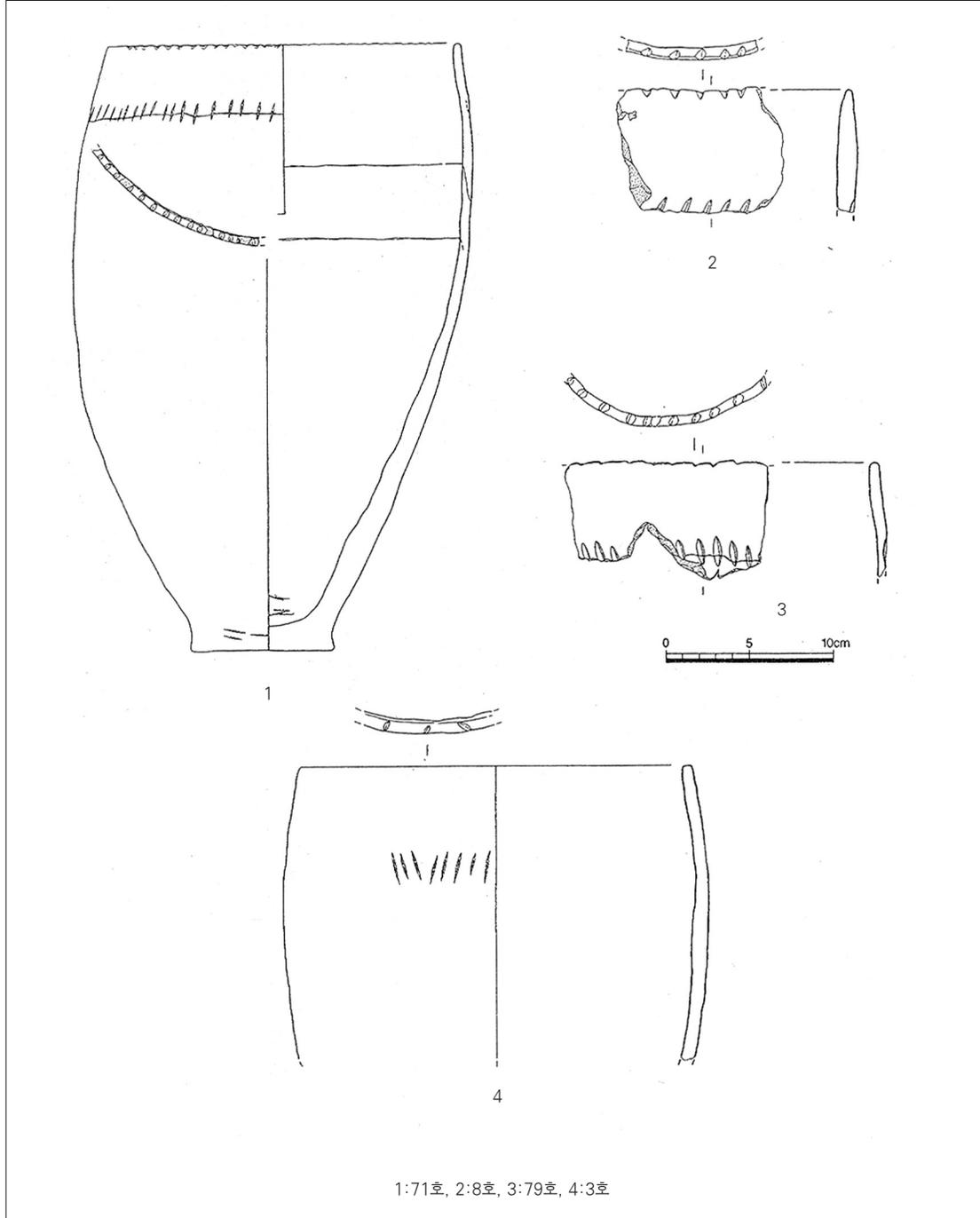
12) 김승옥은 단독문 중 공열문이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 가장 높은 출토율을 보이고 점차 감소하다가 역삼동 장방, 중형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비해 복합문인 구순각목공열문은 상대적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역삼동 세장방, 대형과 세장방, 중형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역삼동 장방, 대형 단계에서는 단독문의 비중이 높다가 역삼동 세장방, 대형과 세장방, 중형단계에서는 다시 복합문이 감소하고 단독문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단독문→복합문→단독문으로의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2006, 17쪽).

하지만 김승옥도 이중구연단사선문의 경우 청동기의 이른 시기인 가락동 장방, 대형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가 점차 이후로 갈수록 출토양이 빈약해지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진라리유적의 경우와 별다르지 않다. 참고로 진라리유적에서는 구순각목공열문은 출토되지 않았다.

13) 이중구연토기 변화에 대한 김병섭안의 모식도 중 4단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김병섭 2007).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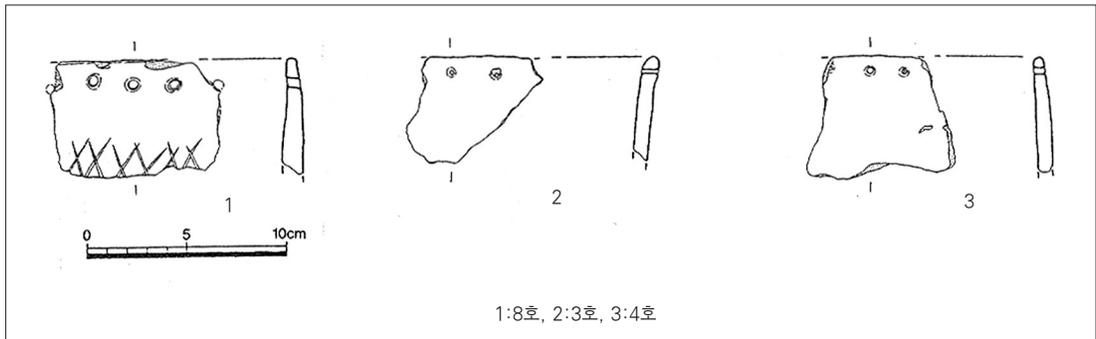
공열토기의 경우 모두 3점이 출토되었는데, 세장방형의 3호, 8호, 장방형의 4호에서였다. 도면상으로 보면 관통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견한 바에 의하면 외면에 구멍 주위에 떨어져



〈그림 3〉 이중구연 단사선문계통의 토기

나간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원래는 안→밖으로의 반관통이었는데 다소 깊이가 깊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공열토기를 편년하는 경우 관통한 것과 반관통한 것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 안에서 바깥으로, 혹은 바깥에서 안으로의 투공 방향에 따라 속성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열토기에 있어서 투공형태 및 방식에 따른 편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통일된 양상을 보여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반관통된 突留形에서 관통형으로 이행하는 쪽으로 보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지만(박순발 1999; 배진성 2003) 영남지방의 경우 반관통 중에도 유적에 따라 안에서 바깥으로 혹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관통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반드시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¹⁴⁾도 있다.



〈그림 4〉 공열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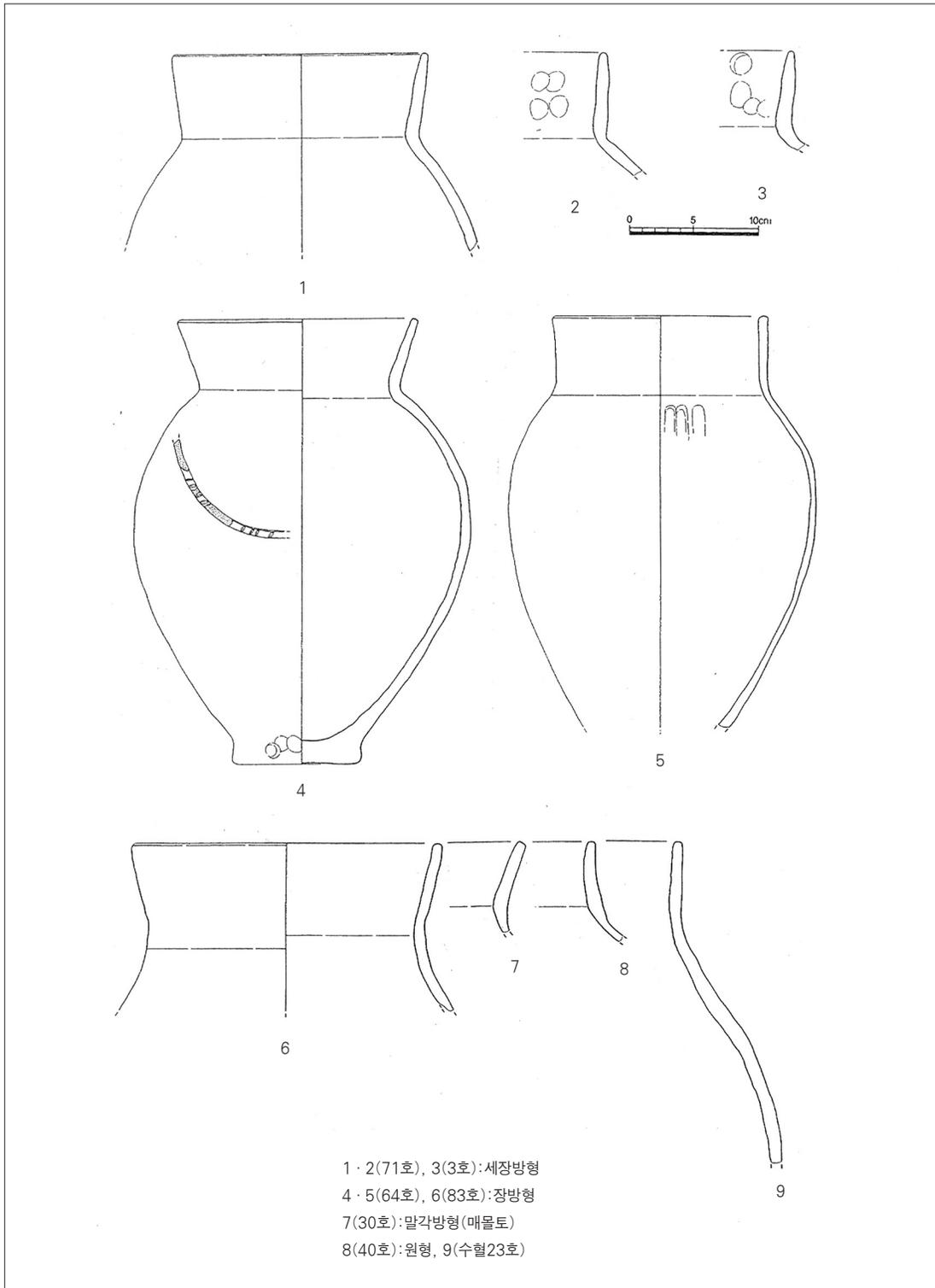
한편으로는 공열문의 돌류문 위치에 따라 시간성을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다(안재호·천선행 2004). 즉 돌류문의 위치가 구연부로 근접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전기단계의 경우 구연부에서 1cm 이상 내려오지만, 중기이후에는 점차 구연부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열토기의 구연단이 면을 이루고 구연부 두께가 기벽두께와 비교적 동일하며 돌류문의 외면 돌출이 명확한 것이 빠른 요소로 여기고 있기도 한다(천선행 2006).

진라리출토의 공열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면의 돌류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단, 천선행의 연구에 중심을 둔다면 구연부에서 공열 위치가 근접하고 있다는 점과 반관통의 형태라면 돌류문이 명확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요소와 늦은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2) 壺類

호류는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평면 말각방형인 30호는 매몰토상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제외한다. 호류에서 문양이 있는 것은 구순각목문이 새겨진 평면 장방형의 64호에서의 한 점 뿐이다.

14) 고민정(2003)은 공열문의 관통여부와 투공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반관통되어 안팎에 돌류를 형성하는 것과 돌류를 형성하지 않고 관통된 것을 주된 것으로 삼을지, 아니면 투공방향(안에서 혹은 바깥에서)을 중시할 것인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림 5〉 각 주거형태별 호형토기

호류는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직립구연이 외반구연으로, 長頸에서 短頸으로, 동최대경의 위치가 上方에서 中位로, 口脣部가 평탄한 것에서 둥근 형태로, 문양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의 방향이 제기(안재호 1995, 265쪽)된 것과 頸部와 동체부의 연결부분의 굴절도 등이 있다. 세장방향에서 출토된 3호와 71호의 출토품에서 보이는 것은 양상으로는 구연부의 경사도가 직립 혹은 외반하는 것으로서 시기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다만, 송국리형 단계의 유물이 40호와 수혈 23호¹⁵⁾의 각 한 점씩 해서 두 점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구순부의 형태에서 시기가 내려갈수록 오히려 볼록한 상태에서 평탄한 상태로 바뀌는 점이 일부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더 확실한 부분은 경부와 동체부의 연결부분의 굴절각도인데, 장방형단계까지는 경부와 동체부의 연결부분이 명확하게 꺾이는 점을 볼 수 있지만, 송국리형 단계인 40호 주거나 수혈 23호의 경우 두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지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진라리유적 호류의 경우에는 시간적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으로 경부와 동체부 연결부위의 굴절도라 할 수 있다.¹⁶⁾

또한 동체부의 최대경 위치 또한 또 하나의 속성으로 세장방향과 장방형 출토품과 비교가능한 것이 수혈 23호 밖에 없기 때문에 수적인 오류가능성이 있으나 일단은 동체부의 최대경이 전자의 경우 중상위인 반면 후자는 중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3) 鉢類

토기류 중 鉢形토기는 甕形토기와 구분의 애매모호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실제 보고서나 논문에서 발과 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¹⁷⁾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단 구연부와 동체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발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¹⁸⁾

발형내에서도 淺鉢과 深鉢의 구분도 문제가 된다. 대체로 口徑보다 器高가 낮은 쪽이 천발, 반대로 기고가 높은 쪽은 심발로 구분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¹⁹⁾ 이에 여기서는 천발을 제외한 나머지 토기는 발형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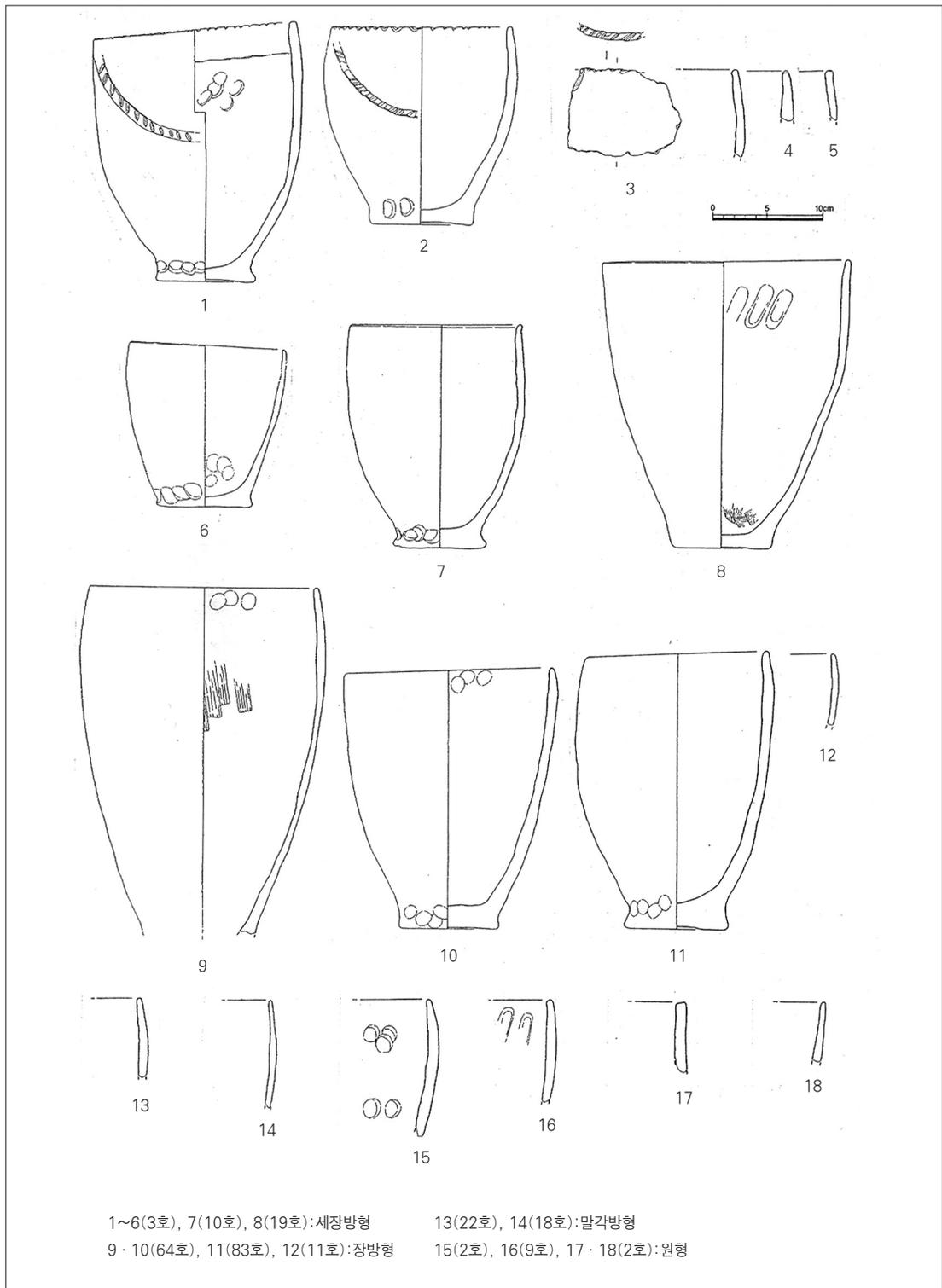
15) 수혈 23호를 장방형의 시기로 보느냐, 송국리형단계로 보느냐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일단 평면형태가 소형이면서 정말각방향에 가깝다는 점과 문양이 있는 토기편이 출토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16) 검단리의 경우 경부와 동체부와의 변화보다는 구연부가 더 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안재호 1995, 264쪽)

17) 검단리의 경우 호와 옹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없으나 각기 나누어진 유물로 보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가락동식 토기의 경우 높이를 통해 20cm기준으로 높은 것은 옹, 낮은 것은 발로 구분하고(공민규 2003), 송국리식 토기에 있어서는 18cm를 기준으로 옹과 발로 구분하기도(이홍종 1996) 하였다. 또한 구연부의 口徑과 胴最大徑간의 크기에서 전자가 크면 발(구경이 기고보다 큰 경우도 포함), 후자가 크면 옹으로 분류하기도(현창호 2005)하였다. 필자는 우정연의 분류(2002, 42쪽)와 같이 구연부와 동체부의 구분이 명확히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기형분류의 속성이라 판단하였다.

18)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편)에 '바리(鉢)는 최대경이 구연에 있으며 동체부에서 꺾임이 없이 곧장 구연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 器種의 분류는 반드시 형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구연이 내만하는 深鉢의 경우는 분류에 따른다면 甕이라 해야겠지만, 이것이 시간에 따라 구연이 직립에서 내경하는 쪽으로의 변천이라고 한다면 비록 甕 모양이라도 심발로 분류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분류와 형태적 분류에 따라 그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218쪽)라고 언급되어 있다.

19) 고민정(2003)은 남강유역 출토 토기의 경우에는 15cm를 기준으로 심발과 천발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림 6〉 각 주거형태별 발형토기

발형토기는 세장방형단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3호의 경우 높이가 최고 28.2cm(구연부 유실상태)에서 최저 11.3cm까지 1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한 유구내에서도 구연부의 기울기는 차이가 난다. <그림 6>처럼 내경에서 직립을 거쳐 외경하는 단계까지 볼 수 있으며 세장방형단계에서는 대체로 직립에서 약간 외경하는 정도이다. 장방형단계에서도 구연부의 기울기는 별다르지 않다. 64호의 경우는 세장방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국리단계인 말각방형과 원형단계에서는 발형토기 출토품이 매우 빈약해서 비교대상으로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구연단의 꺾임은 직립 혹은 약간 내경하고 외경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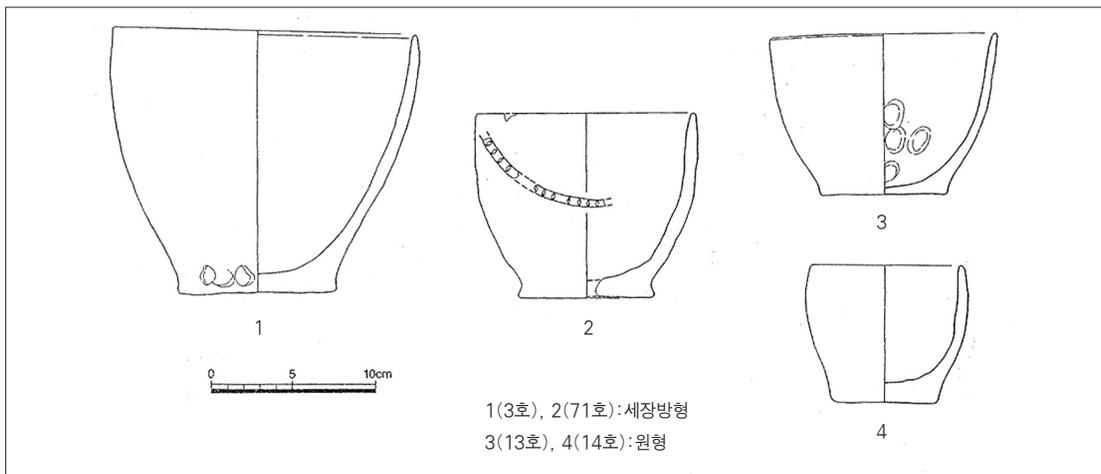
(심)발형토기의 형식변화는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에서 내경하는 형태로 변화한다(안재호 1995)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표 4>를 보면 세장방형단계에서만 개체수가 분석가능 할 정도인 반면 나머지 주거형태의 단계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개체수가 작다.

<표 4> 발형토기의 구연부 기울기와 주거형태에 따른 출토 개체수

구연부 기울기	세장방형 (n=20)	장방형 (n=5)	방형 (n=2)	말각방형 (n=4)	원형 (n=7)
외경	2	0	0	0	1
직립	15	2	0	3	4
내경	3	3	2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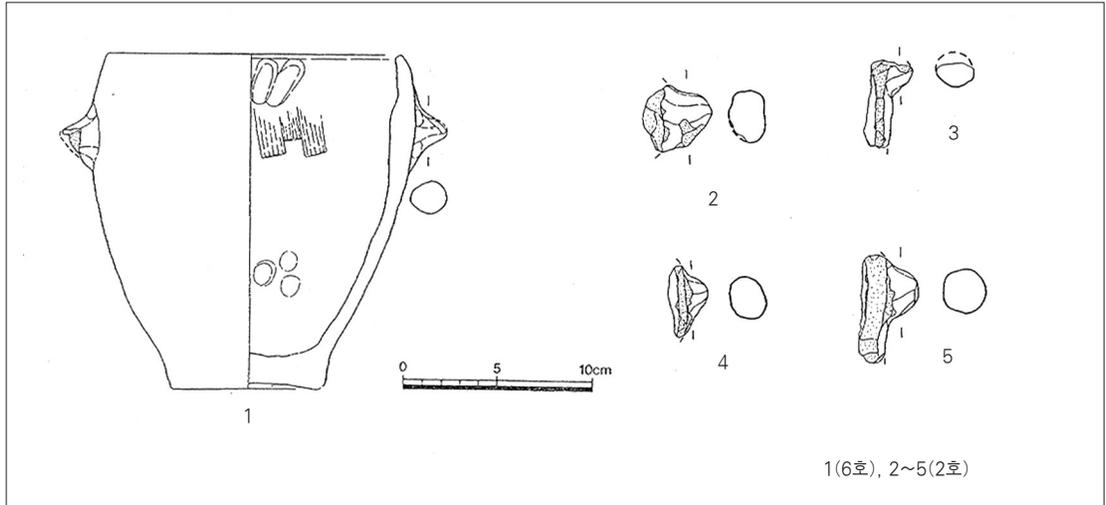
결국 진라리유적의 경우 비교대상간의 개체수가 적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고 일단 비교가능한 자료상으로 보면 구연부의 기울기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파악되지 않는다.

천발의 경우에도 그 수가 적어 비교대상이 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림 7>에서처럼 동체부나 구연부의 형태에서 그 차이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저부의 형태에서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굽에서 동체부로 올라오는 부분에는 꺾이는 각도차가 보이고 있다.



<그림 7> 천발형토기

덧붙여 발형토기에 있어 시기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원형단계에서 파수가 부착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영남지방 중 파수가 부착된 발형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은 경주·울산권과 대구(안동)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모두 송국리형단계에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진라리유적과 상호 관련성을 비교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울산권을 제외한 낙동강권역에서 청도진라리와 송읍리유적이 파수부발형토기의 하한선상에 위치한다.



〈그림 8〉 파수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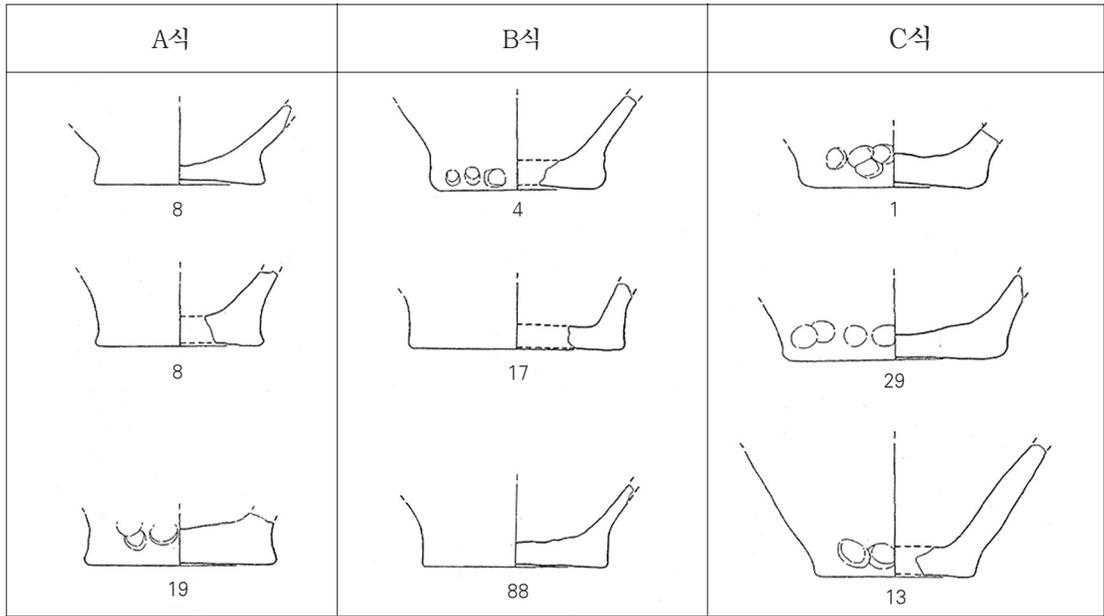
(4) 底部

일반적으로 무문토기에 있어 저부의 형태는 시간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거의 이용이 되지 않는 편이다. 진라리유적에서는 온전한 유물이나 구연부의 수량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서 후기의 송국리형 단계에 오면 그 숫자가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부는 세장방형단계부터 원형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여겨진다.

저부의 경우 원래 형태가 鉢이었는지 壺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약간의 차이를 통해 구분할 수도 있으나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발이든 호이든 역시 시간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전제로 같이 포함해서 분류하였다.²⁰⁾

분류의 기준은 저부의 바닥에서 동체부로 올라오는 부분의 꺾인 각도이다. 즉, 바닥과 수직을 기준으로 일단 예각으로 꺾었다가 다시 벌어져 올라가는 것을 A식, 거의 직각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을 B식, 둔각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것을 C식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대상은 주거지 평면형태로 세장방형, 장방형, 송국리형단계인 말각방형, 원형으로 하여 각 형식이 출토되는 양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20) 실제 분류 가능한 것을 호형과 발형으로 나누어 본 결과 호형은 불과 11점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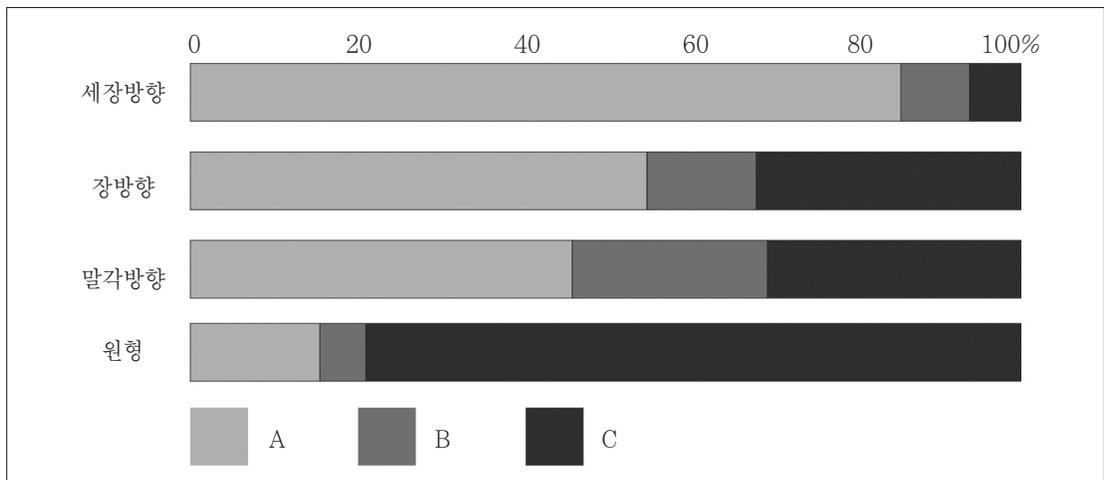


〈그림 9〉 저부의 형식분류

* 숫자는 출토유구번호

〈표 5〉 저부형태와 주거형태와의 관계

형식	세장방향 (n=32점)		장방향 (n=14점)		말각방향 (n=13점)		원형 (n=19점)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A식	27	84.4	8	57	6	46.2	3	16
B식	3	9.3	2	14	3	23	1	5
C식	2	6.3	4	29	4	30.8	15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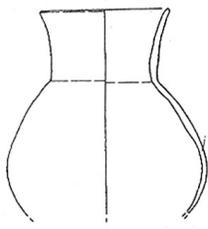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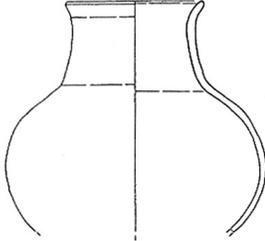
〈그림 10〉 저부형태에 따른 주거형태내에서의 점유율

〈표 5〉와 〈그림 9〉에서처럼 빈도를 보면 A식은 세장방형단계와 장방형단계에서, C식은 송국리형단계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빈도의 경향은 울산지역의 토기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으로²¹⁾ 참고가 될 만하다.

(5) 壺形 丹塗磨研土器

단도마연토기의 경우 출토품이 모두 壺形으로서 세장방형에서 3점(3,19,71호), 장방형에서 3점(64호), 말각방형단계에서 3점(22호)이 출토되어 빈약한 편이다. 거기에다 동체부는 3~4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아 형식편년은 구연부의 형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형 단도마연토기에 대한 편년은 대개 구연부의 형태와 동체부의 형태에 의존한다. 이 중 구연부의 경우 頸部와 동체부와의 구분이 다소 명확하나 구연부와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고, 경부에서 구연부 끝단까지 곡선적으로 外反하는 형태(I식)에서 점차 경부가 직립하면서 구연부 쪽에서만 외반하는 형태(II식), 다음으로 송국리형단계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부와 구연부,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가 같이 뚜렷해지면서 내경외반하는 형태(III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가 거의 사라지고 동체부에서 구연부가 짧게 외반하는 형태(IV식)로 변화되어 간다. 진라리유적에서는 이들 4가지 형식 중 IV형식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세장방형에서 I형식이, 장방형단계에서 II형식, 말각방형단계에서 III형식이 확인된다. 지석묘 출토품 중에서도 III형식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시기적 연관성을 엿보이게 한다.²²⁾

I 식	II 식	III 식	
 <p data-bbox="297 1383 334 1407">19호</p>	 <p data-bbox="544 1383 581 1407">83호</p>	 <p data-bbox="772 1383 809 1407">22호</p>	 <p data-bbox="1015 1383 1095 1407">지석묘 3호</p>

〈그림 11〉 호형 단도마연토기 형식분류

21) 그 예로 환호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진 검단리유적의 경우 1단계의 경우 A·B·C식이 각각 50·36·30%, 2단계에서는 25·29.5·27%, 3단계에서는 25·34·42%로서 역시 A식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C식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22) 보고서 고찰자는 이러한 유사성이 지석묘 축조집단과 말각방형주거지 축조집단의 동일성을 추정하고 있다(박달석 2005, 397쪽). 그러나 원형주거지 단계의 유물이 출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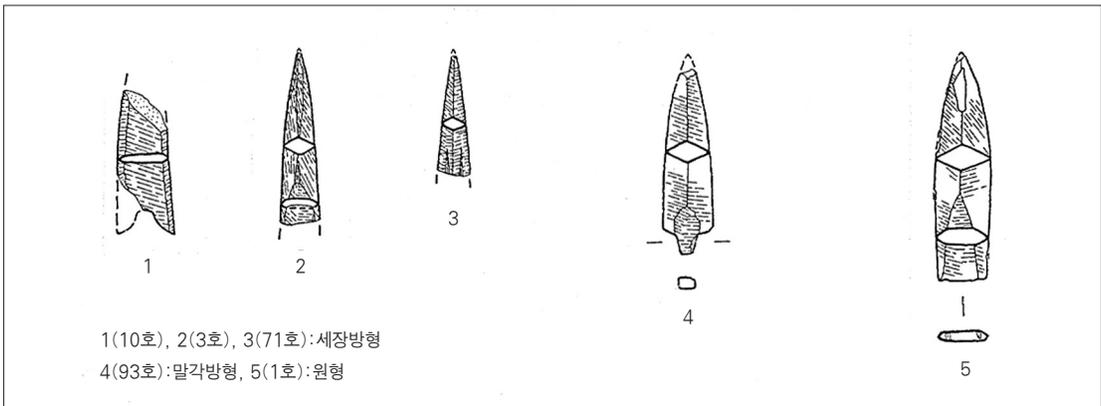
3. 石器

석기류는 그 출토양이 토기에 비해 더욱 더 빈약한데, 편년자료로서 대상이 될 수 있는유물은 석촉, 석부, 석도, 부리형석기 정도이다.

석촉 석촉은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세장방형단계에서 3점, 말각방형단계(93호)와 원형단계(1호)에서 각 1점씩이 출토되었다. 세장방형단계의 석촉은 無莖式의 단면편육각형 삼각만입촉 1점(10호)을 비롯하여 나머지 2점(3·71호)은 菱形的莖式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身部の 형태가 매우 세장하다. 71호 출토품은 혈구도 확인된다. 이에 비해 말각방형과 원형주거지 출토품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고 길어도 짧은 편이다.

진라리유적 출토의 석촉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능형촉의 경우 1호, 3호(93호)의 경우처럼 촉두에서 莖部로 내려오는 능선부가 신부의 1/2지점에서 단이 지면서 단면 편육각형과 같이 납작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유적에서도 형태가 비슷한 예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²³⁾

석촉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경식의 단면편육각형 삼각만입촉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형태의 석촉들은 명확한 편년의 근거로 활용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조수단으로서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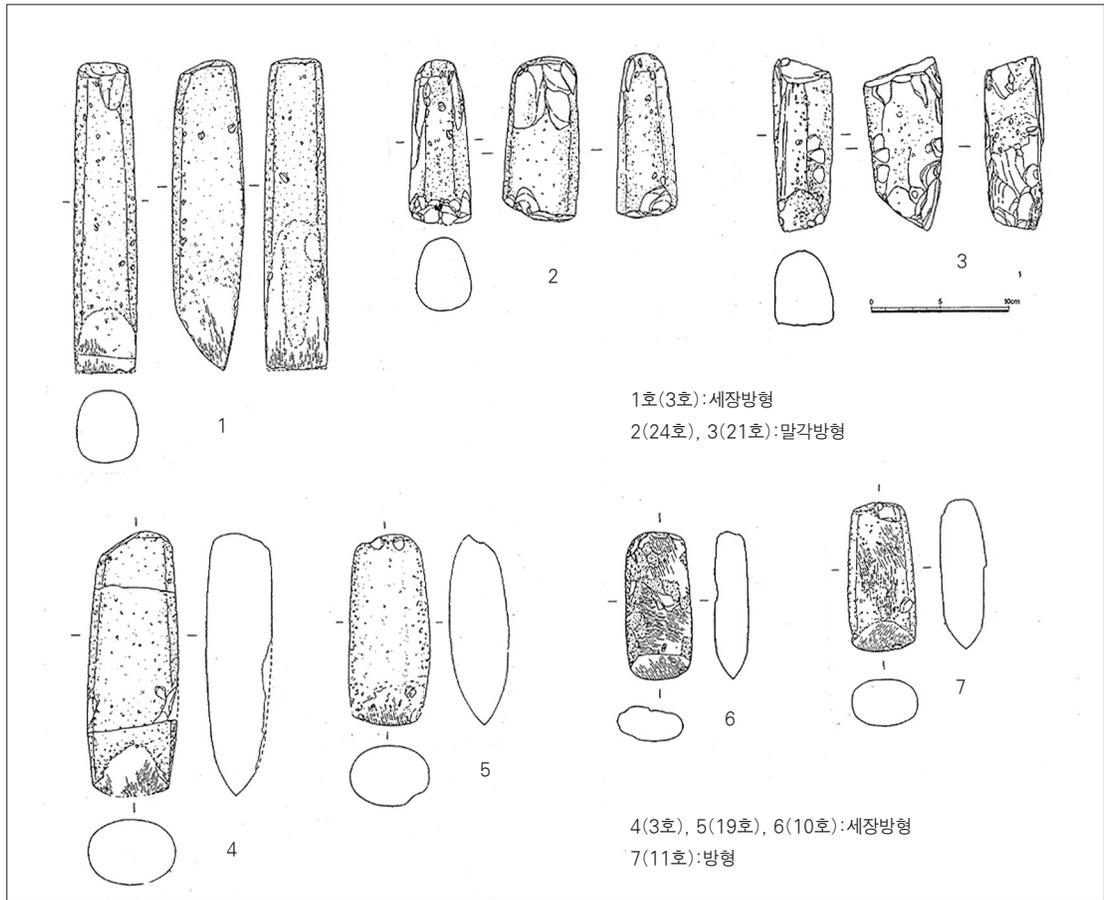


〈그림 12〉 석촉

石斧 석부류 역시 세장방형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兩刃석부 3점과 片刃석부 3점, 柱狀片刃석부 3점 등이다. 양인석부는 방형인 11호에서도 한 점 출토되었는데, 모두 횡단면이 기본적으로 타원형(원형계)이고, 10호 출토품은 좀 더 납작한 장타원형(방형?)을 띠고 있다.

양인석부는 편년적인 서열이 잘 간취되지 않는 유물 중의 하나로 보며(서영남·배진성 2000; 손준호 2006) 다만, 손준호의 경우 단면 방형계의 경우 전기에 집중된다는 점과 원형계가 그 수

23) 고찰자는 3호와 71호 모두 무경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3호의 경우 무경식이면 대전 둔산유적(충남대학교박물관 1995) 출토품과 유사하며, 유경식이면 제천 능강리유적(세종대학교박물관 2001)과 유사한데, 손준호의 분류에 의하면(2006) 모두 전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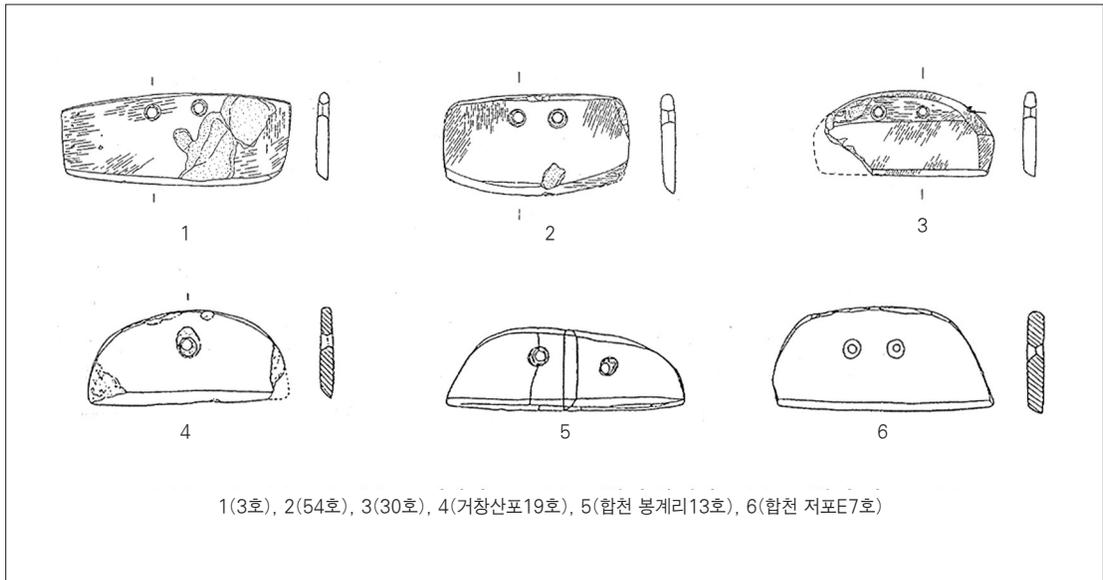


〈그림 13〉 주상편인석부(1~3) 및 양인석부(4~7)

량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 시대를 걸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형식이라고 보았다. 扁平片刃石斧 역시 시기에 따라 큰 형식변화가 보이지 않는 유물에 속한다(서영남·배진성 2000).

片刃石斧 중 柱狀片刃石斧와 有溝石斧²⁴⁾는 여타 석기들에 비하면 사용시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대개 주상편인석부는 전기에 출현하여 점점 소형화되어 송국리단계인 후기에 이르러 유구석부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서영남·배진성 2000). 즉, 전기에는 주상편인석부, 후기에는 유구석부로 이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라리유적의 경우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세장방형 단계에는 모두 주상편인석부가 확인되고 있고 송국리단계에서는 뚜렷한 유구석부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지만 말각방형 21호 출토품의 경우 溝형태가 일부 확인된다. 24호 출토품의 경우는 주상편인석부의 재가공품으로 보이는 상태이다.

24) 배진성(2000)은 주상편인석부, 유단석부, 유구석부를 넓은 의미에서 모두 주상편인석부로 보며, 좁은 의미에서 유단석부와 유구석부를 제외한 순수한 주상편인석부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혼란의 여지가 있어 모두를 편인석부류에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4〉 진라리출토 석도와 타 유적 출토 석도 비교

石刀 석도는 세장방형단계에서 2점, 말각방형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전자에서는 장방형, 후자에서는 櫛形²⁵⁾이 출토되었다.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토되는 영남지방의 경우 석도에 있어서는 이 지역만의 특이성이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과의 일반적인 편년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에는 장방형, 즐형, 梯形과 逆梯形이, 송국리단계인 후기에서는 역시 제형과 역제형이 계속 사용되고 舟形과 삼각형이 새로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손준호, 2001; 2006). 진라리유적의 경우 세장방형단계에서 출토된 장방형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말각방형에서 출토된 즐형의 경우 북한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남한내에서는 영남지방에 국한된다.²⁶⁾ 이들 영남지방유적 중에서도 거창이나 합천같은 중서부지방에 집중되는데 진라리유적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또한 합천 봉계리 13호의 경우 장방형석도도 같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송국리형주거지가 다수 조사된 대구 동천동의 경우에도 장방형이 수 점 출토되었다.²⁷⁾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전기에 주로 출토되는 魚形의 경우 대구 상인동유적(171-1번지;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출토된 적도 있다.

이처럼 영남지방에서의 석도편년은 타 지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지역만의 편년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리형석기 토기에서의 파수발형토기처럼 송국리형단계의 지표가 되는 유물로서 부리형석기가 있다. 납작한 평면 원형의 돌 한쪽 혹은 양쪽 모서리에 홈을 내어 마치 매의 부리처럼 보이게

25) 보고자는 '등이 곡선인 장방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26) 합천 저포E지구 지식묘(7호 :新式), 거창 산포(新式), 합천 봉계리(13호 주거지) 등.

27) 보고서에서 즐형으로 파악했던 것들을 엄밀하게 보면 梯形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들었다. 대개는 한 개의 홈이 있는 곳 아래로는 날카롭게 떼기하여 마치 절단도구와 같이 보이게 하였다. 이 석기의 용도는 필자에 의해 수확구로서 제기(유병록 2002:2006)된 바 있으나 석기사용흔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손민주·高瀨克範 2007)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부리형석기가 영남지방, 그 중에서도 송국리단계의 유적지에 집중되어 출토²⁸⁾된다는 점에서 진라리유적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15〉 부리형석기

Ⅲ. 유적 편년과 그 위치

1. 진라리유적의 편년과 유물간의 상대적 편년

앞서 각 유물에 대한 각각의 형식편년이나 선후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단은 이러한 유물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진라리유적내 주거형태와 출토유물간의 시기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편년이 송국리형단계의 후기론에 힘입어 中期가 사라지고 전·후기로 구분되어 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충남대학교박물관 2007). 물론, 안재호의 안(2006)처럼 돌대각목문이 출토되는 시기를 早期로 설정하느냐, 전기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전체에서 돌대각목문이 출토되는 양상²⁹⁾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라리유적이 속한 영남지방의 경우 남강유역과 최근의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안재호의 早期 형식이 보이지 않고, 대구 시지동 1호처럼(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주거형태는 전형적인

28) 대구 대봉동유적에서는 장방형(31호)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29) 전형적인 형태는 평면(장)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함께하는 미사리식주거형에 중부지방은 櫛文土器와 돌대각목문토기, 남부지방은 돌대각목문과 혼암리식토기와 공반양상을 보였다. 최근 경주지역(충효동)에서 최초로 조사된 미사리식주거지에 돌대각목문과 함께 즐문토기인 이중구연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2)

지만 출토유물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남지방에서의 양상은 위석식노지와 이중구연토기를 지표로 하는 가락동유형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금강유역에서 전형적인 형태가 영남지방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선별적인 채용(위석식노지만 채용하거나 이중구연토기만 채용하거나)이 이루어지거나, 이미 파급과정에서의 변질(유사이중구연같은)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남지방에 있어서 돌대각목문적 요소나 이중구연토기적 요소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그 原型에 맞추어 시기를 잡을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크게 보아 앞의 요소를 가진 유적이면 전기로, 송국리형단계는 후기로 설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영남지방 편년안으로서는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청도 진라리유적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영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동기시대의 빠른 요소와 늦은 요소 모두를 가진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이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다시 전기에는 세장방형주거지와 그 출토유물들을 전기전반으로, 장방형과 방형³⁰⁾주거지까지 포함하여 전기후반으로 하고자 한다. 다만 후기는 송국리단계인 말각방형과 원형주거지들을 포함시키고 이 두 형태의 주거형은 동시존재한 것으로 파악한다.

앞서 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기단계인 말각방형과 원형주거지 단계 서로간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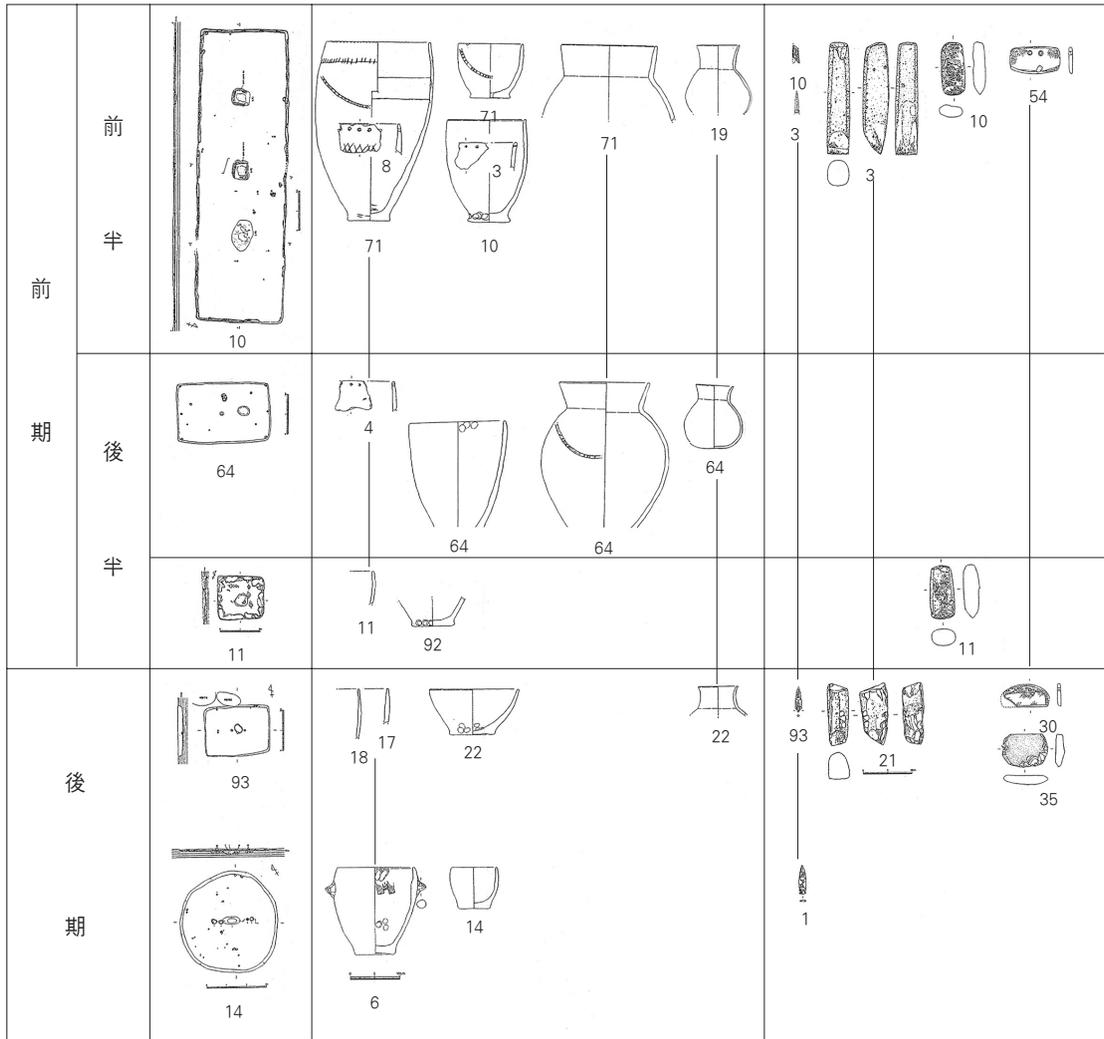
첫째, 일단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주거형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모두 매우 적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장 출토양이 많은 저부를 분석하기도 하였지만 하나의 경향성을 나타내어 줄 뿐이다. 발형토기의 구연부의 형태에 있어서도 분석대상수가 적어서인지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나마 출토유물 중 절대적 편년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의 편중이다. 가령 예를 들면 단도마연토기와 석도, 부리형석기는 말각방형에, 파수가 달린 심발토기는 원형단계에만 출토되어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석촉이 두 주거형에서 각 한 점씩 출토된다는 점인데, 형태상으로는 오히려 원형주거지 출토품이 더 빠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후기의 경우 다시 전·후반 같은 시기를 세분할 만한 기준이나 획기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6>과 같이 정리된다.

30) 방형의 경우 보고자도 고민을 하였듯이 중복관계에서 세장방형보다는 늦고, 송국리단계보다는 앞선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출토유물이 워낙 빈약하여 편년상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진라리유적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곳으로 대구 동천동유적의 방형주거지(8동)를 들 수 있는데, 송국리형주거지보다 앞서면서 평면형태와 노지가 있다는 것이 동일하고 규모면에서 다소 크지만 역시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임시 거처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송국리형주거지보다 선행한다는 점에서 전기로 편년하고자 한다.



〈그림 16〉 진라리유적 편년표

2. 영남지방에 있어서의 진라리유적의 위치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영남지방은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낙동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북부권, 낙동강의 한 지류이지만 영남 서남부를 관통하며 다수의 유적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남강·남해안권, 나머지 하나는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으로 볼 수 있다.

청도 진라리유적은 영남지방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매개고리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주 통로는 서쪽의 낙동강을 통하였겠지만 중간지점이 유적조사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고, 동쪽은 포항-경주-울산-부산으로 이어지는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 그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영남지방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진라리유적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 인근의 송읍리유적³¹⁾을 기점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경산지역(삼성리, 옥곡동, 시지동)을 거쳐 대구지역으로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밀양(금천리, 살내, 회곡리³²⁾)를 거쳐 김해와 남강유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증거로는 진라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내의 위석식노지와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라는 요소와 후기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와 파수발형토기가 될 수 있다.

먼저, 전기유적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위석식노지를 가진 세장방형주거지는 대구(팔달동, 대봉동, 상동, 월성동³³⁾)-청도(진라리, 송읍리)-밀양(금천리, 살내, 회곡리)-김해(어방동)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기의 대표적 토기인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역시 그 분포권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반드시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가 동일한 유구내에서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적중심으로 보아서는 대개의 경우 일단 위석식노지가 있다면 이중구연토기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림 17>처럼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위석식노지와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의 분포권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후기의 지표가 되는 유구로서 송국리형주거지는 대구-경산-청도-밀양-김해·양산-울산(검단리) 혹은 청도-밀양-창녕(아직 조사유적 없음)-남강유역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영남지역에서는 울진-포항-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남동해안 권역으로는 아직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후기에 있어 유물로서 전기의 이중구연토기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파수가 붙은 발형토기의 분포인데, 울산권역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영남내륙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토되는 유적이면 거의 대부분 파수부발형토기가 출토³⁴⁾된다는 점에서 둘과의 연관성이 분명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에는 송국리형주거지 없이 파수토기가 다수 출토된다는 점에서 파수가 붙은 심발요소는 동해안을 따라 내려온 것이거나 자체발생의 경우일 수 있다.³⁵⁾ <그림 18>의 양상처럼 진라리유적은 송국리주거지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남과 북을 잇는 역할을 한 반면 파수부토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거의 내륙지역의 남방한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진라리유적이 대구·경산권 남쪽에 위치한 높은 산지를 넘어서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쪽으로 파수부심발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확인될 가

31) 진라리 바로 남쪽에 위치한 송읍리의 경우 모두 8동의 주거지 중 송국리형 4동(원형 3+방형? 1동), 나머지는 장방형계통으로 세장방형(5호)과 장방형(7호)에서 각각 1개 씩의 위석식노지가 수혈식(무시설식)노지와 설치되어 있었다(경북문화재연구원 2005).

32) 주거지 9동 중 세장방형이 5동이며 그 중 1호와 4호는 위석식이며, 방형 4동 중 8호와 9호는 송국리형(진라리 기준으로 본다면 내부시설은 b식)주거지이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

33) 월성동 127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6)과 월성동 58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7)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후자의 경우가 진라리유적과 거의 같은 주거형태를 보여주지만, 전자의 경우 방형과 장방형에서 위석식노지가 확인된다.

34) 남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는 다수이지만 파수부발형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이다.

35) 배진성(2005)은 대구지역과 울산지역이 각각 '동천동식토기'와 '검단리식토기'처럼 전혀 다른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파수발형토기는 왜 두 지역에서만 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발형과 함께 호형에도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단리집단에게서 영향을 받은 제2차적 파급지로 보고 있다(발형토기에만 파수를 부착한다는 원래의 규칙과 규제성에서의 이탈로 봄). 검단리유형은 두만강유역에서 파수요소를 들여오고 대구지역으로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³⁶⁾

이와 같이 진라리유적에서 보이듯 청동기시대의 영남지방은 재지적 요소보다는 외래적요소가 들어오면서 그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전기의 경우 한반도 중부내륙에서 내려온 위석식노지와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양식을, 후기에는 역시 중부내륙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송국리형주거지에 동해안쪽에서 내려왔다고 보여지는 심발토기에 파수가 붙은 형태가 결합되고 있다.

이상 진라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 중 시기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주변지역과 상호 비교하고 판단해 보았을 때, 진라리유적은 영남내륙지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면서 남북, 혹은 동서간의 문화전파 내지는 문화교류의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맺음말

청도 진라리유적이 조사된 계기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였다. 가장 최단거리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진라리는 전체 도로의 거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비록 이것이 현대적 관점에서의 설계였지만 자연지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3,000년 전인 청동기시대에도 진라리유적은 역시 영남내륙지역에 있어서 지리적 이점으로 북과 남, 혹은 동과 서의 문화교류와 전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청동기시대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기에서 후기까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출토된 유구와 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後記 : 좋은 유적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능력상 한계로 일부 무리한 논거나 쉽게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무엇보다 이번 진라리유적의 유물부분에 대한 고찰은 본 유적의 조사자이자 보고서 보고자였던 박달석 선생의 치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이번 발표기회를 주신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이백규 원장님과 박승규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6) 실제 함안 가마실유적의 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내에서 파수만 1점 출토되었는데(창원대학교박물관, 2001), 확실한 전체 기형을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있다.

참고문헌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 『밀양 국도 24호선 확장구간내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경북문화재연구원, 200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清道 松
邑里·榆湖里·內湖里遺蹟-』.
- _____, 2007, 『大邱 大鳳洞 마을遺蹟』.
- 고민정,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섭,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옥, 2006,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_____,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제60집, 한국고고학회.
- 동진숙, 2003,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달석, 2005, 「고찰」 『清道 陳羅里遺蹟』, 영남문화재연구원.
- 박순발, 1999, 「欣岩里 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 창간호, 호서고고학회.
- 배덕환,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영남
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배진성,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제32호, 영남고고학회.
- _____, 2005, 「檢丹里類型的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제48호, 한국상고사학회.
- 서영남·배진성, 2000a, 「蔚山地域에서 採集된 無文土器와 石器」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김
정학박사송수기념논총, 학연문화사.
- 손민주·高瀨克範, 2007, 「부리형석기·반월형 석도의 使用痕 分析」 『東亞文化』 특집호, 동아
세아문화재연구원.
- 손준호, 2001, 『韓半島 出土 半月形石刀의 諸分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재호,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5, 「고찰」 『蔚山檢丹里마을遺蹟』, 부산대학교박물관.
- _____,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재호·천선행, 2004, 「前期無文土器의 文樣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
先生退職記念』.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時至의 文化遺蹟 I』.
- _____, 2007, 『대구 월성동 1275유적』.
- _____, 2007, 『대구 월성동 585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清道 陳羅里遺蹟』.
- _____, 2007, 『대구 상인동 171-1번지유적』.
- 우정연, 2002, 『中西部地域 松菊里文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병록, 2002, 「大邱地域의 初期農耕」『韓日 初期農耕 比較研究』大阪市學藝員等共同研究 韓半島綜合學術調查團.
- _____, 2004,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Ⅱ-시기차가 있는 출토유물의 해석문제-」『嶺南文化財研究』17, 영남문화재연구원.
- _____, 2005, 『韓國 靑銅器時代 住居址 集成 -경상북도-』, 춘추각.
- _____, 2006, 「一名 '부리형석기' 用途에 대한 小考」『석헌 정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정한덕, 1999, 「'欣岩里 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의 토론요지」『湖西考古學』창간호, 호서고고학회.
- 진동숙, 2003, 『嶺南地方 靑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창원대학교박물관, 2001, 『함안 가마실유적』.
- 천선행, 2006,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석헌 정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 『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호서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연합진.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慶山 玉谷洞 遺蹟 I -서부택지개발사업지구내 발굴조사 보고서-』.
- 현창호, 2005, 『蔚山地域 靑銅器時代 無文土器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호남고고학회·호서고고학회, 2006,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 호서고고학회, 2007, 『湖西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학술대회.

「청도 진라리유적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에 대한 토론 요지

김병섭(경남발전연구원)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무문토기문화의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무문토기 문화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진라리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는 앞으로 영남지역 무문토기문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병록 선생님의 이번 발표를 통해 영남중부내륙지역의 무문토기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의 주 논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과 궁금한 점 등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주거지의 평면형태의 변화상과 편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86호(세장방형)→52호(장방형), 19호(세장방형)→66호(방형)의 중복관계에서 전기의 주거지 형태의 변화는 세장방형(전기 전반)→장방형·방형(전기 후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2예에 의해 세장방형이 장방형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고 일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세장방형 주거지를 파괴한 장방형 주거지 52호와 66호의 경우 모두 노지가 없는 장방형주거지입니다. 장방형 주거지 내에서 보면, 노지가 있는 77호 장방형 주거지를 노지가 없는 75호 장방형 주거지가 파괴하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방형 주거지 내에서도 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별해 둘 필요가 있고, 노지가 있는 장방형 주거지가 시기적으로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세장방형 주거지와 노지가 있는 장방형 주거지 간의 시간성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진라리유적의 세장방형 주거지를 무문토기시대 전기 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①토론자는 무문토기시대 전기 전반에는 구연부에 점토띠를 덧붙인 이중구연토기와 구연부 점토판을 뚜렷한 단이 지게 성형하여 이중구연 효과를 내는 유사이중구연토기가 시간성을 두고 출현하고, 전기 후반에는 구연부 점토판에 의한 단이 지는 현상이 퇴화되어 밋밋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김병섭 2003). 진라리유적의 세장방형 주거지의 토기는 구연부 점토판이 단이 지지 않고 밋밋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퇴화된 형태로 보입니다.

②역삼동·훈암리식의 토기(단사선+공열 1점, 공열 1점)보다는 가락동식의 토기(이중구연+단사선 1점,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1점, 단사선+구순각목 2점)의 출토량이 많고,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8호, 10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의 영향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가락동유형의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전기 후반이 되면, 장방향에서 세장방향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이형원 2002·2007).

③진라리유적에서는 세장방향주거지에서 적색마연원저호가 출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색마연원저호의 경우 전기 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송영진 2006).

3) 후기 주거지는 말각방향a식→말각방향b식·원형b식→(=)말각방향c식·원형c식→말각방향d식·원형d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상은 진라리유적 이외에 타 지역, 즉 가깝게는 금호강~밀양강유역·남강유역, 멀게는 충청도지역의 송국리유형의 중심 문화권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2. 영남지역에서 나타나는 위석식노지나 이중구연토기에 대해서 가락동유형의 파급으로 언급 하였습니다. 대구 상동, 팔달동, 삼성리 유적과 진라리유적에서는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가 있고, 가락동식토기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가락동유형의 파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락동유형의 이중구연토기는 이중구연 혹은 유사이중구연 하단부에 단사선을 시문하며, 대개는 동체부에 까지 단사선의 시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은 1지구, 옥방 5지구, 상촌리, 시지동, 살내, 금천리 등지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토기는 이중구연부에만 단사선, X자문, 거치문을 시문 하거나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김병섭 2003).

위석식노지와 초석을 갖춘 주거지가 가락동유형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가락동유형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천리·살내·무촌리유적에서도 위석식노지나 초석을 갖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가락동식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주거지 내부에 단사선이 확인되는 등 가락동유형의 주거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지역 공열토기문화권의 교동 1호와 방내리 11호 주거지에서도 위석식노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 및 이중구연토기를 가락동유형에 포함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진라리유적을 포함하는 금호강~밀양강유역, 즉 영남 중부내륙지역은 하나의 무문토기 문화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의 이 지역은 역삼동·혼암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유적에서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나 가락동식토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루는 취락에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요소가 확인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양 유형간 교류의 증거로 이해되는데(이형원 2007), 영남중부내륙지역은 어느 문화유형이 중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포항~울산지역 주거지의 특징인 외부돌출구가 달린 주거지(팔달동 13호, 청정리 4호 등)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기에는 발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포항~울산지역과 더불어 파수부발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석도에서도 즐형(진라리)과 어형(상인동)이 확인되었고, 삼각형 석도 대신 제형과 역

제형의 석도(동천동)가 출토되는 등 전형적인 송국리유형과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무문토기시대 전·후기에 있어 영남 중부내륙지역의 이러한 양상은 각 문화권의 경계에 위치한 결과 나타나는 이 지역만의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문 말미에는 재지적요소보다는 외래적요소에 의한 변화라든가, 남북 혹은 동서간의 문화전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지적요소는 무엇인지, 영남중부내륙지역을 거쳐서 전파된 문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4.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무문토기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그러한 시기구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김병섭 2005). 최근 안재호 선생님께서 제기한 조기론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단도마연토기에 대한 용어문제입니다. 단은 수은과 유황을 화합하여 만든 붉은 색 흙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기에 대한 분석에서 산화철이 안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도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말의 붉은간토기와 합치하는 적색마연토기라는 용어(송영진 2006)가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김병섭, 2003, 「한반도 중남부지역 전기 무문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섭, 2005, 「무문토기시대의 화재주거지에 대한 일고찰」『경상사학』21, 경상사학회.
송영진, 2006, 「한반도 남부지역의 적색마연토기 연구」『영남고고학』38, 영남고고학회.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형원,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7, 「호서지역 가락동유형의 취락구조와 성격」『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변천』 제1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20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청도 진라리 취락유적의 구조와 문화

발행일 2007년 6월 16일

발행처 財團
法人 嶺南文化財研究院

718-912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번지
전화 054-971-8086, 전송 054-971-8090

www.ynicp.or.kr

인 쇄 **서재문화사** 053-252-6445

